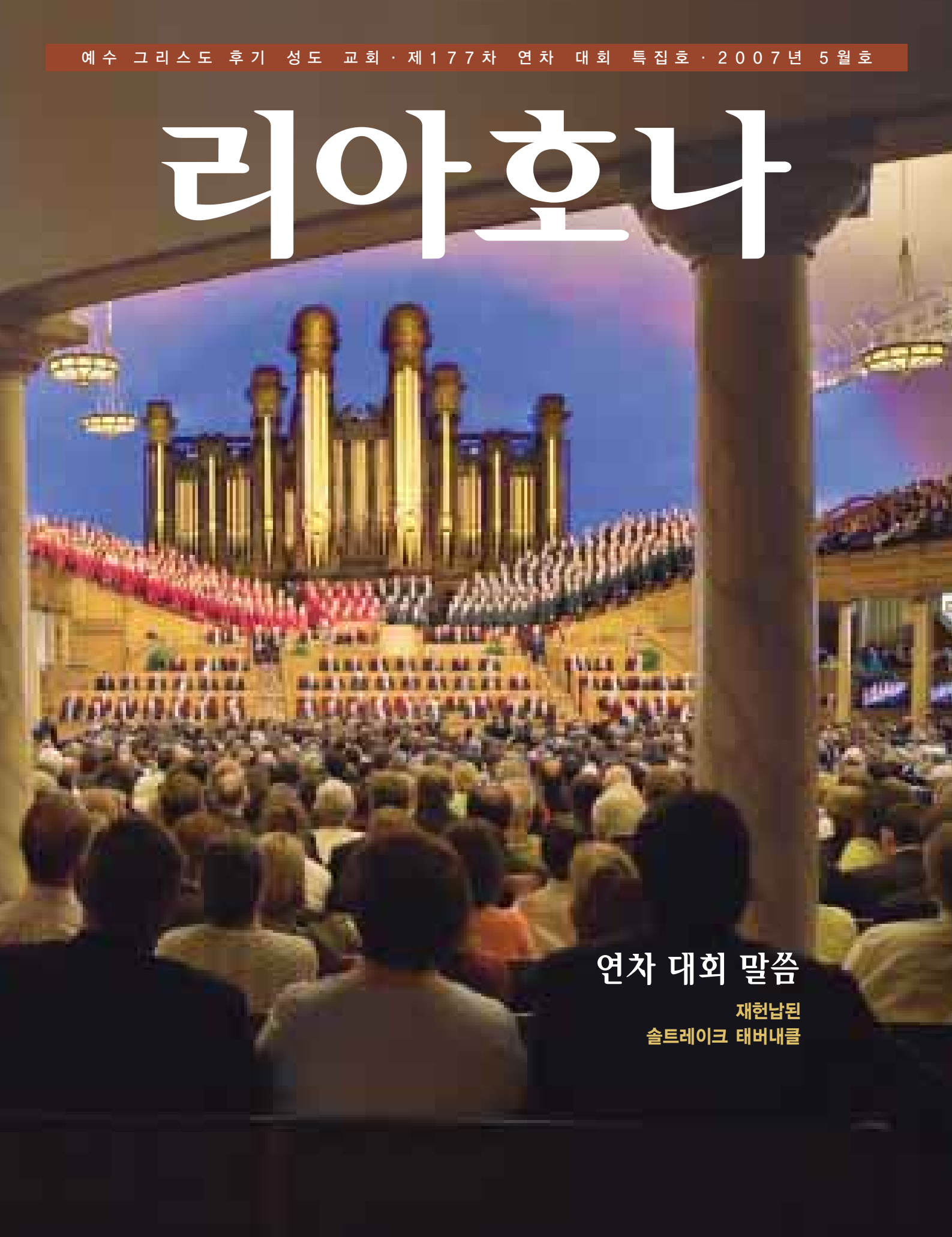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재헌납된
슬트레이크 태버나클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제177차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교회 잡지 5월호를
가정의 밤 교재로 활용하여 이 대회에서
전해진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연사들이 전한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연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 매미드 스튜디오, 복스 아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신 그리스도, 데이비드 린즐리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39~39)



퀸스 스트리트에서 본 전경, 알 리운즈

1893년 4월 연차 대회 때 헌납된 솔트레이크 성진의 동남쪽과 1875년 10월 연차 대회 때 헌납된 테버내클에서 바라본 전경.
후기 성도들은 실제로 1867년 10월 연차 대회부터 테버내클을 쓰기 시작했다.

리아호나

2 제177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2006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 7 2006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8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11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켄슨 장로
- 14 주님께 드리는 약속
존 비 덕슨 장로
- 16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19 너희는 거듭 나아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2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6 태버네클의 영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9 개척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얼 시 텅기 장로
- 32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34 감사: 행복으로의 길
보니 디 콰킨
- 36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켄슨 장로
- 39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재헌납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41 태버네클의 추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43 광야의 태버네클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신권 모임

- 45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위스틴 장로
- 48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51 공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54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57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0 저는 깨끗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7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70 이혼
말린 에이치 옥스 장로
- 74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닐 엘 앤더슨 장로
- 76 물문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주모리
- 78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장로
- 80 성경의 기적
엠 러셀 팰라드 장로
- 83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5 회복의 메시지
엘 톰 페리 장로
- 89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92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제리 제이 코울먼 장로
- 94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 97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라?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 99 안전한 귀환 지침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102 회개와 개심
러셀 엠 벨슨 장로
- 105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청녀 총회

- 106 하나님의 딸들
수잔 더블류 태너
- 109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벡
- 112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 115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8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 119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19 아론 신권 및 청녀 참모 지도서
- 122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2 교회 소식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제안하셨듯이 (105쪽 참조) 가정의 밤을 포함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이번 호를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3쪽의 주제별 색인, 118쪽의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나 부, 32쪽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물품 번호 36123 320)



제177차 연차 대회 요약

2007년 3월 3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로버트 에프 오펜 장로. 폐회 기도: 폴 이 코엘리커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틴슨: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80장; "세상은 즐거워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경전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영문 찬송가(1948), 70장, 윌버그 편곡, Oxford 출판.

2007년 3월 3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개회 기도: 로웰 엠 스노우 장로. 폐회 기도: 알 콘라드 솔츠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룽허스트, 리처드 엘리엇: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주의 영이 거하는 주의 집", 찬송가, 186장;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This House We Dedicate to Thee", 영문 찬송가 24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7년 3월 31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웨인 에스 피터슨 장로. 폐회 기도: 폴 브이 존슨 장로. 음악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 신권 합창단; 지휘: 로널드 스탈리;

오르간 반주: 존 룽허스트: "Rise Up, O Men of God", 영문 찬송가, 324장, 스탈리 편곡, 미출판;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영문 찬송가, 335장, 홉킨스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존 시어스 테너의 가사; "I Love the Lord", 영문 찬송가, 124장, 스탈리 편곡, 미출판.

2007년 4월 1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개회 기도: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폐회 기도: 고원용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클레이 크리스틴슨: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는 내 목자 되시어", 찬송가, 98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to Watch Over Thee", 멘델스존, 제섭 편집, 미출판; "신앙의 인내 있을 때", 찬송가, 84장;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게이츠 편곡, 잭맨 출판.

2007년 4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에이치 로스 워크맨 장로. 폐회 기도: 디 렉스 게렛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굼리프;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이", 찬송가, 5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7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수잔 더블류 테너. 개회 기도: 힐러리 올슨. 폐회 기도: 로지 배셋. 음악 제공: 유타주 프로보 스테이크들의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페리 편곡, 미출판(프렌치 호른: 메리 우드 램프로스); "If the Savior Stood Beside Me", 드포드 편곡, 미출판; "예수께서 배부신 사랑", 찬송가, 111장, 마누긴 편곡, Jackman 출판 (플룻: 캐슬린 엘링슨, 하프: 세라 에드워즈);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영문 찬송가, 256장, 케이즌 편곡 및 각색, 잭맨 출판.

연차 대회 녹화 자료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자료는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뒤: 사진 촬영, 윌든 시 앤더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먼드, 윌든 시 앤더슨, 존 루크,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로드 보엠, 에밀리 레이쉬먼, 조프리 맥칼리스터, 마크 윈버그, 코트니 크리스찬슨이 촬영했으며, 브라질에서는 로레니 아드마 포체토와 아드리아노 칼바호 베도비,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지스킨드, 과테말라에서는 버나 로드리구에즈, 온두라스에서는 파블로 아사카, 루스 피규로아, 알만도 리바스, 알만도 시에라, 자메이카에서는 데브 로울이, 페루에서는 후안 마누엘 히베라 가빌라노, 필리핀에서는 다닐로 슬레타, 스웨덴에서는 마크 헤텐그렌이 촬영했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제5호

007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콧,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클린, 요시히코 기꾸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블유 섀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중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율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코트, 캐리 카스텐,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카코, 주디스 엠 팔러, 비버만 폴슨, 리차드 엠 린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윌 벤덴버그, 줄리 워렌, 캄벨 램
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거 오온, 브리트리니 존스
범,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위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494호, 제44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잡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불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말갈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y 2007 Vol. 31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주제 색인

가정의 밤, 105
가족, 54, 76
간중, 32, 54, 78, 83
감사, 34, 57
개인적인 의로움, 106
개중, 11, 19, 102
격려, 16
결정, 48
결혼, 16, 70, 105
검손, 67
경건, 11
경전, 76, 80, 115
계시, 92
고찰함, 45, 60
고든 비 헝클리, 29
교육, 54
교회 역사, 29, 32, 36, 39, 43
교회 잡지, 105
근면, 45, 51
기도, 8, 76, 94, 115
기억함, 36
깨끗함, 60
덕, 12
말씀, 16
모범, 106, 109
목표, 45
물문경, 92
미루는 것, 89
봉사, 45, 85, 89
부채, 51
부활, 22
브리검 영, 29
사랑, 22, 34, 106
선교 사업, 11
선지자, 29, 32, 39
선택의지, 94
성결, 19
성경, 80
성스러운 속성, 94, 106
성신, 26, 78
성약, 19, 76, 112

속죄, 99
순중, 14, 45, 48, 60, 94, 97
신권, 54, 57, 85
신앙, 8, 41, 48, 67, 74, 76,
78, 97, 109, 115
신뢰, 83, 92
십일조, 57, 97, 115
역경, 34, 78, 94
연차 대회, 41, 105
영감, 26
영생, 22
영적인 거듭남, 19
예배, 11
예수 그리스도, 22, 80, 109
용기, 45, 57, 78
용서, 67, 99
우선순위, 74
음악, 11, 26
의로움, 51, 54
이혼, 70
자기만족, 89
자녀 양육, 94
자립, 51
정숙함, 112
정직, 45, 76
조셉 스미스, 78, 80
준비, 48, 51
지혜의 말씀, 14
참상가, 11, 94
책임, 54
청녀, 109
청소년, 14
치유, 67, 70
친절, 105
침례, 41, 92
태버넌클, 26, 29, 32, 39, 41,
43
평화, 8
표준, 14
하나님, 106
하늘 아버지, 8
학대, 16

함당성, 57
헌신, 14
활동 촉진, 85, 109
회개, 99, 102, 109
회복, 83, 85, 92
희망, 102
희생, 80, 94, 109

연사들 (가나다 순)

게리 제이 코울먼, 92
고든 비 헝클리, 43, 60, 83,
105, 115
글렌 엘 페이스, 78
닐 엘 앤더슨, 74
말린 에이치 옥스, 7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9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99
라셀 엠 넬슨, 102
로버트 디 헤일즈, 48
리차드 지 스콧, 8
말린 케이 젠슨, 36
보니 디 파킨, 34
보이드 케이 패커, 26
비키 에프 마주모리, 76
수잔 더블류 태너, 106
얼 시 텅기, 29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32
엘 톨 페리, 85
엠 러셀 블라드, 80
요시히코 기꾸찌, 97
일레인 에스 돌튼, 112
제이 이 젠슨, 11
제임스 이 파우스트, 39, 54, 67, 92
조셉 비 워스런, 45
존 비 디슨, 14
줄리 비 벡, 109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94
키스 비 맥멀린, 51
토마스 에스 문슨, 4, 22, 41,
57
헨리 비 아이어링, 89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히클리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손을 들어 마음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든 비트너 히클리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일 회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님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2007년 5월 1일자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디 엘 렌 앤더슨, 시 엘머 블랙, 일테폰스 드 카스트로 듀스, 오스카 더블류 차베이스, 헥터 에이 다발로스, 카를로스 알 페르난데즈, 카를로스 제이 가르시아, 존 알 김슨, 호세 엘 곤잘레즈, 파울로 그라할, 비버 티 호 칭, 엠마뉴엘 에이 키시,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지 스티븐 레이니, 베리 리, 제임즈 비 맥도널드, 제럴드 에이 미드, 조지 멘데즈, 로드리고 미러, 카를로스 에이 페레즈, 리차드 지 피터슨, 에릭 비 섬웨이, 조셉 더블류 시타티, 에이 킴 스미스, 더블류 블레이크 소네, 게리 엠 스투워드, 마이클 제이 테, 로버트 비 화이트, 존 더블류 자들러.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리케 알 팔라벨라, 에릭 더블류 코피스케, 마이클 제이 테,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클라우디오 디 지빅 형제를 새로운 칠십인 제일 정원



회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윤환, 리차드 케이 아하지에, 르우벤 브이 알리아우드, 클라이마토 시 에이 엘메이더, 세 어조우 엠 아나자,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페르난도 제이 디 어러우조, 노울런 디 아치벌드, 카를로스 엘 아스터가, 헥터 아빌라, 마빈 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맞이하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왼쪽)와 제프리 알 훌렌드 장로(중앙)

브랑커허프, 엠 앤소니 번즈, 데이비드 카브레이라, 라파엘 이 카스트로, 제럴드 제이 코우스, 로버트 이 챔برز, 킴 비 클라크, 데이비드 엘 쿡, 넬슨 디 커더버, 게리 엘 크리튼던, 스티븐 엘 플러카이저, 호벤시오 에이 구완존, 마리오 이 게라, 루이스 에스 헤르난데스, 개리스 시 힐, 프레드릭 시 이헤시네, 데이비드 에이치 잉그럼, 테추지 이시이, 카폼바 티 콜라, 리차드 케이 멜친, 알 브루스 메릴, 피터 에프 머스, 벤슨 이 미살루차, 앤리크 제이 먼토우자, 케이 브렛 이트레스, 러셀 티 오스구소르페, 가

말리엘 오우서노우, 패트릭 에이치 프라이스, 파울루 알 프웨이라, 르우벤 엘 스피테일, 네이 터 시 터바이어스, 프랭크 브이 트라이델, 테런스 엠 빈슨, 타니엘라 비 와코로, 리차드 더블류 윌러, 스캇 디 휘팅.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니 래 던지 파킨, 캐서린 허스트 휴즈, 앤 클락 핑그리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의 모든 회원들을 해임합니다.

줄리 뱅거터 벡, 일레인 슈발츠 돌튼 자매를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직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리 뱅거터 벡 자매를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실비아 헨리케즈 얼리드

자매를 제1보좌로, 바바라 톰슨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레인 슈발츠 돌튼 자매를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로, 메리 닐슨 쿡 자매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칠십인,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클리 회장님,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2006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존 경하는 제일회장단께: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 및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승인합니다. 평의회 승인을 받은 후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에 맞게 자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의 자산 보호에 관한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그 외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집행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06년 동안의 현금 영수,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적합한 회계 업무와 승인된 예산, 그리고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류 캔트웰

관리 책임자 ■



2006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제일회장단 서기

형 제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활동에 대한 다음의 보고
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단위 조직 수

스테이크2,745
선교부344

지방부630
와드 및 지부27,475

교회 회원

회원 총수12,868,606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94,006
침례 받은 개종자272,845

선교사

전임 선교사53,164

성전

2006년 동안 헌납된 성전2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핀란드 헬싱키)
2006년 동안 재헌납된 성전2
(칠레 산티아고, 타히티 파페에테)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총수124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드베르 해리스
장로,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스펜서 에이
치 오스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부인 영 로저스 워스린 자매,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마빈 제이 애쉬
튼 장로의 미망인 노머 윌슨 번스톤 애쉬튼 자
매, 전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인 도로시 포터
홀트 자매. ■



대회 방송을 위해 모인 자메이카 린스테드 지방부 회원들과 선교사들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연차 대회는 훌륭한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찬송가의 고전인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매우 감동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귀에 익은 이 가사는 기도가 평안, 안도, 그리고 보호의 근원이라는 것과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기꺼이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라는 선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전능

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미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과 함께 대화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분의 인도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도 하라. 그러하도다.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며, 혼자서뿐만 아니라 회중 앞에서도 할지니라.”¹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거나 오만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유롭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사랑받거나 버림받았거나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전 약속도 필요없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간단할 수도 있으나,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긴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을 위한 긴박한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들에 인류를 살게 하셨으며,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

서 동시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인도와 화평을 가져 옵니다.

서투른 감정 표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동정심 많고 이해심 깊은 아버지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완전하게 사랑하고 도와 주고 싶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향상시키는 열쇠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에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진실하게 찾는 쪽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런 후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되찾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범하고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때가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합당치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압도하는 긴박한 문제가 닥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기도의 위대한 힘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히, 우리의 감정을 소리내어 표현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크게 근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나 범법

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지극히 중요한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제 안에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완전하게 신뢰하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두려워했던 축복인 평온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완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기도하며 “주님, 어찌 그 일을 이루셨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그 답이라는 것을 제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정심 많은 아버지께 드리는 진지한 기도의 힘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 모임에서 하신 기도에 귀 기울임으로써 기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2001년 10월 연차대회를 마치시며 그분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드리신 특별한 기도를 신중히 생각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준비된 원고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편의를 위해 기도는 메시지 뒷부분에 포함)²

그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기도 중에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중언부언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떠한 과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간단한 단어를 훌륭하게 결합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겸손하고, 의심치 않는 아들로서 기도하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축복에 대한 풍성한 표현과 더불어 해답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함께, 각각의 기도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힝클리 회장님의 자연스러운 기도는 잘 세공된 보석과 같으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그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보여 주는 소리 없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일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은 후에야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감 받은 응답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응답을 한꺼번에 모두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번에, 조금씩 오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각 부분들이 신앙에 따라 오게 되므로, 완전한 응답을 받게 되기까지 나머지 부분들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역량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변함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즉각적인 답변을 간구하는 때일지라도 응답이 무릎꿇고 기도하는 동안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 강화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의 방식은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직접적으로, 즉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오며, 간구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최적의 시간에 최선의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³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고심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게 될 것이고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커질수록 성품은 더 굳건해질 것이며, 굳건한 성품은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기 전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잘못된 일을 하거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 진실한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순종적인 삶으로부터 온 깊고도 신실한 신앙을 행사한 것이 어째서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지 못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⁴ 가끔 시간이 지나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이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영원한 복리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도록 요구받습니다.⁵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한다]”⁶ 는 주님의 권고에 따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해결책을 생각해 내고,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을 구하는 가운데 도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성신의 느낌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⁷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대한 이 조언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 너는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 네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라 …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⁸

응답은 확신을 동반하는 느낌으로 오게 됩니다. 구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⁹

생각과 마음에 오는 응답은 성신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오는 메시지입니다. 저의 경우

에 생각에 오는 응답은 분명하게 말하는 음성처럼 매우 구체적인 것이지만, 마음에 오는 응답은 더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것입니다.¹⁰

그런 후 주님은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면 … 생각이 둔하여[질]”¹¹ 것이라고 명백하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긍정적인 응답이 오는 또 다른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¹² 평강의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장 보편적인 확인의 증거입니다. 별 진전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며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 걱정하고 있었을 때, 저는 신앙으로 그러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후에 저를 감싸는 평안이 찾아왔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저의 걱정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부 오해들은 경전이 효과적인 기도에 관한 원리를 정의해 주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풀릴 수 있지만, 그 응답이 언제 주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결정이 옳다고 확인해주는 평화, 평안,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

을 알려 주는 불안한 느낌, 생각이 둔하여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중하게 준비했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이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며 행동해

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뢰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을 가르쳐 주는 생각의 둔하여짐을 경험하게 되거나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화평이나 뜨거운 느낌을 가슴 속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생활하고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경고의 느낌 없이 여러분이 너무 멀리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에 대한 감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해지 아니하느니라”¹³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도라는 비할 데 없는 선물과 그로부터 오는 무한한 축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순수한 감사가 채워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분

의 응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며 영원한 유익이 될 방법으로, 또한 그러한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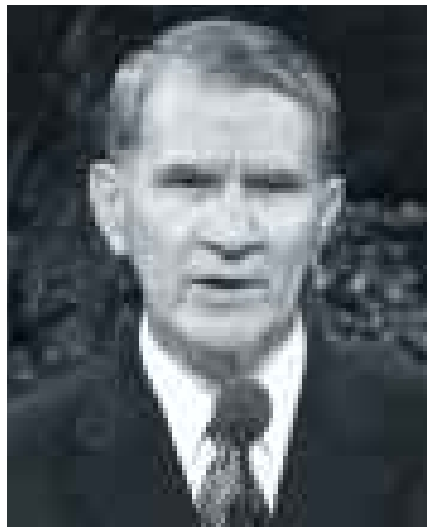
주

1. 교리와 성약 19:28.
2. “모든 나라의 위대한 심판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하고 고통스런 시기에 신앙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신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지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불굴의 노력을 쏟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해로움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비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감찰하시는 가운데 그 정부들이 조직된 지상의 모든 민주 국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화와 자유와 민주적 발전이 그 곳에 번성하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이 환란의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우방들을 자비로 보살피 주시옵소서. 당신과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신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대업을 축복하셔서 다시 저희에게 평화가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저희 오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이시며,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5쪽 참조)
3.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153쪽.
4. 교리와 성약 88:64, 기율임 풀이 추가됨. 또한 63절과 65절 참조.
5. 교리와 성약 6:23, 36; 교리와 성약 8:2~3, 10; 교리와 성약 9:9 참조.
6. 교리와 성약 9:8.
7. Spencer W. Kimball,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252쪽 참조.
8. 교리와 성약 9:7~8, 기율임 풀이 추가됨.
9. 교리와 성약 8:2~3, 기율임 풀이 추가됨.
10. 이노스서 1:3~5, 9~10 참조.
11. 교리와 성약 9:9.
12. 교리와 성약 6:23, 기율임 풀이 추가됨.
13. 교리와 성약 59:21.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찬송가는 영성, 계시, 개종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합창단은 영감에 찬 설교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¹ 제가 간증을 얻고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을 한 데에는 어렸을 때 불렀던 시온의 찬송가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타 주의 작은 마을 메이플턴에서 자라면서 오늘날 “올드 화이트 처치”로 알려진 곳에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95세 된 제 어머니는 아직도 메이플턴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방문하면서 “올드 화이트 처치”를 지나갈 때는 그리운 추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개종의 힘을 지닌 찬송가를 신권회, 주일학교, 성찬식에서 불렀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헝클리 회장님께서 집사 시절에 그분의 부친과 스

레이크 신권 대회에 참석하면서 하신 경험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²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노래에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 느낌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³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찬송가는 영성, 계시, 개종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영을 불러들임

“찬송가는 교회 모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을 불러들입니다.”⁴ 찬송가는 영을 불러들이는 점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냅니다. 제이 루우엔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제외하고 찬송가만큼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⁵

페루의 한 집에서 노부부를 가르치고 있던 두 선교사는 갑작스런 그 노부부의 아들과 며느리와 세 손자의 방문으로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선교사를 의심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후임 동반자는 마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까요?” 그는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⁶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다섯 명의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노부부를



포함하여 일곱 명 모두가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과 공과 반에서 찬송가는 예배, 계시 및 간증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감독은 성찬식을 위해 찬송가를 선택하거나 승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악보, 가사 및 악기는 반드시 성스럽고 품격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경건과 계시를 불러들입니다. 음악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음악은 하나의 공연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한 모임에서 특별 음악 순서를 맡았는데 그 순서는 단순한 음악 공연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으며 경건의 영이 그만큼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찬송가는 계시를 불러들임

찬송가는 “경건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⁷ 경건과 계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칠십인과 감리 감독단이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와 함께 하는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일찍 와서 전주곡을 경건하게 들으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불러들이고 준비된 마

음으로 모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서 전주곡을 선택하여 부드럽게 연주하는 회원은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가사를 마음속으로 음미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노래를 통해 복음을 배웁니다. 회복의 찬송가는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공과이기 때문입니다.⁸

찬송가는 개종을 일으킴

회복의 찬송가에는 개종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희생의 산물입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⁹,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¹⁰, “너 이스라엘 장로는”¹¹,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¹², “이스라엘의 구주”¹³ 및 그밖에 많은 찬송가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 구속의 계획, 계시, 후기의 경건, 이스라엘의 집합, 거룩한 신권 및 의식과 성약 등 회복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영적으로 양육하는 이 찬송가들은 개종으로 인도하는 영을 불러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예배를 위한 찬송가가 없다면 성찬식은 참

으로 불완전하고 공허할 것입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흘림, 그분의 무한한 대속을 묘사한 찬송가들은 모든 찬송가 중에서도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일찍이 성찬 찬송을 통해서 구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 생각납니다. 가사 중 이 구절은 저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¹⁵

제가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게 된 것은 찬송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¹⁶*

자녀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됨

찬송가를 부르고 합당한 음악을 듣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합당한 음악으로 가정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가가 우리 가정에서 경전 및 그 외 종교 서적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가족에게 아름다움과 평화의 영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가족간에 사랑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찬송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안식일과 가정의 밤 시간, 혹은 경전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놀면서, 여행하면서 함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가로 찬송가를 불러주며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십시오.”¹⁷

더욱 뜻있는 예배를 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제가 찬송가를 통해 배웠고 적용하려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임 시간에 일찍 도착하고, 조용히 앉아서

진주곡을 들으며, 경건과 계시를 느끼려고 노력한다.

2. 더욱 경건하게 모임 장소에서 나오면서 후주곡을 들으며 그 모임의 영을 계속 유지한다.
3. 찬송가를 부른다. 찬송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4. 모임과 메시지에 적합한 찬송가를 고른다.
5. 공과와 반에서 성구와 복음 진리를 소개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찬송가를 이용한다.
6. 가정에서 찬송가를 더욱 자주 들음으로써 영이 임재하도록 한다.

가정에서 합당치 못한 음악을 배제하고 제일회장단의 다음 권고에 따를 것을 간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 주님의 영을 회중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진리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찬송가, ix쪽.
2. 찬송가, 18쪽.
3.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399쪽.
4. 찬송가, ix쪽.
5.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호, 111쪽.
6. 찬송가, 187쪽.
7. 찬송가, ix쪽.
8.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는 경건을 통하여 옴”,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22쪽.
9. 찬송가, 18쪽.
10. 찬송가, 16쪽.
11. 찬송가, 200쪽.
12. 찬송가, 6쪽.
13. 찬송가, 27쪽.
14. 찬송가가 안식일과 가족 예배를 위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찬송가와 캐럴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125~137장 참조)
15.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쪽.
16.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쪽.
17. 찬송가, x쪽.
18. 찬송가, x쪽.

주님께 드리는 약속

존 비 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바로 지금이 지상 생활이라는 시험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주님께 약속드릴 때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디슨 자매와 제가 가정에서 하듯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전례 없이 총명한 세대이며, 머지않아 가정과 일터, 지역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행복의 계획을 알려 주셨으며, 그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본향인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범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인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주님과 하는 진실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 그가 이루시리라”(시편 37:5)고 배웁니다.

여러분은 태초로부터 예견되어 온 이 시대에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된 반면 엄청난 불안과 혼돈, 그리고 사악함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의 장은 좋은 환경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지상 생활이라는 시험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주님께 약속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 계신 선지자와 경전, 그리고 성신은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공부하고, 손가방 속에 갖고 다니며 반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그 안에 제시된 방식으로 생활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생과 영원한 생을 통해 참으로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찍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한 교회 지도자의 경험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는 항

상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술이나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 중요한 결심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큰 변화를 느꼈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상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에서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때가 있었지만 그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가 올바른 대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개인적인 갈등을 겪지 않았던 이유는 수년 전에 마음속으로 결심했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을 주님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할 때,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약물에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는 결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도 손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탄은 여러분을 쉽게 유혹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실수를 범했을 경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많은 적든, 이미 범한 잘못을 회개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현재의 위치에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의로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주님께서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현세에 도사리고 있는 큰 위험을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84:43)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므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 ...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 즉 우리가 속하는 사회, 우리가 보고 읽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대중 매체와 오락, 우리가 듣는 음악과 그 외의 것들에 대해 주의 하라고 일러줍니다.

무엇이든 일찍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임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중앙);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왼쪽)

지금 모든 수입에 대해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면 우리는 덜 이기적이 되며, 의로운 자녀들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명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니파이와 같이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는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니파

이전서 3:7)

이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다른 계명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상관없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바른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참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비속어나 저속한 농담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이러한 결심은 여러분이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

하게 주님께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여러분은 또한 단정한 복장과 데이트의 방식에 대해서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이트 상대, 친구 또는 동료들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미 결정해 놓았다면 주님의 표준을 지키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의로운 원리를 따르고 결심을 지킬 때 여러분의 표준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장차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며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하는 또 다른 표준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결함과 성적인 순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선교 사업과 성전 의식을 위한 준비, 그리고 언제나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겠다는 결의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표준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와 가르침을 따르므로써 여러분은 영원한, 또는 영속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신앙, 신뢰와 열의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셨으며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겠다는 진지한 결심을 할 때 영광스러운 성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천사의 방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처럼 신앙,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말의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 주었습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 모든 일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 으며, 여호수아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큰 빛이 멈추어 섰습니다. 엘리야가 명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멈추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 다. ... 이 모든 것은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 다. ... 그렇다면 신앙은 말에 의해 작용하며, [말]으로써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¹ “위에서 오는” 모든 은사처럼 말은 “성스러우며 [우리는]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²

저는 말이 갖는 힘과 그 신성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

지에 관해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저의 말보다 외경에 더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로 맞으면 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로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³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서 야고보서를 읽었고,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는 계속해서 굴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 하니나”

이제 야고보는 핵심을 지적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되 ... [그러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불이래] 온 몸을 더럽히고 ...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⁴

참으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혀는 한결같이 사악하다거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의 일부가 파괴적이며, 심지어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후기 성도에게 이것은 냉혹한 비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지한 간증을 나누고 열의에 찬 기도를 드리며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는 음성은 또한 질책하고 비판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품위를 손상시키며 고통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을 파괴하는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야고보는 탄식합니다. 그는 “내 형제 [자매]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좀 더 “온전한” 남자나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선물, 즉 사랑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준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머니를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애할 때 했던 친절한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주었던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과 여신인 여러분 자신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 차갑고, 신랄하고, 굴레를 벗어난 말들을 했던 다른 순간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혀로 빗어질 수 있는 해악에 관해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⁵ 아내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남편도 경솔하거나 불친절한 말의 잔혹함으로 아내의 뼈대신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부러뜨릴 수 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신체적 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히 비난받는 일입니다. 만약 그보다 더 비난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학대입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성적인 학대를 반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언어 및 정서적 학대에 반대를 표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자매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언어적 학대는 성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에서 굴레를 벗어난 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들어 있는 좋거나 나쁜 힘에 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성한 본질로 인해 너무도 천사같고, 영적이며, 본능적으로 부드럽고,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그 다양한 음성이 순순간에 너무도 날카롭고, 통렬하고, 매서우며, 거칠어질 수 있습니까? 여성의 말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비수보다도 더욱 날카로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장벽을 쌓아 상대방을 그 너머로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송고한 정신에는 소문이나 험담, 악의적인 말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매섭거나 적대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와드, 이웃에서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지체 중에서 타오르는] ...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 권고를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그 말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자녀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의 견해를 말할 때는 항상 건설적인 태도를 지니십시오. 절대로, 심지어는 농담으로도 자녀들에게 똥똥하다거나 어리석다거나 게으르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쁜 의도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잊으려고 또한 용서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련하게 해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긍정적인 의미로 “수잔은 예쁘고 샌드라는 똑똑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잔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만을, 그리고 샌드라는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것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각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고, 그 아이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들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우리 사회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부정적인 말이란 당연히 우리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하여 다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고 자신에 관해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햇살도 장미도 희망이나 행복에 찬 약속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새 우리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집니다.

저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낙관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봅니다. 그 반대 또는 비관적인 정신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어두운 면을 보게 하며, 투덜거리고, 불



좀 더 뚫으려고 하는 이 길고도 영원한 여정에서 앞으로 적어도 이 한 가지, 즉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므로써, 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새 방언, 즉 천사의 방언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온전한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처럼 오늘날의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큰 원리인 신앙,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영의 영향을 받은 말들로 인해 눈물이 그치고, 마음이 치유되며, 삶이 고양되고, 희망이 되살아나며, 자신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도전적인 주제에 관한 저의 말씀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의 음성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평하고, 더디 순종하게 합니다.”⁶ 우리는 구주의 “안심하라”는 선언을 존중해야 합니다.⁷ (사실 저는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길 때 다른 어떤 계명을 어길 때보다도 더 큰 가책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누군가가 말했듯이 “문명의 황금기에도 모든 것이 너무 황금색이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찌면 니파이가 줄로 묶여 막대기로 맞았던 것이 레이먼과 레뮤엘의 끊임없는 불평⁸을 듣는 것보다 더 참을 만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분명히 적어도 한 번쯤은 “차라리 더 때려. 아직도 불평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에는 나름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홀런드 장로가 주는 이 삶의 격언 하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독한 불운도 징징거리면 더 악화된다.’

바울은 솔직하게, 그러나 매우 희망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

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⁹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마지막 간증에서 니파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해라”고 권고하며 이렇게 약속합니다.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은 후에는, 새 방언으로, 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 ... 또 ...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요?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¹⁰ 사랑받는 자 요한¹¹에 따르면 참으로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자비와 동정심이 충만하신 “말씀”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주를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독생자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이야기 하실 것임이 분명한데) 그 말씀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는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즉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¹² 그것은 천사의 방언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어린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격려의 말을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기뻐하십시오.¹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ectures on Faith (1985년), 72~73쪽.
2. 교리와 성약 63:64.
3. 집회서 28:17.
4. 야고보서 3:2~10.
5. 마태복음 15:11.
6. Conference Report, 1917년 4월, 43쪽.
7. 마태복음 14:27; 마가복음 6:50; 요한복음 16:33.
8. 니파이전서 3:28~31; 18:11~15 참조.
9. 에베소서 4:29~32.
10. 니파이후서 31:13~14; 32:2~3.
11. 요한복음 1:1.
12. 열왕기상 19:11~12 참조.
13. 마태복음 25:40 참조.

너희는 거듭 나아 하리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으며, 그분의 복음에 참여 복음이 스며들게 할 수 있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며 인봉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의 저희 집 근처에는 살구, 체리, 복숭아, 배, 그리고 다른 맛있는 과일들을 재배하는 넓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이 오이 밭과 토마토 밭을 비롯하여 각종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늘 과일이며 채소를 통이나 병에 저장하는 계절을 고대했습니다. 저장용 병을 닦거나 더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며 먹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제가 먹는 과일의 양은 병에 담은 과일의 양보다 훨씬 많

았을 겁니다.

집에서 만든 체리나 복숭아 병조림을 보면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던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 열매를 따서 저장하는 동안 현세적 자립과 검소한 생활에 대해 배운 교훈은 평생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종종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성인이 된 저는 저장용 식품을 준비하는 계절에 부엌에서 관찰한 것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동안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이와 피클

피클은 독특한 조리법과 일련의 절차에 따라 변화된 오이입니다. 오이를 피클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 뒤에 있는 현관에서 우리가 따온 오이의 줄기를 자르고 흙을 닦아내는 데 여러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오이를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어

머니는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 높은 표준을 갖고 계셨으며 항상 제가 한 일을 검사하시고 이 중요한 임무를 잘 마쳤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다음 단계는 오이를 일정한 시간 동안 소금물에 담가 소금물이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준비하기 위해 제 어머니는 항상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방법, 즉 특별한 재료와 정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오이는 정해진 시간 동안 소금물에 완전히 담글 경우에만 피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이는 과정은 서서히 오이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피클의 반투명한 모습과 독특한 맛을 만들어 냅니다. 소금물을 이따금 뿌리거나 잠깐 담갔다 꺼내는 것으로는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라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소금물에 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살균처리된 깨끗한 병에 절인 피클을 넣고 밀봉하는 것입니다. 피클을 저장용 병에 담고, 끓는 소금물을 부은 다음 뜨거운 중탕 용기에 넣어서 가공 처리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피클과 병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게 완성된 식품은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면 피클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이를 준비하고 깨끗이 하여 소금물에 잠기게 하고 충분히 절인 후 살균처리된 용기에 밀봉하면 오이는 피클이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서둘러 끝낼 수 없고, 어떤 필수적인 절차도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큰 변화

주님의 위임 받은 종들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고 변형되는 것임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엘마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



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모사이아서 27:25~26)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모로나이서 10:32)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고린도후서 5:17 참조),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아서 3:19)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이아서 5:2) 하는 변화를 경험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구절에 설명되어 있는 개종은 사소한 것이 아니

라 큰 변화라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즉 영적인 거듭남과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것,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에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 즉 영적으로 거듭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깨끗하게 함

오이를 피클로 바꾸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디모데전서 4:6)으로 준비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아론 신권의 권세로 집행되는 의식과 성약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 신권은 계속 유지되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이요”(교리와 성약 84:26~27)

그리고 주님은 깨끗함에 대해 높은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모세서 6:57)

적절한 준비와 깨끗함은 거듭남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담금과 스며들

오이는 소금물에 담가 충분히 절여야 피클로 변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그리고 그 안에 흡수될 때 거듭

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맺는 “성약을 준행하고”(교리와 성약 42:13) 존중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니파이후서 32:3) 때,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모로나이서 7:48)할 때, 그리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교리와 성약 4:2)길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아서 5:7)

이 구절이 설명하는 영적인 거듭남은 빠르게 혹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동기,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이 단계는 시간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이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소금물에 담가야만 피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조리법의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소금은 경전에서 자주 성약과 성약의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소금이 오이를 피클로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듯이 성약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권의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남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



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우리가 침례의 물에서 나온 후에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구주의 복음의 진리와 빛 가운데 잠겨 그 진리와 빛이 우리에게 충분히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거나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도록 해주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약에 충실하고, 한결같이 행하며, 우리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께서 사십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옵나이서 1:26)

구주의 복음에 완전히 잠겨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정결케 함과 인봉

절인 오이는 살균처리된 병에 담고 열로 가공처리함으로써 불순물을 없애고 외부의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기를 봉합니다. 끓는 물 속의 중탕 과정은 피클을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린양의 피로 씻

겨지고 거듭날 때,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의해 집행되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존중할 때, 점점 정결하고 성결케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힐라맨서 3:35)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서 “봉하다”, 즉 “인봉”이라는 말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영원한 결혼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특별한 단어를 교리와 성약 76편에 설명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자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임이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좇아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

“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에 성임되고 인봉된 자의 안수로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한 자요, 아버

지계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교리와 성약 76:50~53)

약속의 성령은 성신의 확증하는 권능입니다.(교리와 성약 132:7 참조)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될 때 의식, 맹세 혹은 성약은 땅과 하늘에서 매입니다. 성신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은 “때가 지남에”(모세서 7:21) 따라 복음의 성약을 존중하는 일에서 충실함, 성실, 그리고 꾸준함을 보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봉은 불의와 방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한 정결케 함과 인봉은 거듭남의 과정에서 정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내 영혼의 힘을 다해”

저는 피클에 관한 이 비유가 영적인 거듭남의 영원한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알마가 그러했듯 저는 “제 영혼의 힘을 다하여 말씀”드렸습니다.(알마서 5:43)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반치는 이것이니, 곧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각 사람에게 전파하되, 참으로 늙은 자나 젊은 자, 맏인 자나 자유로운 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년과 또한 중년과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며, 참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이것이니라.”(알마서 5:49)

저는 살아 계신 구주의 실제성과 신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와 변화되라고 권유하십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의 교회와 신권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그분의 복음에 참여 그 복음이 스며들게 할 수 있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인봉되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 구주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최 근에 저는 가족 사진첩 몇 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소풍과 생일, 가족 모임, 기념일 등에 모였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차례로 넘기는 동안 수많은 소중한 추억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후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몇몇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할지니”¹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품을 떠난 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리웁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죽음은 필멸의 경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세를 떠나 이 지상에 옴으로써 이곳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불멸

의 송가”라는 영감에 찬 그의 시를 통해 이 여행의 의미를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그저 잠들어 기억나지 않는 것
우리와 함께 뜬 영혼들은 마치 인생의 별처럼
다른 어딘가에서 이미 지고 있네
완전히 잊지도 않은 채
완전히 별거벗지도 않은 채
저 멀리서부터 왔건만
영광의 구름을 끌고 우리는
우리 어렸을 적 지내던 그 천국 같던 곳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인생은 계속됩니다. 유년 시절 이후에 청소년기가 오고,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성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목적과 문제들을 찾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결국 인생의 길이에 관한 질문과 각 개인의 영원한 삶에 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야 할 때 가장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오래 전 읊이 물었던 보편적인 질문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³라고 수세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회의론자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으며, 각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해야 합니



다. 유명한 변호사이자 회의론자인 클라렌스 대로우는 “어떤 인생도 그다지 큰 가치는 없으며, 모든 죽음은 그저 사소한 상실일 뿐이다.”⁴ 라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비판론자인 쇼펜하우어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⁵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마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새로운 세대의 말들이 여기에 더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변경하고, 그분의 신성함에 회의적이며, 그분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로버트 블래치포드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과 내 이웃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기도와 불멸과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증명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명백하고 충분히 증명했기에 제아무리 위대하거나 능력이 있는 기독교도 내 질문에 답하거나 내 주장을 뒤흔들 수 있지 못할 것이다.”⁶ 그는 회의론의 벽으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런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벽이 갑자기 무너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출되었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조롱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태도에 이런 심오한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의 아내가 죽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는 아내의 필멸의 몸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도 사랑했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맞긴 한데 그녀가 아니야. 모든 것이 변했어. 전에는 있던 무엇인가가 떠나버렸어. 아내는 전과 같지 않아. 영혼 말고 그 무엇이 그렇게 가버릴 수 있었을까?”

훗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은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음이란 그저 방을 옮겨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른 방에서 우리는 ... 우리가 사랑했으나 잃어버렸던 그리운 여성과 남성과 귀여운 아이들을 찾게 될 것이다.”⁷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세상의 회

의와 의심에 맞서 우리는 중요한 참고 자료, 의심할 바 없는 근거, 심지어 눈으로 본 목격자의 증언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잔인한 죽음을 맞은 순교자 스테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⁸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 누가 설득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 보이셨나니.” 또 바울이 말하길, “뎌 나중에 ... 내게도 보이셨느니라”⁹

이와 똑같은 간증이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간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¹⁰



회원들과 구도자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선교사들

이것은 확증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위로 하는 진리입니다. 슬픔으로 고개숙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확신입니다.

1997년 성탄절 전날 저는 한 훌륭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은 하나같이 진리에 대해, 그리고 부활의 실재에 대해 흔들림 없는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자녀가 있었고, 아들 셋과 딸 하나였는데, 각 자녀는 근육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신체장애자였습니다. 당시 열여섯이었던 마크는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두 소년, 열세 살의 크리스토퍼와 열 살의 제이슨도 비슷한 수술을 받기 위해 며칠 뒤에 캘리포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외동딸인 세나는 당시 다섯 살로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총명하고 신앙이 돈독했으며, 부모인 빌과 세리가 각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잠시 방문한 동안 그 가족의 특별한 영이 제 사무실과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아버지와 제가 수술을 앞둔 두 소년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런 뒤 부모는 어린 세나가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나의 폐활량이 적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세나가 해보고

싫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카세트에 녹음된 반주에 따라 아름답고 깨끗한 음성으로 세나는 한 음도 놓치지 않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내가 보고 싶은 세상에
태양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나를 위해 하늘에서 빛나오
이 아름다운 겨울 아침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찌면
꿈꾸는 아름다운 날이
지금 이곳에 나타날 거예요.¹¹

노래가 끝나자 우리의 얼굴에 고조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방문에 의한 영이 그 해 성탄절에 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장남인 마크가 19살이 되었을 때, 교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후에 다른 두 형제들 또한 그와 비슷한 선교 사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일 년 전쯤, 당시 스물두 살이었던 크리스토퍼가 자신과 형제들을 괴롭혀온 그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후 지난 9월

에 저는 막내 세나가 열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세나를 추억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두 오빠들인 마크와 제이슨이 차례로 저와 연단에 몸을 의지하고 감동적인 가족 경향을 들려 주었습니다. 세나의 어머니는 다른 한 명과 아름다운 이중창을 들려 주셨습니다. 세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가슴 뭉클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아팠으나 그들의 간증은 강하고 깊이 있었으며, 부활의 실재성, 그리고 세나가 오빠 크리스토퍼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살아 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영광스럽게 재회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거의 9년 전쯤 그 가족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일을 떠올리며 당시 세나가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에 관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 끝맺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세나는 온전히 살아 있으며, 세나에게 있어 1997년의 특별한 성탄절 전날에 그녀가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날, 즉 세나가 꿈꾸었던 그 날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유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을 지나야 합니다. 죽음은 나이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찾습니다. 희망을 꽃피우고 영광스런 기대를 받는 청소년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도 그 손아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¹²

한 사람, 즉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진 그분의 탄생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영감에 찬 선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생명과 빛과 길을 주셨습니다.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분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

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셨지만 일부 사람들은 적이나 배신자를 맞이하듯이 그분을 맞았습니다. 소위 재판이라 하는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¹³라는 외침이 사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 다음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분은 조롱을 당하고, 비난 받았으며, 놀림과 야유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이다”¹⁴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¹⁵라는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¹⁶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 숨지셨습니다¹⁷. 그분의 육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돌로 만든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째 아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무덤으로 왔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육신은 없었습니다. 누가는 찬란한 웃을 입을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¹⁸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기독교 세계는 역사에 기록된 가장 뜻깊은 사건을 기념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단순한 선언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 그대로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은 “장정이 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¹⁹라는 욕의 질문에 대해 위안의 확신과 긍정의 대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욕의 질문을 그 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장정이 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



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²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오는 눈물과 시련을 통해, 두려움과 슬픔을 통해,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서 삶은 영원하다는 확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살아 계신 증인이십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간절함으로, 저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은 얼마나 따뜻한 기쁨을 전해줍니까. “내 구주 살아 계시다.”²¹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2:45.
2. William Wordsworth,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1250~1900*, Arthur Quiller-Couch 판 (1939), 628쪽.
3. 욕기 14:14.
4. *The Story of My Life* (1932), 47장, 34번째 단락.
5. Arthur Schopenhauer, *The Home Book of Quotations*, Burton Stevenson (1934), 969쪽.
6. *God and My Neighbor* (1914).
7.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Adventures in Quest of a Soul* (1925) 참조.
8. 사도행전 7:56.
9. 고린도전서 15:3~5, 8.
10. 교리와 성약 76:22.
11. “The Beautiful Day,” the movie *Scrooge* (1970), 음악 및 가사: Leslie Bricusse.
12. 히브리서 9:27.
13. 누가복음 23:21.
14. 마가복음 15:32.
15. 마가복음 15:31.
16. 누가복음 23:34.
17. 누가복음 23:46.
18. 누가복음 24:5~6.
19. 욕기 14:14.
20. 요한복음 11:25~26.
21.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욕기 19:25 참조.

태버내클의 영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태버내클은 ...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46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연단에 섰을 당시에 제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저도 “모두 존경하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선지자 및 사도들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보이신 진리의 말씀”, 찬송가, 152장) 저는 심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 태버내클에서 제게 확신과 용기를 가져다준 한 가지 매우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초등회 대회는 4월 연차 대회를 앞두고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남쪽 입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을 때 초등회 어린이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창단이 개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본부 초등회 임원회의 일원인 루 에스 그로스백 자매가 이끄는 합창단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경건히 조용히 주님 생각하지요
경건히 조용히 노래를 부르지요
경건히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 맘에 거하옵소서
(“경건히 조용히”, 어린이 노래책, 11쪽)

어린이들은 조용히 노래했고, 진정으로 뛰어난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오르간 반주자는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동안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는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주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련한 솜씨로 어린이들의 음성을 영감과 계시의 선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깊은 경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까지도 제 자신을 지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제 영혼 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받았던 느낌도 어쩌면 제가 느낀 바와 비슷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악한 아합 왕에 맞서 하늘을 봉인한 후 굴로 도피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주님께 여쭙고자 “엘리야가 듣고 걸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열왕기상

19:11~13)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받았던 느낌과 제 느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제3니파이 11:3)

엘리야와 니파이인들이 들었던 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깨달았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드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이르시나니.”(교리와 성약 85:6)

그와 같은 뜻깊은 체험을 하던 찰나에 저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란 듣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느끼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저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자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는 권고에 응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신 곧 보혜사께서 임재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마태복음 7:7~8, 누가복음 11:9~10, 제3니파이 14:7~8,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저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실제로 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음악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경건한 음악은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 곧 영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과 음악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합당한 음악은 모두 제각기 어울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은 몇 대에 걸쳐서 어김없이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작사한 이 노래로 주례 방송을 시작해 왔습니다.

불러라 고요히 성가

안식일 다시 와서

편히 쉬리니 ...

돌려라 감사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니

(“불러라 고요히 성가”, 찬송가, 94장)

100여 년 전에 당시 91세였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 연단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청중에는 열두 살난 리그랜드 리차즈도 앉아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로 부름 받으신 그의 아버지 조지 에프 리차즈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려 주기 위하여 태버나클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것은 어린 리그랜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저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과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리차즈 장로님은 96세가 되어서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메시지를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우드럽 회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받았던 느낌만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태버나클을 짓고 보존해 온 사람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음악과 진리의 말씀으로써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준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운명을 결정한 주요 사건들이 템플 스퀘어의 이 태버나클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회장들이 이 태버나클에서 열린 장엄한 집회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지의 절차

는 계시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매년 연차 대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며 모든 스티이크와 와드 및 지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42:11)

이러한 절차를 밟으로써 그 어떤 이방인도 우리에게 와서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교회를 잘못 인도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됩니다.

1880년에는 바로 이곳에서 값진 진주가 교회의 표준 경전 중 한 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두 개의 계시가 현재 교리와 성약으로 알려진 표준 경전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바로 오늘날의 137편과 138편이었습니다. 137편은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

드 성전에서 받은 시현의 기록이고, 138편은 구주께서 죽은 자들의 영들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받은 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1979년에는 수년 간의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후기 성도관 흥정역 성경이 교회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의 새로운 판 역시 이곳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1908년 연차 대회에서 교리와 성약 89편에 담긴 지혜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당시에 그와 두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모두 같은 주제인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표결에 회부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계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리와 성약 89:4)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방패요, 보호막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일부가 되어 “악한 자들의 불화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 줍니다.(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교회와 회원 각자는 과거에도 악마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악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랫말, 아니 불량한 노랫말로 가득 찬 요란하고 귀에 거슬리는 음악으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방해하고 지워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갖은 유혹으로 조심스럽게 우리를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곳 태버나클에서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신권의 반차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교리와 성약 133:37)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구주의 계명을 이



행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태버나클에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책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부제를 통해 책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에서 주어지는 가르침, 설교, 음악, 느낌과 영은 100퍼센트 그대로 근방에 위치한 컨퍼런스 센터에 전달되어 그곳에 운집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청하게 되며, 다시 수십 개국의 언어로 통역되어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백만의 후기 성도 가정에 성령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몰몬경이 약속했듯이(모사이아서 24:22, 앨마서 32:23, 제3니파이 17:25)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템플스퀘어의 이 태버나클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집”(교리와 성약 109:16)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하거나 음악 또는 문화 공연을 하거나 전하도록 요청 받은 사람은 합당한 것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생에서 걸어야 할 유일한 안전한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경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2:43, 니파이전서 13:9, 니파이후서 26:29, 힐라맨서 7:21, 몰몬서 8:38, 교리와 성약 58:39 참조) 참으로 경전은 우리가 “사람의 명예”를 갈망할 때에 초래되는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1:35)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입니다. 성신은 성신의 영향력을 동반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참되며 이 교회가 참으로 후기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태버나클은 성전 바로 옆에 위치하여 회복의 변함없는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가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했던 태버나클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딴 태버나클 합창단은 수년 동안 교회를 대표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이 수세대 동안 담당해 온 핵심 사명에서 벗어나 표류하거나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 태버나클 합창단은 매 방송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복음의 원리가 충만하고 회복의 교리에 뿌리를 둔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하여 왔으며 개회 찬송으로는 언제나 “불러라 고요히 성가”(찬송가, 94장)를, 폐회 찬송으로는 “푸른 풀에 소리없이”(찬송가, 91장)를 들려주었습니다.

태버나클은 합당한 음악과 문화를 전하는 위대한 전당으로 세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46년 전에 경건하게 계시의 음성으로 합창했던 바로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작은 간증을 제 마음속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태버나클이 그 성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채 개축되어 복구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교

리와 성약 121편의 다음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취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히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
(교리와 성약 121:45~46)

마음속 깊이 감화를 받은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사실상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찬송가를 떠올렸습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태버나클 합창단의 주례 방송을 마치며 폐회 찬송으로 불러 왔습니다.

푸른 풀에 소리 없이
하늘에서 이슬 내릴 때
시들은 풀 소생하니
귀하여라 그 섭리

은혜로운 교훈 주사
하늘에서 축복합소서
당신 사랑 행하기에
함당하게 합소서

주여 모임 살피셔서
귀한 언약 이룩합소서
거룩한 주 처소에서
생명 이슬 줍소서

우리 외침 들으셔서
주의 영을 보내 줍소서
온 백성은 경배하고
기쁜 소리 외치리
(“푸른 풀에 소리없이”, 찬송가, 91장)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성스러운 헌납식이 열린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개척자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브리검 영 회장님과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모두 영감과 계시로
교회를 인도해 온 선지자들이십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제가 새로 개척한 옛 태버나클의 연단에서 있는 바로 이 순간 지난 역사를 떠올리며 제 가슴은 벅차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처럼 대단한 건물을 짓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지녔고 또 현재 지니고 있는 과거 개척 시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비전을 지닌 선지자 두 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브리검 영과 그의 현대의 계승자에 대해서입니다.

브리검 영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2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3년간 교회를 이끌면서 이 태버나클을 건축하였고 131여 년 전인 187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태버나클의 헌납식을 감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업적이 많지만, 몇 가지만 들고자 합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개척자란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길을 열거나 예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작가는 브리검 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루하고 가난하며 생필품조차 없는 무리를 이끌고 미지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에 대한 비평가들과 전기 작가들은 그가 현대 역사의 지도자들 중 유례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정치적, 재정적 후원이 전무했고 신권과 그의 가르침의 기초가 된 영적인 힘 말고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그가 혼자서 맨손으로 사막에 질서정연하고 근면한 사회를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할 때 꾸준한 권고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고무시켰습니다.”¹

브리검 영은 제일 먼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서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² 외쳤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그분의 백성을 살게 할 터전이며, 여기가 백성들이 번성할 곳을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기후를 순화시키시고 토양의 서리와 척박함을 꾸짖으시어 기름진 땅으로 만드실 것이며 … 우리가 이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도시와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³

오늘 우리 모두 이 예언이 참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막의 땅과 로키 산맥의 계곡은 기름지고 비옥한 약속의 땅, 예언의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을 착공하여 40년이나 걸려 완성했습니

다. 또한 맨타이 성전과 로간 성전을 착공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4개월 반 앞두고 세인트 조지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착촌 건설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대략 400개의 정착촌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영구 이민 기금을 설치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오려 하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데저렛 대학은 현재의 유타 대학교이며, 후기 성도 대학은 현재의 후기 성도 실업 대학입니다. 물론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회원들을 사랑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를 칭했습니다.

“교회는 시온의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으로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배를 떠나지 말고 지키십시오. 시온의 배 안에서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분이 배를 인도하시어 우리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의로운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대담하고 영예롭게 이행하고 자신의 부름에 흔들림 없이 충실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배는 모든 폭풍을 헤치고 해의 왕국의 행복이 기다리는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⁴

그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사랑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증언했습니다. 히버가 태어난 지 아흐레가 되는 날 브리검 영 회장의 제2보좌였던 그의 아버지 제디다이어 엠 그랜트가 사망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그 후 21년 동안 당시 소년이었다던 히버 제이 그랜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친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처럼 브리검 영 회장님의 가정에서 환대를 받으며 편하게 지냈다. … 배가 고프 때는 내 집처럼 마음대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도 종종 그의 집인 라이온 하우스에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에 참여했다.”⁵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⁶

저는 그의 교리를 사랑합니다. … 제가 조셉 스미스를 알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⁷

저는 참으로 브리검 영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그의 후계자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미래를 내다보는 힝클리 회장님과 그의 앞에 놓인 건축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힝클리 회장님의 어깨를 넘어다 보는 듯한 브리검 영 회장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브리검 영 회장님의 초상화는 힝클리 회장님의 사무실에 걸려 있고 그는 초상화에 대해 자주 얘기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힘든 하루를 마치던 날에 저는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브리검 영 회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브리검 형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이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당시의 내 문제만으로도 버거웠소. 내게 어찌 해야 할 바를 묻지 마시오. 이제 당신이 해야 하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니 그분께 여쭙어 보시오.’”⁸

브리검 영 회장님과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이 두 분의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의 비전을 공유하며 그것을 현실화하겠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처럼 힝클리 회장님은 개혁자이자 건설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왕들과 여왕들 그리고 대통령들을 만났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이끌어”⁹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75개가 넘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를 지으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브리검 영처럼 힝클리 회장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 수는 1,300만 명에 달하며 그 범위는 176개의 국가와 영토, 나라를 망라합니다. 전 세계에서 5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90개의 언어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 대학교들과 교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영구 교육 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처럼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청소년과 모든 회원을 사랑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특히 힝클리 회장에게 의지하여 예언의 권고를 듣고자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두 명의 회원

힝클리 회장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합니다. 그는 몇 해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합니다. 저는 나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이 복음의 기적을 회복한 위대한 선견자에게 경의와 사랑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가서 창조주와 주님 앞에 서서 제 일생에 대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포용하고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표하며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¹⁰

브리검 영 회장님과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모두 영감과 계시로 교회를 인도해 온 선지자들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ugh W. Nibley, in Daniel H. Ludlow, 편집, *Encyclopedia of Mormonism*, 5권 (1992년), 4:1611.
2. 윌포드 우드럽이 *The Utah Pioneers* (1820년), 23쪽에서 인용.
3. James R. Clark가 엮은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5), 6:265에서 인용.
4. Preston Nibley, *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 (1936), 293, 352에서 인용.
5. *Gospel Standards*, G. Homer Durham 엮음 (1941), 223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345쪽.
7. *Discourses of Brigham Young*, John A. Widtsoe 선집, (1954), 458쪽.
8.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2쪽.
9. 교리와 성약 1:30.
10.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509쪽.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한 세기 이상 동안 후기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이 이 연단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 04년 10월 기자 회견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 건물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건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곳을 보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 태버내클의 약해진 아음매를 단단히 묶고 강화하여 본래의 훌륭한 아름다움이 보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잘, 정확히 하십시오.”¹

그와 같은 흥분되지만 준엄한 말씀과 함께, 옛 본연의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을 보전하고 강화하여 새롭게 되돌려 다시금 또 하나의 시대에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책임이 전달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회장님,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단장되고 서로 잘 연결되어 고색창연한 우아함으로 정돈되면서도 조금 더 편안해진 이 유서 깊은 건물을 공개합니다. 감리 감독단은 2,000명 이상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옛 본연의 태버내클”이 100년 이상 더 지속되리라는 것을 보장드리며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옛 본연의 태버내클”로 되돌리라는 힝클리 회장님의 요청은 설계 및 시공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이 사업의 본질과 목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은 사실 과거 모로나이 장군의 자유의 기치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사실상 “각 망대 위에 계양”되어 필요한 “어느 곳”²에든 세워졌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FFKR 건축사와 제이콥슨 건설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난해했던 일을 가능하게 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 프로젝트 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팀의 한 선임

자는 “우리가 서로 함께 의논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태버내클의 아름다움에 대해, 또 원래 건축자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작업 품질에 대해 커다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 세기 이상 동안 후기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이 이 연단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에 놀라워 했습니다.

저는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새로이 다져진 굳건한 기초에 감사를 표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자신을 끈고 우뚝하게 받쳐 주는 새로운 강철 벨트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천장부터 열네 겹의 페인트를 벗겨내어 손질한 후 아름답게 새 칠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말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빛나는 새 알루미늄 지붕이 주는 아름다움과 보호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과 의자들은 방문자들이 좌석이 조금 바뀌고 무릎 쪽 여유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짓는 것을 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영감을 주는 음악의 선율을 더 멋지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반기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오래된 건물이 주의 깊게 들었던 많은 설교에 대해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는 오직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오랜 병환에서 회복되어 1918년 10월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셨을 때 “우리는 이곳에 있었습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개회 모임에서 그분은 감회에 찬 음성으로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많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마음과 가슴속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래의 언젠가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홀로 살지는 않았 습니다. 저는 기도와 간구와 신앙과 결심의 영안에 거해 왔으며, 주님의 영광 끊임없이 교통해 왔습니다.”³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미스 회장님께서 대회가 시작되기 전 날에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으로 기록된 시현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후에 그 내용은 교리와 성약 138편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대공황의 우울하고 암울했던 날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훗날 교회 복지 계획으로 알려진 교회 안전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께서 발표하시던 1936년 4월 연차 대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계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검 절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⁴

1964년 10월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임무지명에 따라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은 부모의 신성한 의무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리 장로님이 1915년 제일회장

단이 서명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읽겠다고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읽기 전 그분은 “이것은 ‘우리가 날씨에 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것에 관해 뭘 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날씨에 관한 이야기와 흡사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후 그 50년 된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이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집에 모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⁵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르면, 분명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나쁜 영향이나 유혹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이 대회 말씀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테버내쿨을 덮었던 고요한 적막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맥콩키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을 마칠 때 경건의 영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행해진 이 완전한 속죄가 깃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일어났음을 간증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 장차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구원은 그분의 속죄의 피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⁶

1995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

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하고 또 미리 경고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읽어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 (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⁷

저는 이 놀라운 건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은 우리 과거에 대한 신성한 기념비와 미래를 위한 위대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우리 구주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

1. “Tabernacle Renovation Press Briefing—President Gordon B. Hinckely”, 2004년 10월 1일, www.newsroom.lds.org 참조.
2. 앨마서 46:36, 62:4.
3. Conference Report 1918년 10월, 2쪽.
4.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5. Conference Report, 1964년 10월, 83~84쪽
6. “갯세마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힘”, 성도의 빛, 1985년 5월호, 11쪽.
7.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8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감사: 행복으로의 길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최근 그 직에서 해임됨

감사는 충만한 영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세계를 의식하게 해줍니다.



오늘 오후 저는 바로 이 태버나클에 계신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대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왕국의 교리를 나누고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에게 자선 봉사를 하도록 격려하고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기쁨을 많은 자매님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1870년 이 연단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이 수천 명의 여성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곳 후기 성도 여성보다 더 큰 자유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성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¹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들은 숭고하고 영화로운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축복의 바구니

한 따뜻한 일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잊고 생활하기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우리는 선한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매일 주님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한 친구는 저에게 우리 가족의 ‘축복의 바구니’가 넘쳐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와 아이들은 놀이 비슷한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는 가족 기도 전에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의 ‘축복의 바구니’에 더해진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²

축복의 바구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충만한 영의 원리

단지 감사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거의 감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³ 알지 못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불평할 때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충만한 영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세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가장 작은 것들이 지닌 경이로움을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작은 것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채웁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진로에 대한 감각이 더 발달됩니다. 감사를 전할 때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어넣고 신성한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앰울레크는 “그가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립니다. 생활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⁴

자비와 축복은 다른 모습, 즉 때때로 힘든 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주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⁵ 범사란 단지 몇 가지가 아닌 좋은 일, 그리고 힘든 일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감사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감사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느 일요일 상호부조회 시간에 저는 한 자매님 옆에 앉았고 그 자매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 시간에 제 딸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팔로 감싸주시더군요. 저와 제 딸에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⁶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저희 손자 손녀들에게 신경써 주시는 어떤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 텍사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여섯 살의 토마스에게 그의 감독님에 대해 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도 금방 알아보실 걸요. 감독님은 짙은 양복에 아빠 같은 하얀 셔츠를 입고 반짝거리는 구두에다 빨간 넥타이를 매요. 안경을 쓰고 항상 웃어요.”라고 했고, 저는 토마스의 감독님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맨 감독님, 감사합니다. 모든 훌륭한 감독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표현

누가복음 17장에는 구주께서 나병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 중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께서 “네 감사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지 않으신 점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대신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⁷

구주께서는 나병 환자의 감사의 표현을 그의 신앙의 표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애로우신, 그러나 볼 수는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이며,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함: 숨겨진 축복들

1832년 주님은 닥쳐올 시련에 대비해 교회를 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시련들은 혹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모 너희 것이니라.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⁸

시련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감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필요로 하며, 바꿀 수 없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기꺼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돌리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여질 숨은 기회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후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시련과 고난에 대해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적이 언제입니까? 역경은 우리에게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역경

에 대한 감사 또한 그러합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우리는 고된 역경 속에서 감사함에 대한 진정한 시험을 맞습니다. … 그것은 … 우리의 현재 생활에 놓인 기쁨이나 슬픔에 좌우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⁹

결론

충실하고 훌륭한 교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 방법으로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방문 교사로서 보살펴 주시며, 기꺼이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며 어린이들의 간증을 키워주셨고 청년들을 성숙한 여성으로 준비시키는 데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실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차고 넘칩니다. 저는 또한 함께 봉사했던 신권 형제님들께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 속죄하신 저의 구주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저는 그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¹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Jill C. Mulvay, “Eliza R. Snow and the Woman Ques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winter 1976년, 2쪽.
2. 개인 서신.
3. 니파이전서 2:12.
4. 엘마서 34:38.
5. 교리와 성약 59:7.
6. 개인 서신.
7. 누가복음 17:19.
8. 교리와 성약 78:18~19.
9. *Pathways to Happiness*, comp. Llewelyn R. McKay(1957년), 318쪽.
10. 고린도후서 9:15.

기억하여 멸망치 말지어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찰십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 원리이자 구원의 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킨 자매님 다음으로 말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매님과 그분의 보좌들의 봉사와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18년 반 전 이맘때쯤, 저는 이 연단 가까이에서 회중 찬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앞으로 걸어나가 저의 첫 연차 대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불안해 하던 저의 모습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제 뒤에 서 계시던 엘 톰 페리 장로님이 제게 몸을 기울이시며 확신을 찬 어조로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긴장을 풀어요. 수년 동안 저 연단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한 격려의 말씀과 처음으로 전 세계 후 기 성도 회중들에게 저의 말씀을 전했던 몇 분

이라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저는 추억의 저장고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좋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청년이었을 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추억에 잠기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따분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가능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저의 추억들을 나눔으로써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저 재미로 무심코 떠오르는 추억을 회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기억과 기억하는 것이 갖는 좀 더 심오한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본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 원리이자 구원의 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선지자의 권고가 종종 행동하라, 즉 들으라, 보라, 순종하라, 행하라, 회개하라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¹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전쟁터를 대비해 그저 허리띠만 두르려는 인간적인 성향을 극복합니다. 또 유혹에 저항하고 죄 짓는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전쟁 그 자체에 실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이,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²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는 것이 갖는 중대한 역할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을 기념하고 재현납하기 위해 모였으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회 역사는 경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사실, 경전의 많은 부분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³라고 명하셨습니다. 조셉은 교회의 둘째 장로이자 자신의 주 보조자였던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첫 역사가로 지명함으로써 이 계명을 이행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작성하며,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관



모임과 모임 사이에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회원들

한 기록은 올리버 카우드리의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세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진리를 드러내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년간에 걸쳐 역사가들이 수집, 보존, 기록한 것 중 오늘날 역사서에 기록되어 첫번째 시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조셉의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글만큼 교회 역사의 힘과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선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으며 세계 도처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기도를 통해 간구했던, 어느 교회가 옳은지에 대한 질문의 기적적인 응답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⁴

조셉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믿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믿으며,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첫번째 시현에 대한 그의 경험을 기억할 때 저는 더 큰 결심과 행동으로 고무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만큼 교회 역사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쾌한 유머 감각을 매우 좋아하며, 그분은 아주 훌륭한 역사 감각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나온 영감어린 이야기와 일화들은 그분의 저술과 설교를 강조합니다.



살아 계신 우리의 선지자로서, 그분은 의식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강조하여 우리가 현재를 좀 더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작용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언과 신앙이 우리의 미래에 작용할 하나님의 손을 확신시키듯이 말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초기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상기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어려움에 더욱 충실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구성하는 사람들, 장소, 사건들을 이어주십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큰 신앙과 친절을 지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또한 힝클리 회장님은 모범을 통하여 개인적인 역사 및 가족 역사를 솔직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힝클리 회장님도 선교사로 봉사하던 초기에 낙심했으며 그 사실을 아버지께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낙심한 수많은 신임 선교사들이 위안을 받아왔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짧은 답신을 용기 있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얼마 전에 네가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다. 단 한 가지만 충고하마. 네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가라.” 그 후 70년 동안 우리 모두는 힝클리 회장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충고를 가슴속에 새기셨는지 보게 됩니다.⁵ 그분의 빼어난 성품과 선지자적인 지혜는 우리 자신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주는 혜택을 설득력 있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기억과 기억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스러운 성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저 형편이 허락할 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요구하시듯이⁶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항상 그분을 기억함을 증거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분의 영이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⁷ 하시려고 보내신 바로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유익을 안겨주는 기억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영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헌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⁸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특별히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을 기억하여 멸망치 않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의 권능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1:12; 모사이아서 6:3; 힐라맨서 5:14 참조.
2. 모사이아서 4:29~30.
3. 교리와 성약 21:1.
4.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5. 고든 비 힝클리, *Faith: The Essence of True Religion*, 115쪽.
6. 제3니파이 18:7, 11.
7. 요한복음 14:26.
8. 모로나아서 10:32~33 참조.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재헌납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처럼 훌륭한 건물이 보강되고 새롭게 단장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서편에 자리잡은 이 훌륭한 건물,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의 재헌납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이 건물의 대역사에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의 개축 및 복구사업의 지휘 감독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감리 감독단의 에이지 데이비드 버튼 감독,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및 키스 비 맥멀린 감독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제게는 소년 시절 이 태버내클에 오곤 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15분 일찍 와서 우리는 쉽게 발코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시절, 특별히 예배 목적을 위해 지어진 건물은 커틀랜드와 나부에 있는 두 성전뿐이었습니다. 두 성전 모두 계시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건축한 것으로 기록된 최초의 건물은 원래 집회소로 지정되었지만 학교 건물로 사용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1831년 미주리 주에 통나무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¹

1836년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을 무렵 그 건물은 이미 너무 협소하여 헌납식에 참석하고 싶어했던 모든 성도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건물이 더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아쉬워하며 기록했습니다.² 그러나 커틀랜드에서 성도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자, 교회의 주요 그룹은 1838년에 이 귀중한 건물을 포기하고 미주리 주로 이동했습니다.

나부 성전은 근본적으로 일층과 이층에 집

회실을 둔 커틀랜드 성전과 같은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1846년 나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성도들은 조셉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야외에서 만났으며 종종 성전 부근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이 그러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시절 ... ‘물몬이즘’은 야외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다.” 이는 “선지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성도들을 수용할 만한 큰 건물을 세우지 못했다” 때문이었습니다.³

때로는 악천후로 인해 야외 집회는 중단되었고 연사와 회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부 성전 부근에서 열린 야외 집회에 따른 불편함을 잘 기억하고 있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예배 장소는 나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성전 부지 근처에 있던 어느 작은 나무 숲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브리검 영, 히버시 김볼, 올슨 하이드, 팔리 피 프랫, 올슨 프랫, 선지자 조셉 및 축복사 하이럼과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숲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마차 한대를 창중 앞에 끌어다 놓고 선지자 조셉이 그 마차에서 서서 말씀을 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일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한두 명이 일어나더니 선지자 조셉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 주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우산이 없었고, 그곳에 앉았기가 몹시 난처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셨던 그곳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⁴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돌아가시기 전 그는 성도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 동안 날씨로부터 보호받도록 두꺼운 천으로 천막(태버내클)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1845년, 성전의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님은 브리검 영이 “시온 회중의 태버내클”이라 지칭했던 천막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하고 “약 3,700 미터” 길이의 캔버스 천을 구입



하도록 미국 동부로 파견되었습니다.⁵

올슨 프랫 형제는 1845년 8월 30일자 서신에서 캔버스 천막과 관련해 제안된 위치와 설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전 정면에 캔버스로 된 천막을 세우되 서쪽으로는 성전과 인접하게 할 것입니다. 천막 형태는 타원형이 될 것입니다. ... 바닥 면적은 8,000명 내지 10,000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좌석은 점차 높아지면서 원형 극장의 형태로 배치될 것입니다.”⁶

다음 날 형제들은 캔버스 천막을 짓기 위해 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나무를 떠나야 했고, 캔버스 태버나클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846년 올슨 하이드는 “캔버스 천을 마차에 싣고 서부로 향했”습니다.⁷ 어떤 사람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 캔버스 천이 천막, 천막 가장자리 및 마차 덮개”⁸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 완공된 태버나클의 규격은 나무에서 계획되었던 캔버스 천막과 비슷했으며, 이 태버나클 또한 나무의

천막과 관련해 제안되었던 것처럼 성전 바로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부로의 대이동과 같은 다른 문제와 관련해 그랬듯이 조셉 스미스는 그레이트 태버나클을 계획했고 브리검 영은 그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무를 위해 계획했던 그 천막은 비록 나무에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역사적인 건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라디오를 통해 연차 대회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위성과 현대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세계 곳곳의 건물로 연결되는 송신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모든 나라로 동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총관리 직원들에게 온 영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계속하여 그분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통해 계시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건물이 보강되고 새롭게 단장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

주

1. 리차드 더블유 잭슨, *Places of Worship: 150 Years of Latter-day Saint Architecture* (2003년), 16쪽 참조.
2. *History of the Church*, 2:410~11 참조.
3. *Deseret News*, 1855년 8월 29일, 194쪽.
4. “The Spirit of Worship”, *Improvement Era*, 1910년 6월호, 749~750.
5. New York Messenger에서 Brigham Young to the Saints Abroad, 1845년 6월 17일, *History of the Church*, 7:427 참조; Elden J. Watson, “The Nauvoo Tabernacle”,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spring 1979년, 416쪽.
6. New York Messenger에서 Orson Pratt이 Reuben Hedlock에게 씀, 1845년 8월 20일, 67쪽;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spring 1979년, 420쪽 참조.
7. Glen M. Leonard, *Nauvoo: A Place of Peace, a People of Promise* (2002년), 479~480쪽
8.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spring 1979, 421; William Smith claim in Glen M. Leonard, *Nauvoo* 참조, 754쪽, 주석 86.

태버내클의 추억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오늘 이 건물이 헌납되는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헌납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버내클에 함께 모여 계시거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건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 아름다운 예배의 집을 건설한 초기의 성도들과 그 후 이 건물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의 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 제 삶에서 있었던 솔트레이크 태버내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 너무 많지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다.

제가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회개와 침례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35년 9월의 어느 토요일, 어머니는 저를 전차에 태워 얼마 전까지 이 건물 내에 있었던 태버내클 침례탕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의식은 보통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행해졌으며, 대부분의 아버지의 경우 그 시간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흰 옷을 입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제였던 것만 같은 그날과 그 의식을 받을 때 느꼈던 행복이 떠오릅니다.

지난 세월, 특히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 저는 태버내클 침례탕에서 다른 수많은 침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각각의 침례는 특별하고 고무적이었으며 그때마다 제 자신의 침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 4월, 제 아내 프랜시스와 저는 이 건물에서 개최된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고무적이기도 강력히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 전,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경고를 주셨습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상 곳곳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다가올 재앙 때문에 말입니다.”(Conference Report, 1950년 4월, 169쪽)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라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 연차 대회가 있고 나서 2개월 반이 지난 후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약 25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이 기념적인 날로 인해 저는 그 봄날 이 건물에 앉아 있을 때 스미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버내클에서 행한 많은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언제나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통해 교화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1963년 10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서 저를 그분의 사무실로 부르셨으며 제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 성스러운 부름을 기밀로 지키며 제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음날 연차 대회에서 제 이름이 큰 목소리로 발표될 때 태버내클에 참석해 있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정확히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른 채 태버내클로 들어왔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저는 위원회 일원들과 함께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후 스미스라고 하는 제 친구를 발견했는데, 그 또한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에게 제 부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임을 하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지지를 받았고 물론 제 이름도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청중석에서 단 위로 올라가는 길은 제 생애에서 걸었던 길 중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회 이후로 거의 4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에 컨퍼런스 센터가 헌납되



기 전까지 저는 이 건물의 단상에서 연차 대회 메시지를 101차례나 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숫자는 이곳에서 열린 본부 보조 조직 대회와 그 밖의 모임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더하면 총 102차례가 됩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197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도중 저는 제 말씀을 이 건물 발코니에 앉아 있던 긴 금발머리의 한 소녀에게 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주의를 그 소녀에게로 돌렸으며 제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말은 어떤 젊은 여성이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지를 이 어린 소녀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미스티 화이트라는 어린이가 조부모님과 이모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 저는 미스티가 제가 말씀을 전한, 발코니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스티의 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미스티가 침례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스티는 침례를 받고 싶어했으며 함께 살고 있던 조부모님도 그러기를 바라셨지만 저활동이었던 미스티의 어머니는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스티는 조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요.”

미스티와 조부모님, 그리고 이모는 대회를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여행했으며 태버내클에서 토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스티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 아이를 향해 말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스티의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티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여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동안 형제님은 제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저는 침례 받고 싶어요!”

그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으며, 미스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스티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하고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14년 전 한 훌륭한 형제와 결혼하게 된 그녀의 성전 결혼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특권이었으며, 그들은 현재 다섯 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곧 또 한 명을 출산할 예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 태버내클 단상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태버내클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 생애 동안 저는 아홉 분의 교회 회장의 이름이 발표될 때, 팔을 들어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과 함께 그분 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이 건물이 헌납되는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가까이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헌납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광야의 태버나클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건물은 특별하고 훌륭한 모임 장소가 되어왔습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후 과거에 가졌던 대회에서 수없이 만났던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최신의 내진 건축 설계 기준에 맞도록 대대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건물의 역사적인 특징들이 훼손되지 않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일부 옛 의자들은 그대로 두어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셨겠지만, 새로운 의자들은 예전 것처럼 딱딱합니다.

비상구는 현대 요건에 맞도록 수를 늘렸습니다. 외벽을 구성하는 거대한 돌 기둥들은 크게 강화되고 보강되었습니다. 지붕은 강철 보를 추가하고 새로운 지붕재료를 써서 강화했습니다.

니다.

이 건물을 개조한 것이 처음이 아님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한 직후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발코니가 없었으나 추가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건물은 특별하고 훌륭한 집회 장소가 되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브리검 영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 연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저명인사들이 이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 지역의 문화 예술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유타 심포니는 처음 이곳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헨델의 메시아와 테너 기프트 오브 뮤직과 같은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공연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명한 남녀 인사들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실로 이 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건물입니다.

다. 이 건물은 우리 조상들이 빈곤한 시절에 지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광야에 지은 장막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완공은 아직 먼 상태였습니다. 태버나클을 지은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앙으로 지었습니다. 언제나 있기 마련인 많은 회의론자들은 건물의 비계를 떼어내면 지붕이 내려앉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오랫동안 햇살과 폭풍을 이겨내고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본향으로 전 세계에 유명해진 이곳에서는 1929년부터 75년 이상을 그 어떤 네트워크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오랫동안 매주 라디오 방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서부의 교차로”인 이곳 태버나클에서 또다시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곳은 다시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의 본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많은 작품이 발표되고 행사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곳은 스테이크 및 지역 대회, 일반 강연, 음악 콘서트 및 기타 연예 활동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행된 1875년 10월 9일 토요일 자 *밀레니얼 스타(Millennial Star)*에는 존 테일러 회장이 신성한 건물 헌납을 위해 긴 헌납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임을 마치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재헌납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납 기도

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100년이 넘도록 사용한 후, 이제 새롭게 보수하고 개축한 이 훌륭한 태버나클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을 헌납하고 재헌납하고 성

별하오니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이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행사를 상고하며 모든 은사와 권세와 축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할 때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던 선지자 조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부에서 쫓겨난 후 크나큰 고통을 겪으며 아이오와를 횡단하여 윈터쿼터스에 정착하고, 그 후 그곳에서 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기나긴 여정을 감행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시현으로 본 것 외에는 이 계곡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우리의 선조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브리검 영 회장의 영감 받은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으며 토양이나 기후, 물 또는 기타 특성도 낯설었습니다. 이러한 황무지에서 개척자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경작하여 노동의 열매들을 수확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이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거하

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이 이 계곡과 인근 지역에 설립된 정착촌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업이 번영하고 온 세상에 퍼져 회원들이 이 나라 안보다 이 나라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업이 계속 번영케 해 주십시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성장하고 널리 퍼지도록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당신의 사업이 전진하여 온 땅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다가올 세대들 가운데 강건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면서 기쁨과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신성한 건물을 헌납하고 재헌납하며 성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 ■

인생의 교훈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께 삶을 돌이켜 보라고 권합니다.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최 근 저는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훌륭한 경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회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의 형성기가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삶을 변화시켜 준 경험들의 대부분은 청남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들로 인해 제 성품이 형성되었으며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사람으로, 매우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러한 경험들과 그로 인해 제가 배우게 된 교훈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라이벌 학교와 겨루었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시합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는 왕백 포지션을 맡고 있었으며 제 임무는 라인배커를 막거나 쿼터백이 제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수비측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합을 특별히 잘 기억하는 이유는 라인 저편에 있던, 제가 막아야 했던 선수가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보며 몸무게가 제 두 배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오늘날 선수들이 가진 보호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헬멧은 가죽으로 돼 있었고 얼굴 보호대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에게 붙잡히면 남은 시즌 동안 병원 침상에서 우리 팀을 응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움직임이 빨랐고, 전반전 대부분 동안 그러저럭 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우리 팀 쿼터백은 공을 던지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수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공을 던졌고 공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제 뒤에서 쿵쿵거리며 뛰어 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을 잡으면 병원에서 튜브를 통해 식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공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며 우리 팀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뻗었고 마지막 순간에 ... 위를 올려다 보았습

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습니다.

저는 공이 제 손을 친 것을 기억합니다. 붙잡으려 애썼던 것도 기억합니다. 공이 잔디 위로 떨어지던 소리도 기억합니다. 그 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거인이 저를 너무나 세게 친 나머지 저는 제가 어느 별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흐릿한 안개 뒤에서 들려왔던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구팀인지 ... 맞아도 싸다.”

윌리엄 맥킨리 오스워드는 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코치였으며 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육군 훈련 하사관에게 배웠던 듯 합니다.

그날 하프타임 연설에서 오스워드 코치는 팀 전체에게 제가 떨어뜨린 공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가리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공을 떨어뜨렸는지 알고 싶군.”

저는 잠시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에서 눈을 떼어 버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치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에서 눈을 떴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실수로 시합에 지는 거야.”

저는 오스워드 코치를 존경했으며 기분은 무척 안 좋았지만 코치가 말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팀 거인에 짓눌려 으러진다고 해도 다시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드로 나갔고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막상막하의 시합이었고 우리 팀은 잘했지만 4쿼터 후반에 4점 차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쿼터백은 다음 승부 때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수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공은 저를 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인이 제 앞에, 그

리고 공을 가로채기에 완벽한 위치에 서 있었 습니다.

그는 손을 뺐었지만 공은 그의 손을 빠져나 갔습니다. 저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높이 뛰어 손을 내밀어 공을 잡고서는 승리를 불러 온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축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스 워드 코치의 표정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바로 그렇게 공을 주시하는 거야.”라고 그 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싱글거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모두 다른 배경과 재능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 지만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초점을 돌리기는 쉽습니다. 저는 오스워드 코치에게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제게 중요한 가치들을 우선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삶을 돌이켜 보라고 권합니 다.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 십시오.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 는 고무적이고 숭고하며 의로운 목표를 세우십 시오. 그런 후 목표를 주시하십시오. 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꿈을 향해 자신있게 나아가고 자신이 마 음에 그려 온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은 평상시 예상치 못했던 성공을 얻게 될 것 이다.”¹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기록했 습니다.

다시 말해 공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미식 축구 필드에서 배운 또 한 가지 교훈 은 10명의 다른 선수들 밑에 깔렸을 때였습 니다. 때는 로키마운틴 컨퍼런스 챔피언십 시 합 중이었고 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터치다운을 위해 필드 중간까지 공을 가지고 뛰어야 했습니다. 저는 공을 들고 달렸습니 다. 저는 골라인 가까이에 왔다는 것은 알았 지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저



는 선수들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몇 센티미터 앞으로 손을 내밀었고 라인을 건드 릴 수 있었습니다. 골라인은 5센티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을 앞으로 밀고 싶은 유혹 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들이 선수들을 더미에서 끌어내리 면 저는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 을 것입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그 순간을 꿈꿔 왔습 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 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 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조셉, 결과가 어떻 게 되든 옳은 일을 하거라.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터치다운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 러나 친구들 눈에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어 머니의 눈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서 저는 공을 그냥 두었습니다. 골라인을 5센 티미터 앞에 두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경험은 저의 성품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을 움직였다 면 저는 순간적으로는 영웅이 되었겠지만 일시 적인 영광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영원히 지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제 양심에 남게 될 흉터를 새겼을 것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구 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유혹이 우 리 양심의 조용한 목소리를 덮어 버리게 놓아 둔다면,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혹이 다가올 때 재빨리 대 응하며 즉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고합 니다. 유혹을 피하십시오.

제가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저는 와드 감독이 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차에 음식과 비품들을 실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전달 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버지 외에도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75년 전, 윌리엄 에프 퍼슨 감독님은 솔트 레이크시티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제4 와드를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감독님은 독일계 이민자 이자 교회 개종자였고, 억양이 강했습니다. 그 분은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타인을 향한 크나큰 연 민이었습니다.

매주 신권 모임에서 퍼슨 감독님은 아론 신 권 소유자들에게 다음 문구를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신권은 봉사를 의미한다. 신권을 소유 한 나는 봉사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망인 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퍼슨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도우려 했습니다. 예배 당을 짓고 있을 때 퍼슨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지 농장에서 사탕무와 감자를 위해 잡초를 뽑거나 수확을 해야 될 때, 퍼슨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 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퍼슨 감독님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토마스 에스 몬슨이라는 젊은 감독 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에 퍼슨 감독님은 스위스-오스트리아 선교부를 감리하 도록 부름 받았으며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최 초의 “해외” 성전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셨습니다.

퍼슨 감독님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분이 하셨던 염려,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지치지 않는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감독으로서 감리하신 아론 신권 청남 중 29명은 이후 감독이 되었습니다. 10명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5명은 선교부 회장이 되었고 3명은 성전 회장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2명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습니다.²

그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의 능력이며 봉사의 힘입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교훈들과 청소년으로서 배웠던 다른 많은 교훈들이 이후 제 삶의 기초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은사를, 다른 이들은 병고침의 은사를 축복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 제가 가장 감사하는 영적 은사 중 하나는 순종하는 영을 축복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현명한 권고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기울였고, 그 권고를 제 생각과 행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신권 형제 여러분, 순종하는 영의 은사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³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어떻게 압니까? 영감에 의한 권고를 들을 때 순종하는가. 그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권고를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요,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염려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발전을 인도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 교회와 이 세상의 후기의 선지자 이십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이 놀라운 삶을 통해 우리 각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옳은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자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Walden 편. J. Lyndon Shanley(1971년), 323쪽.
2. 글렌 엘 러드 장로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게 보낸 서신, 1987년 2월 5일.
3. 마태복음 7:24, 26.
4.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 71쪽.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지금 그 신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장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모여 있는 형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생각납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돌진해 나가세”¹ 참으로 여러분은 충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고귀한 군대에서 가장 어린 회원들, 즉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론 신권 소유자인 집사, 교사, 제사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기억

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주 오래 전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 한 번의 결정으로 이 대업에 참여했습니다. 천국 회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주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렇게 선택했기에 여러분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진보를 결정했던 그 신성한 결정으로 인해 여러분은 육신을 받았으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를 얻고, 구주의 속성들을 지니기 위해 성장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까.

아론 신권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 예비의 기간을 위해 주어진 예비 신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신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장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성전에 가며, 선교사로 봉사하고,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며, 배우자를 택해 성스러운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 받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때와 시기에 맞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이십대 동안의 바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이십대의 시간을 “결정의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처하는 법을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 받는 동안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경보 등이 깜빡이고 비행기가 회전하면서 통제 불능일 경우 언제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는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의 비행 훈련 도중 몰래 빠져 나가 골프를 치거나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비행기에 화재가 났으며 비행기는 회전하면서 지상으로 곧 두박질쳤습니다. 화재 경보 등을 보고 그 경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의 후임 동료는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제 친구는 비행기 안에 남아 추락과 더불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10년의 준비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이므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 반드시 그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각각 결정해야 할 일들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여러분이 내리게 되는 많은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²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이 우리가 전세계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정을 이 필멸의 세상에서 다시 내려야 하는데,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매일 매 상황마다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약으로 맺었으며,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들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은 성신을 변함 없는 동반자로서 지니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와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들, 즉 경전 공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 계획에 따르기, 목표 설정 및 성취, 거래에서 정직함, 결심한 것을 지키, 그리고 지니고 있는 신권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선지자들이 알려준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지금은 누가 여러분의 친구여야 하는지 결정하고 또한 의롭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할 때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모친은 제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동아리 그룹은 훌륭한 일을 하도록 영감

을 줄 수도 있고,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더 쉽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그들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진실한 친구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동반자가 영원히 함께 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한 친구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인가? 내 영원한 동반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는 과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전임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인 반면, 더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선교 사업은 헌납의 법, 즉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은사,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께 봉사하는 가운데 이 헌납의 법대로 생활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봉사하는 2년이 인생의 첫 20년에 대한 십일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어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과 교육과 직업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 형제인 여러분은 인생의 인턴십과 같은 준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성실한 학교 생활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으라는 히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게 해줄 것입니다.³ 학교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진다”⁴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키우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더 큰 기회와 책임을 위



해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업과 프로그램과 직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전세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부분들만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계획의 어느 부분만을 따를 것인지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훈을 배운 것은 제가 단독으로 처음 야간 비행을 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야간에는 곡에 비행을 하지 말라. 제 군들은 계기 비행 훈련을 받지 않은 초보 조종사들이다.”라는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얼마 후, 한 조종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는 훌륭한 조종사요, 좋은 친구였을텐데 말입니다. 그는 텍사스의 밤하늘에서 수직 공중제비와 연속 회전을 했고, 그러면서 조종실 뒤편에 너머로 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그는 아래에 있는 유전의 불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중력은 비행기가 똑바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으나 사실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밤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조종간을 당기자, 그는 땅을 향해 돌진했으며 유전의 반짝이는 불빛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위치를 한 번에 1도씩만 바꾸면 여러분의 궤속의 방향 탐지 기관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리거나 또는 나이 많으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일부 계명들만 취사선택하여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한 번에 1도씩 바뀝니다. 사탄의 기만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앙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전세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선택의 모형을 필멸의 시험의 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때입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입니다.”⁵ 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충분하리라는 것을 간중합니다. “오 기억하라, 내 이듬아, 그리하여 내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⁶

지금은 여러분의 장자권을 보호할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야곱은 생을 마칠 무렵, 각 이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으며 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축복인 장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⁷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뜨거워지면 증발합니다. 차가워지면 열게 됩니다. 물결이 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침식작용을 일으키고 흐르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은 무

엇이든 파괴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도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고 구주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증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위처럼 굳건하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 축복들을 잃는 유일한 방법은 불순종을 통해 그 축복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영원한 유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하고 준비하십시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에서 꼭 필요한 힘이며, 이 후기의 청년 병사들입니다.⁸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⁹ 곧 입할 영광스런 추수를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십 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수확의 법칙은 결정을 내리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통해 땅을 다지십시오. 훌륭한 권고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런 다음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감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내 부에서 자라는 씨앗은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빛은 영적인 수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간구할 때 옵니다. 우리가 그 빛에 따를 때,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¹⁰ 대낮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있게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계십시오. 우리는 각자 우리가 누리게 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택하기 위해 천국 평의회가 열릴 “그곳”에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 감독님과 고공주와 맺은 결심이 있다면 “그곳에 계십시오.” 교회나 상호 향상 모임이 시작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우리는 신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필품을 비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각각의 신권 소유자는 열두 살이든 백열두 살이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의 법과 의식들에 순종함으로써 해의 영광 상태의 삶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할수록 멋진 일이며,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야망으로 뚝뚝 뭉친 한 젊은이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론 신권 정원회의 제사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거창하게도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목적은 야심차게도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도 하

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치들을 찾아갔고 마침내 한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학 스포츠계에서 유명해지고 으스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거창하고 헛된 야망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곳간에 쌓아두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충분한 준비의 중요성과 규칙적인 출석의 필요성, 체계적인 공부 및 대학 화학 수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눈감쩍힐 사이 잔인하게 나타났습니다. 90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185센티미터에 77킬로그램의 체구인 그가 맘모스와 같이 거대한 학교 대표 선수들과 마주하여 섰던 바로 그날,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익숙지 않은 그의 눈과 정신은 잠시 책을 읽자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의 패배에 췌기를 박은 사건은 화학 기말 시험이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무렇게나 쓴 객관식 답들은 무작위로 답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낙제했습니다.

열의를 다한 선교 사업이 그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일깨워 주었고,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 마침내 그 잠깐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결과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의 화학 수업에 관한 악몽

하거나 신권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간이 되면 “그곳에 계십시오.”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할 때가 되면 “그곳에 계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때가 되면 “그곳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계십시오.”(물론 증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해의 왕국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계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화롭게 돌아올 때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감싸기 위해 기다리실 때 “그곳에 계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의 10년 이후에는 위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일어서라, 오 너 하나님의 사람.”¹¹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일어서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합당한 하나님의 딸들에게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분의 막강하고 고귀한 군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 따라 함성도 드높게. 이기세, 이기세, 주 우리 구원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¹²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승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라 당당한 군대”, 찬송가, 169장.
2. 누가복음 18:22.
3.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4. 교리와 성약 46:11.
5. 앨머서 34:32.
6. 앨머서 37:35.
7. 창세기 49:3~4.
8. 앨머서 53장.
9. 교리와 성약 6:33.
10. 교리와 성약 50:24.
11. 영어 찬송가, 323장.
12. 찬송가, 169장.

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어리석음을 피할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이 ...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들으라.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너희여, 함께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해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²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의롭게 살게끔 하는 훌륭한 여러 동기 중 하나는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약속된 보상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며, 약속된 형벌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의 재림에 담겨 있는 계시들입니다.³

이런 계시들은 하늘과 땅에서 보일 징조와 기이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들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시기와 주님의 재림까지 지역적,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하늘의 약속들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며”⁴

“너희 위에 내릴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⁵

또한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⁶

신권 소유자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준비하라는 그와 같은 약속들에 의해 인도됩니다.⁷ 재림을 예고하는 사건들에 관해 초조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선택의지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은 우리라는 사실에 감사합시다.⁸ 성공하기 위한 공식은 간단합니다. 충실하게 생활하십시오. 삶의 무게를 가볍



게 하십시오. 공간에 쌓아 두십시오.

충실하게 생활하십시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부드러운 손길과 친절한 말투를 기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내고 금식하고 관대한 금식 헌금을 냅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헌납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공간에 쌓아 둡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우리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⁹ 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¹⁰기 때문에 과욕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 직업이나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또는 하루의 일과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잘라내고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¹¹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환해야 하며 가능하면 부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공간에 쌓아 둡니다!** 그렇게 할 때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 교회와 교회의 백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¹² 될 것입니다.

공간에 쌓아 두십시오. 아내들이 이런 일에 큰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가족의 준비 상태를 이끄는 남편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공간에 비축해 두는 의로운 전통이 깃들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고, 그 비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궁핍한 시기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동, 근면, 검소함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¹³

우리 앞에 교회의 제임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는 세 명의 감리 대제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가정의 비축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유사시에 가족에게 필요할 모든 생필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¹⁴

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년 치 식량을 비축하고 빛에서 해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불어 닥치는 경제적 폭풍우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를 거꾸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도 없이 적어도 일년치의 빛을 비축하고 있습니다.”¹⁵

주님의 선지자인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식량을 보관해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

“우리는 아주 검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 분량으로 그런 다음 석 달 분으로 늘일 수 있습니다. ...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식량 비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여 ... 점차 알맞은 목표를 향해 가십시오.”¹⁶

영감 받은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 순종, 검소한 생활 방식에 달려 있

습니다. 회원들은 식량 비축을 지나치게 해서
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필품을 비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돌보도록 위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리라는 팜플
릿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지금이 우기를
준비할 때라고 권고하십시오.

신권 지도자 여러분, 가족의 준비 상태와
가정 관리를 증진시키도록 상호부조회에 협력
을 구하십시오. 이 교회의 자매들은 여러분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여러분이 지도력을 발휘
하는 데 협력해 줄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가정의 비축 창고에 건강에 이
로운 기본적인 식품들 몇 가지와 마실 수 있는
약간의 식수를 규칙적으로 채워 넣으라고 격려
하십시오. 그들은 매주 동전 몇 푼이라도 저축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박한 시작이 곧 몇 달
분량의 비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소
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곡물, 콩류, 기타 주요
식품과 같은 필수품들을 추가함으로써 장기 비
축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비축 식량 외에 먹
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시킬 것입
니다.¹⁷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¹⁸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지혜, 안전, 마음
의 평화, 개인적인 건강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될 것이며, 준비되어 있
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¹⁹

말씀을 마치며 저는 루카와 파트리자 바카
로노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태
리 로마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몇몇 경험 후, 우리가 사용하는 물
품들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
다. 가끔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
습관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화평의 느낌과 주님께서 현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은 우



리가 성신을 느끼도록 돕고 ... 두려움을 없애
주며, 주님 재림의 시기에 관한 표적들이 두려
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
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기쁨으로 맞이합니
다. 그것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²⁰

마지막으로 바카로노 형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영어 실력이 변변치 않아 죄송합니
다. 하지만 제 의도를 형제님께서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바카로노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경전에 나와 있
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
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
리라.”²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 아멘. ■

주

1. 신앙개조 1:3.
2. 교리와 성약 1:1, 12.
3.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권 [1966~1973], 1:677~78 참조.
4. 교리와 성약 1:36.

5. 교리와 성약 78:14.
6. 교리와 성약 38:30.
7. 디모데 후서 4:8; 교리와 성약 133:50, 52 참조.
8. 교리와 성약 104:13~17 참조.
9. 교리와 성약 1:36.
10. 교리와 성약 50:23.
11.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675~76; 조셉 스미스-마태 6:38 참조.
12. 교리와 성약 78:14
13. 디모데 전서 5:8, 디모데전서 6:19; 교리와 성약 29:3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 49쪽, Joseph F. Smith, Conference Report에서, 1900년 10월, 46쪽, Bruce R. McConkie, *The Mortal Messiah: From Bethlehem to Calvary*, 4권 [1979~1981], 2:155 참조
14. “복지에 대한 책임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86년 7월 22쪽.
15. “That Noble Gift—Love at Home”, *Church News*, 2001년 5월 12일 7쪽.
16.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 58쪽.
17.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314쪽 참조.
18. 열왕기상 17:14, 8~16 참조.
19. 교리와 성약 38:30.
20. 2007년 3월 3일 서한.
21. 잠언 3:5~6.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 제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제 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도처에 있는 모든 젊은 신권 소유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들과 위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커다란 축복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영예이지만 교회에서 12세 이상의 합당한 성인 또는 소년이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¹ 신권은 인간의 모든 권능을 초월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제사인 청남 피터는 신권 권능이 실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 청남 개종자가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재한 자신의 와드에서 아론 신권의 교사에 지지받았는데, 피터는 그를 성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에 누구에게도 안수를 한 적이 없는 나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영은 내가 안수해도 괜찮다며 용기를 주었다. ...”

“성임 받을 청남이 의자에 앉았고, 나는 바로 그의 뒤에 섰다. [우리 청남 회장이] 의식 기도로 나를 인도했고, 나는 그의 기도문을 모두 따라 했다. 우리가 성임을 마치고 ‘우리는 또한 형제님의 머리에 축복을 주고자 하노니 ...’ 라고 말했다. [청남 회장이]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알아서 할 차례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마친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신권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멈추었고 영이 다음에 할 말을 속삭여 주기를 기다렸다. 그 날 축복을 주면서 느꼈던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신권의 권능이 실재한다는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²

청남 여러분은 분명히 대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권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권은 땅의 기초가 놓이고 아침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뼈 소리치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신권으로,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³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은 이 신성한 대리권에 대해 1831년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대리인이므로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나라.”⁴

힝클리 회장은 종종 선교 사업은 본질적으로 신권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선교 사업에 부름을 받는 것은 커다란 영예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봉사는 때때로 힘들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제 선교 사업은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겪었던 가장 훌륭한 경험들 중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여생의 일과 영원한 사업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⁵

의로운 계획을 따르고 사회의 법률과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규칙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범죄자들은 수감될

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사회를 자주 원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기로 택했으며, 그 결과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⁶ 개중에는 심지어 “악마가 시켰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의 진의는 악을 행하도록 악마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⁷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존재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택한 일을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⁸

우리 모두는 청소년기나 중년기 또는 노년기를 불문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청소년기에는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로 뛰어들고, 노년기에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⁹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방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쇠막대를 더욱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온갖 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모든 청남은 여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스런 청녀와 데이트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신체적 안전과 정절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으로 인해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회원에 비해 교회의 높은 도덕적 표준을 항상 지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성적인 흥분을 자극하는 것에 얼씬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출산의 위대한 힘을 남용한다면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절제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현세나 영원의 세상에서 어떻게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권을 존중하는 의로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이생과 영원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는 제 아내 루과의 6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이 점을 배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은 생을 풍요롭게 해 주지만 그런 관계들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더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결혼하면 여러분은 아내의 행복과 가족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책임져

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다면 위대하면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다스림이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영속적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 생활입니다.¹⁰ 가정에서 큰 만족을 누리려면 배우자 서로가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정보다 사업이나 즐거움을 우선시

할 때,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내리막길에 들어서 약해지게 됩니다.”¹¹

여러분 중에는 성공리에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부친은 법과 대학원을 졸업할 때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졸업이 사실 더 큰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소년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T형 포드 자동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차에 비해 그 차들은 기계적인 면에서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진의 마모된 밸브 표면을 갈거나 닦고, 피스톤 링을 교환하며, 새 브레이크 밴드를 장착하고, 철사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묶어서 차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너무 복잡하여 보통 사람은 수리하는 방법을 거의 모릅니다. 요즘 정비공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엔진 문제를 진단합니다. 저는 젊음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권하고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고등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술에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 업으로 택한 직업이 훌륭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술을 습득하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인간적인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간성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디킨스의 소설에 등장한 인물, 제이콥 말리는 “사업이요? 인간이 제 사업이었어야 했는데! 그 행복이 제 사업이었어야 했는데!”라고 절규하며 일밖에 몰랐던 자신을 한탄했습니다.¹² 우리 각자는 사회를 강화하는 일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일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토르카과 스테이크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두 명의 소년

저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¹³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공하려면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므로 성공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실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과 똑같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고 사용하여 우리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성장기에 우리 이웃에 학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손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든 한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날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내무사역을 위해 침상 꾸리는 법을 끝내 익히지 못했으나, 나무 조각으로 정교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능, 창의성, 도덕적 안정성, 또는 위대함이 청소년들이 아니라 연장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¹⁴

청남 여러분에게는 큰 약속이 걸린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과거에 몰랐던 지식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은 현대적인 사업, 산업, 농업, 직업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터에서도 생활 방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원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교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들과 제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특별한 청남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보여주시는 지도력의 모범을 따라 신앙과 의로움 가운데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신권이 제 인생에 미친 크고 심오한 영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 신분과 신앙을 숨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제 경력에 해가 되었거나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간증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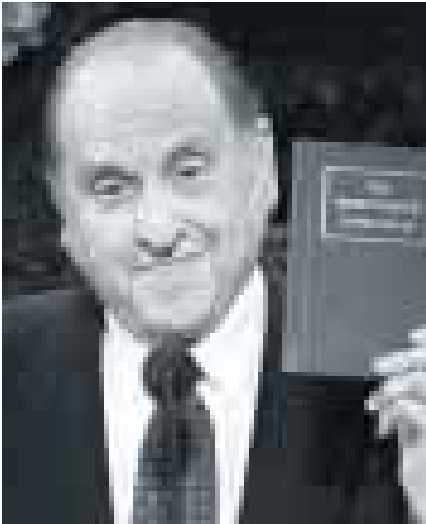
주

1. 히브리서 5:4.
2. “신권의 권세는 실재합니다”, 피터 포마트, *성도의 빛*, 1997년 6월호, 44쪽.
3. *History of the Church*, 4:207.
4. 교리와 성약 64:29.
5. 디모데전서 6:11.
6. 엘마서 41:11.
7. 모로나이사서 7:12 참조.
8. 야고보서 1:12~15; 4:7 참조.
9. Josh Billings, in Evan Esar, ed., *Dictionary of Humorous Quotations* (1962년), 36쪽.
10. “Parents Should Be Consulted”, *Improvement Era*, 1902년 2월호, 308~309쪽.
11.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 5쪽.
12. Charles Dickens, *A Christmas Carol*, in *The Best Short Stories of Charles Dickens* (1947년), 435쪽.
13. 마태복음 6:33.
14.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년), 117쪽.

신권-성스러운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늘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우리는 신권 소유자들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 제 생각을 인도하시고 제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65억 인구가 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정선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

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¹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신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인간이 ...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 그 권능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천사가 말하듯이 말합니다. 그 권능으로 인간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신권의] 신성하며, 사람들은 이를 신성하게 간직해야 합니다.”²

형제 여러분, 신권은 특별한 축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엄숙한 책임도 가져오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늘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길로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둘러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피하려면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오래 전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의 일반 총회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이 재조직될 예정이었습니다. 감독단을 포함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대회에서 음악 순서를 맡았습니

다. 우리의 첫 번째 곡을 마치자, 대회 방문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지지를 묻기 위해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의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되신 퍼시 페처 형제님과 제1보좌로 부름받은 존 버트 형제님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전 회장단에 속해 있었으며 대회 시작 전에 자신들의 새로운 부름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뒤이어, 그분은 새로운 회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 받은 제가 부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지를 묻기 위해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몬슨 형제님이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가 되는 이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단상에 서서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노래가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서 제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날 저는 말씀 주제를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로 택했습니다. 용기에 대한 외침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옵니다. 우리의 확신에 대해 확고하게 서겠다는 용기,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용기, 신권을 존중하겠다는 용기 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신권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³에서 있습니까?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벗었다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양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신권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권을 제쳐놓거나 신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나쁜 장소에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신권을 지니고 있어. 이 일을 해도 될까?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다시 험착하고 좁은 길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⁴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한계는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은 자신이 행사하는 권능을 스스로 제약할 것입니다.”⁵

어린 소년에서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결심하고, 그에 필요한 용기를 지니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우리는 영원한 선원, 즉 위대한 신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제 삶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반 무렵, 저는 열여덟 살이 되었고 해군에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장로에 성임 되었습니다. 감독단 중 한 분은 저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까지 나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을 쥐어 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선교사 지침서*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해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선교부가 아니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가져가렴. 유용하게 쓰일 거야.”

그 책은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저희 중대장은 어떻게 하면 커다란 해군 배낭에 옷가지들을 잘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배낭 바다에 넣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건이 있다면, 옷들이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어디서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체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때 마침 거기에 맞는 직사각형의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 지침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군 배낭 속에서 12주 동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성탄절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우리의 생 각은 늘 그렇듯이 집에 가 있었습니다. 막사는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옆 침대에 있는 동료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리랜드 메릴이라고 하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메릴,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파, 너무 아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대에 있는 의무실에 가 보라고 했으나 그는 그렇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부대를 깨우지 않도록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신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몬슨, 너 장로지?”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부탁했습니다. “나 축복 좀 해 줘.”

저는 축복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축복을 주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배낭 바닥을 살펴봐라.” 그래서 저는 새벽 2시에 배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갑판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간등의 불빛으로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건, *선교사 지침서*를 집어 들고 병자 축복하는 방법을 읽었습니다. 약 백이십 명의 선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쏟아 부은 물건들을 치우기도 전에 메릴은 어린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릴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네가 신권을 갖고 있어서 기뻐.” 그의 기쁨은 제가 가진 감사함, 즉 신권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에 제가 도움을 받기에 합당했다는 것과 신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저의 감사함을 능가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⁶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0년 4월에 저는 그러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로사 살라스 기포드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부모가 몇 달 동안 방문 중인데 제게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부친인 베르나르도 아구스토 살라스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부친이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부친의 큰 소망은 죽기 전에 저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와서 부친을 만나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모임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늦게서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곧장 가는 대신, 더 남쪽으로 내려가 그날 저녁에 살라스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주소를 손에 쥘 채, 그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통행량이 많은데다 불빛이 어두워 저는 그만 그 집으로 향하는 길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 아닙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그곳으로 왔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도로 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쯤 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지만 주소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때 영감이 왔는데 반대 편에서 그 쪽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차를 몰고 가서 방향을 돌려 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쪽은 통행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다시 그 지역으로 접근하던 저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 쪽 편 길가에 놓여 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거의 보이지도 않고 잡초로 덮인 좁은 길이 큰 도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작은 아파트와 조그마한 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을 향해 다가가자 흰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 살라스 형제가 누워 있는 방으로 안내 되었습니다. 침대 주위에는 세 딸과 사위 한 사람, 그리고 살라스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코스타리카에서 왔습니다. 살라스 형제의 모습은 그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수건이나 세면용 타월도 아닌 가장자리가 해진 것은 누더기 조각이 이마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눈을 뜬 살라스 형제는 제가 그의 손을 잡아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축복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가족들 모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신권이 없었으므로 저 혼자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 축복의 말씀은 주님의 영의 인도 아래 거침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에 있는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축복을 한 후에 저는 슬퍼하는 가족에게 몇 마디 위안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짧은

제 스페인어로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읽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고 요한3서 1장 4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친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몸과 복장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살라스 형제의 훌륭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가족들이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읽은 두 경전 구절의 위치를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게 적을 만한 마땅한 것이 없자, 살라스 자매는 그녀의 지갑에서 종이쪽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종이를 받으면서 저는 그것이 십일조 영수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감명 받았습니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저를 차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 와드로 오면서 저는 우리가 느낀 특별한 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신권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신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늘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 즉 여러분과 제 영혼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방방곡곡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나팔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러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⁷

우리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베드로전서 2:9.
2. 복음 교리 제5권 (1939) 139~140쪽.
3. 교리와 성약 45:32; 87:8; 101:22.
4. Conference Report, 1951년 10월, 169쪽.
5.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498쪽.
6. 누가복음 18:22.
7. 교리와 성약 107:99.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2만 1천여 명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세계 전역의 교회 집회소와 다른 장소에 수백만의 회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감어린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삶이 나날이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벌써 이렇게 늙었다는 사실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12년 전에 정 확히는 1995년 3월 12일에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들을 벨라드 장로님께서 숫자로 정리해 주셨는 데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 선교 임지로 나간 선교사의 수는 387,750 명으로, 이 숫자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봉사한 전체 선교사 수의 거의 40퍼센 트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 자면 교회가 조직된 후 177년 동안 봉사한

선교사들 중 약 40퍼센트가 최근 12년 동안에 배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개종자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3,400,000명으로, 이는 현재 교회 전체 회원수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 교회의 선교부는 303개에서 344개로 증가했으며 곧 3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 회원들의 성찬식 참석, 신권 성임, 십일조 헌납 등으로 측정해 본 활동 유지율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의 이 놀라운 성과도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위대한 미래에 비하면 하나의 서막에 불과하게 되리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즐겨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기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 쉬지 말고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대업은 일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움츠려 들지 말고 즐겨 일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오래 전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듣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들려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17년 동안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에 관한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카테지 감옥에서 함께 순교한 선지자 조셉의 형 하이럼 스미

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주리를 떠날 당시 조셉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가 아직 여섯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나무에 있었던 어머니의 집 창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테지 감옥에서 급히 말을 타고 온 그 남자는 스미스 자매님에게 자신의 남편이 그날 오후에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전하였습니다.

아홉 살이었을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황소들이 끄는 마차를 몰고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평원을 횡단했습니다. 열다섯 살에는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하와이로 가는 배삿을 마련하기 위해 지붕널(역주: 지붕의 서까래 위를 덮는 널)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의 하와이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했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바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심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옷은 지극히 남루했으며 친구라고는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 원주민들뿐이었습니다. 저는 궁핍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으며 제 자신이 마치 어린 소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자칫하면 너무 늦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전력을 다해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오며, 손수건으로 싼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있는 힘을 다해 빨리 달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느 근사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 저는 그것이 저의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욕실'이라고 씌어진 표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풀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얗고 깨끗한 옷이 한 벌 들어 있었는데 그처럼 깨끗한 옷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은 물건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은 그 옷은 매우 깨끗했으며 저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다음아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저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았으며 그가 제게 한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 늦었구나.' 그러나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해요!

그분은 저의 손을 잡아 문 안으로 들이시고는 큰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 마치 진짜 사람의 손을 만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부친과 브리검 [영], 히버 [시 킴볼], 윌라드 [리차즈], 그리고 그 외에 제

가 잘 알고 지냈던 다른 훌륭한 분들이 줄지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이 계곡처럼 크게 보였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지만, 무대 위에는 제가 알고 지냈던 모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는데 무릎 위에는 한 아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대로 모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으며 승영에 이른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저는 하와이의 산 위에 돛자리를 깔고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현 속에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손을 잡았고 그분이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저는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마음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큰 어른으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하거나 의로운 바가 제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순전히 모두 제가 그 때에 본 시현과 나타내심과 증거가



과테말라 코반 스테이크의 두 명의 초등회 회원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제가 겪은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복음 교리, 498~499쪽)

이 의미심장한 꿈의 핵심은 조셉 스미스가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한 꾸밈 속에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늦었구나.”

조셉 에프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해요!”

이 꿈으로 인하여 한 명의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라는 그의 외침은 그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의 양심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이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꿈은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모든 성인 남성과 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결은 경건에 버금간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6~18)

현대에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33:5)

불결함의 진흙탕에 뒹굴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몸과 복장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정숙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추하고 상스러운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숙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이 계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할지니라”(교리와 성약 42: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도 추하고 불경스러운 언어로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언어와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몸과 복장과 예절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문신을 하지 마십시오. 문신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후회할 것입니다. 문신은 고통스럽고

값비싼 절차를 통해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연해지십시오. 단정치 못한 복장은 단정치 못한 태도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입으시는 한 어떤 옷을 입든지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 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의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택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면서 그 분은 손수건으로 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그것을 풀었을 때 그 안에는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거나 전달할 때는 여러분의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청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하자면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컴퓨터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품위를 낮추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훌륭한 부름에 성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으십시오.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앞에는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소년이었을 때 하와이의 한 산 속에서 꿈꾸었던 저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으로써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도와주실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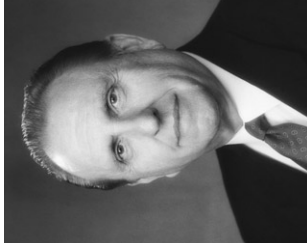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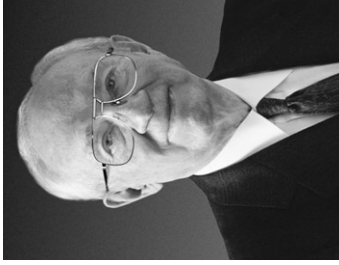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7년 4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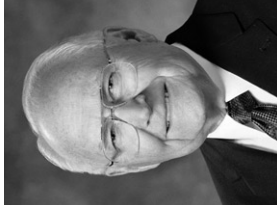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켄톤 페트리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저 욱스



엠 러셀 벤넌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테이버드 에이 베드나

칠십인 회장단



마크 시 핑기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찰스 디디에이



메릴 제이 베인먼



로버트 시 욱스



닐 앤드루 욱스



로버트 에이 러스로드



위: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이유카 스테이크에서 대회 모임을 함께 시청하기 위해 모인 후기 성도 3대
 왼쪽: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에서 대회 방송에 참석한 소녀들



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리아호나의 친구들을 읽고 있는 모습
 왼쪽: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집회소에 도착하고 있는 회원들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긍심과 행복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씁습니다. 저는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아름다운 언덕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단이 자동차, 전기, 또는 현대 문명의 이기 없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식품의 대부분은 밭에서 직접 경작한 것입니다. 여성은 바느질과 뜨개질로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데 단정하고 검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암만 신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2세의 한 우유 트럭 운전 기사는 니켈 마인즈 지역에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만교 신도가 아니었지만, 그가 우

유를 수거하는 길은 여러 암만교 신도들의 낙농장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조용한 우유 배달원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지난 10월 그는 갑자기 모든 이성과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마음으로 그의 첫 번째 자녀의 죽음과 몇 가지 분명치 않은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암만 교파 학교에 난입했으며 소년들과 성인들을 풀어 주었지만 열 명의 소녀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소녀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다섯 명은 죽었으며 나머지 다섯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후 그 자신 또한 자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력 사태가 암만 교도들에게는 분노가 아닌 크나큰 비통을 불러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있었으나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우유 배달원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의 가족들이 그의 장례식 후에 집에 모여 있었을 때, 한 암만교 이웃이 방문하여, 그의 팔로 자살한 총기 난사자의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¹ 암만교 지도자들이 우유 배달원의 아내와 자녀들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그들의 용서, 도움, 사랑을 표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중 절반 가량이 암만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암만 교도들이 살해된 소녀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우유 배달원의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으로 자기들을 지켰으며, 깊은 평화가 암만 교도들

에게 임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 비극의 결과를 매우 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단지 영어가 아닌 보살핌의 언어, 지역 사회의 언어, 그리고 봉사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언어였습니다.”² 그것은 산상 수훈에서 주님께서 주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³는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신앙의 놀라운 발현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소녀를 살해한 그 우유 배달원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암만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지역 사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은 여러분이 보여 주신 용서, 호의, 그리고 자비로 인해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저희 가족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치유를 가져오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기도, 꽃다발, 카드, 그리고 선물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은 저희 가족과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 저희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암만교 이웃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들의 앞날에 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다시 추스려 나가는 동안 모든 위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희망과 신뢰를 둘 것입니다.”⁴

모든 암만 교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용서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성품 중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라보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암만고 신도들에게 생존한 다섯 명의 소녀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죽은 다섯 명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성금을 보냈습니다. 암만 교도들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암만 교도들은 그 성금의 일부를 우유 배달원의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이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암만 교도들의 경우와 같이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폭행 당하거나 살해당했다면, 우리 대부분은 용서에 관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족에게 상해를 가한 누구에게든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바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가치관의 실현이라는 주제에 관해 권위자로 알려진 시드니 사이몬 박사는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용서를 훌륭하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원한을 부여잡고 분노를 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힘의 재발견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⁵

우리 대부분은 고통과 상실을 극복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뒤로 미루는데 필요한 갖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는 화평과 행복을 잃게 만듭니다. 오래된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원한을 품고 살며,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기 있게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며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는 암만 교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뢰를 가졌을 때 좀 더 쉽게 옵니다. 그러한 신앙은 “사람들이 최악의 인간성을 참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은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⁶

우리 모두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경험으로 인해 생긴 상처로 고통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들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 생에서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 중 어떤 것에 대한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하워드 터블류 헌터 회장님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⁷라고 말씀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최소한 우리의 고통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심오한 통찰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필멸의 존재 위에 올 수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은 주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소수에게만 임합니다. ...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경험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⁸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긍심과 행복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몇몇 연구조사에서는 용서하기를 배운 사람들이 “덜 성내고, 더 희망적이며, 덜 낙담하고, 덜 걱정하며, 그리고 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로써 육체적으로도 더 높은 건강 수준을 누린다고 합니다.⁹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용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선물”¹⁰이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 그런 후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필수적인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¹¹

고통스러운 이혼을 경험했던 한 자매는 감독님으로부터 훌륭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에 용서를 위한 자리를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으십시오.”¹² 암만 교도들에게 “용서는 [그들] 종교의 ‘진실에서 우러난 요소[이기]”¹³ 때문에 이미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그들의 모범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승고한 표현입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도 1985년, 스티븐 크리스텐슨 감독이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그의 목숨을 앗아갈 목적으로 설치된 폭탄에 잔인하고 무분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맥 크리스텐슨 부부의 아들이었고, 테리의 남편이었으며 네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저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 이후에 언론에서는 크리스텐슨 가족들 근처를 어김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 언론매체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그 가족의 일원을 성나게 하여 스티븐의 아버지인 맥이 그를 제지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맥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이 우리의 가족을 파멸시

키게 될 거야. 원한과 증오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거야.” 치유와 평화는 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분노를 없애버렸을 때 왔으며, 그들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곳 유타에서 신앙과 용서가 낳은 치유의 힘을 보여준 두 가지 다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게리 세란은 성탄절 전날 밤 트럭이 그의 차에 충돌하는 바람에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기사에 대한 용서와 염려를 즉시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2월, 크리스토퍼 윌리엄스 감독의 차에 다른 차가 충돌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의 결정은 치유의 과정이 지체되지 않고 시작될 수 있도록 사고를 낸 운전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¹⁴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데는 큰 겸손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감정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미움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¹⁵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¹⁶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서 미움과 비통함을 없애버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암만 교인들, 크리스티안 가족, 세란 가족, 그리고 윌리엄스 가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없으므로”¹⁷ 강력해진 범죄로부터 사회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용서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¹⁸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정의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한 후,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 일을 잊고 우리



의 마음을 비워 점점 커지는 분노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소중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노, 악의, 또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던져버릴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¹⁹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속죄로 인한 평화와 위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의 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오, 네가 나에게 용서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²⁰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²¹는 구주의 훈계에 따를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Joan Kern에서, “A Community Cries,” Lancaster, *New Era*, 2006년 10월 4일, A8쪽.
2. Helen Colwell Adams에서, “After That Tragic Day, a Deeper Respect among English, Amish?” *Sunday News*, 2006년 10월 15일, A1쪽.
3. 마태복음 5:44.
4. “Amish Shooting Victi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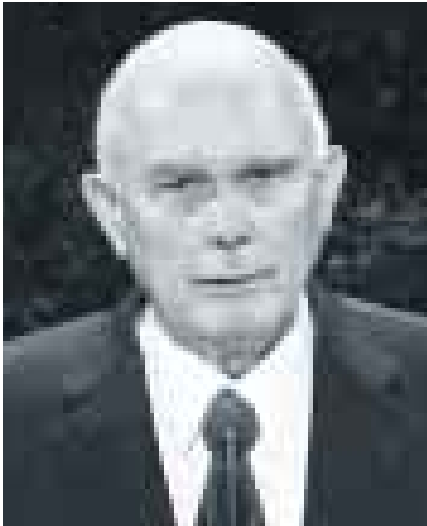
www.800padutch.com/amishvictims.shtml.

5. With Suzanne Simon, *Forgiveness: How to Make Peace with Your Past and Get On with Your Life* (1990), 19쪽.
6. Marjorie Cortez, “Amish Response to Tragedy Is Lesson in Faith, Forgiveness”, *Deseret Morning News*, 2007년 1월 2일, A13쪽.
7. “The Opening and Closing of Doors,” *Ensign*, 1987년 11월호, 60쪽.
8.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345쪽.
9. Fred Luskin, in Carrie A. Moore, “Learning to Forgive”, *Deseret Morning News*, 2006년 10월 7일, E1쪽.
10. Jay Evensen, “Forgiveness Is Powerful but Complex,” *Deseret Morning News*, 2007년 2월 4일, G1쪽.
11. 교리와 성약 64:9~10.
12. “My Journey to Forgiving,” *Ensign*, 1997년 2월호, 43쪽.
13. Donald Kraybill, Colby Itkowitz에서 “Flowers, Prayers, Songs: Families Meet at Roberts’ Burial”, *Intelligence Journal*, 2006년 10월 9일, A1쪽.
14. Pat Reavy, “Crash Victim Issues a Call for Forgiveness”, *Deseret Morning News*, 2007년 2월 13일, A1쪽 참조.
15. 교리와 성약 64:10.
16. Orson F. Whitney, *Gospel Themes* (1914), 144쪽.
17. 알마서 42:25 참조.
18. *Deseret Morning News*, 2007년 2월 13일, A8쪽.
19. 조성, 마태복음 6:13.
20. “Reverently and Meekly Now”, *영어 찬송가*, 185장.
21. 교리와 성약 64:10.

이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훌륭한 결혼 생활이 완벽한 남자나 완벽한 여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결혼은 단지 완전을 향해 기꺼이 함께 노력하고자 결심하는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혼에 관해 말씀 드려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혼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혼의 피해자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자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혼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혼을 결혼 생활로부터의 필수적인 탈출구로 여깁니다. 이런 저런 면에서 이혼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든 간에 복음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족 관계에 이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I.

우리는 결혼의 전체적인 개념이 위협 받으며, 이혼이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부부와 자녀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결혼 생활을 보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결혼은 단지 법적으로 인정 받은 성인들 간의 사적인 관계이며, 어느 한쪽의 뜻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¹

이혼법이 없던 국가에서는 이혼 법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혼을 허락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률을 더욱 완화시켰습니다. 불행하게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현재의 이혼법 상에서는 원치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불필요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작은 집처럼 첫 번째 결혼을 “거쳐 가는 결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영속적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개념이 약화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친부모의 이혼, 혹은 결혼은 개인적인 성취를 가로막는 족쇄나 사슬이라는 통속적인 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충분한 결심 없이 결혼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달아날 자세부터 취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의 선지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 한 번의 어려움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혹독한 정죄를 받는 약”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특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²

고대에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몇몇 국가의 부족 법률에 따르면, 남자들은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부당한 학대를 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태복음 19:8~9)

승영에 필요한 결혼, 즉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갖는 결혼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부부들은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결혼은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현재 해의 왕국의 표준의 결과들을 강요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혼한 사람들이 더 높은 해의 왕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부도덕의 오점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혼한 회원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합당성에 있어서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표준에 따라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II.

이혼은 했지만 훌륭한 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자, 즉 이전 배우자가 끊임없이 성스러운 성약을 어겼거나 장기간 동안 결혼 생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절했던 회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대를 경험한

회원들은 이혼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의 불씨가 꺼지고 소생활 희망이 없을 때, 그 결혼을 끝낼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러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결혼을 하고 이틀 후, 남편은 자신의 어린 아내를 버리고 십 년 이상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기혼 여성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 그곳에서 이혼절차를 밟았지만, 뒤에 남겨진 남편은 필리핀 법에 따라 여전히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 나라에는 이혼 조항이 없으므로 무고하게 버려진 이 희생자들은 결혼한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파국을 맞게 된 부분적, 혹은 주된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혼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알며 속죄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과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희망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III.

이제 결혼한 회원들,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결혼 생활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이혼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종종 이혼의 원인은 성격 불화가 아니라 이기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별거가 아니라 개심입니다. 이혼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보통의 경우에 그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마음의 병을 안겨 줍니다. “인생의 중대사” 전후의 행복지수에 관한 한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 이후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 보다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에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³ 종종 이혼이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배우자들은 그 반대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이혼 후에 뒤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혼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부모들의 관심사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혼의 첫 희생자로 만듭니다. 가족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복리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쇠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혼 생활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불안정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줄이기 때문입니다.⁴ 우리는 이혼 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마약과 알코올 남용, 성적인 무절제, 학업 성취 부진 및 여러 종류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혼 문제가 있는 부부는 감독을 찾

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판사로서 감독은 권고해 줄 것이며, 치유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줄지도 모릅니다.

감독이 회원들에게 이혼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있어서 결혼 생활은 인간의 목숨처럼 소중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가망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후기 성도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2007년 4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라는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⁵ 소위 말하는 “성격 불화”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행하며, 서로의 필요 사항에 민감하고, 항상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 재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쪽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쪽이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느끼는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처 입은 배우자는

현재의 실망과 과거의 좋았던 점들, 미래의 밝은 전망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쌓아 두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결혼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용서는 신성합니다. (교성 64:9~10 참조)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듯이 잘못을 용서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님의 영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이룬 결혼 생활로 치닫고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죄에서 오는 도움과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 간구하면 여러분은 주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부부간의 화합이라는 정상에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권고를 하는 일에 폭넓은 경험이 있는 어느 현명한 감독의 다음과 같은 고찰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결국 이혼하게 된 사람들에게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부 또는 개인들은 이혼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만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우자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책임만 지려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과거사라는 짐을 길가에 내려 놓고 전진하려 하지 않고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심각한 죄가 관련되어 있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였으며, ‘남편은 더 이상 제 필요 사항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또는 ‘아내가 변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했으나 항상 결론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싸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안 좋아요.’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감독의 권고를 따르고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부부들은 더욱 밀접한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석하며,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로의 다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의 능력과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인내했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감독은 상담했던 부부들이 회개하고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을 때, “100퍼센트 치유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가 불행한 결혼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증거는 없다. 이혼을 피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세 명 중 두 명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⁶ 여섯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참기 힘든 결혼 생활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한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세 명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주님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우리 중 두 명이 버틸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여진 희망의 힘은 회개와 개심으로 보상받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설물이나 다른 중독성 있는 행동, 혹은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로 인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결과들로 괴로워하는 배우자를 사랑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의 경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 관계의 축복에서 배척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어린 아곱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을 때 아버지 리하이는 아곱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나파이후서 2:1~2)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대회에 참석하는 부부

IV.

마지막으로 저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고 가학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사람과의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잘 알아 보십시오. 그저 함께 “어울리”면서, 혹은 인터넷 상의 정보 교환을 통해 발전된 관계는 결혼을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트를 한 후 조심스럽고 사려깊으며 신중한 구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비 배우자의 행동을 살펴보고 지켜볼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는 곧 함께 하게 될 가족들에 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훌륭한 결혼생활이 완벽한 남자나 완벽한 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훌륭한 결혼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완전을 향해 기꺼이 함께 노력하고자 결심하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 소망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 이] ... 희생과 나눔,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의 축소마저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

랫동안 힘들게 절약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정적 부담, 봉사의 부담, 그리고 보살핌과 걱정이라는 부담을 가져다주는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깊고 감미로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⁷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 선언문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⁸ 기초를 세웠을 때 오는 결혼과 가족 생활의 감미로움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영원한 가족이라는 가장 고귀한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Bruce C. Hafen, *Covenant Hearts* (2005년), 37~39쪽; Allan Carlson, *Fractured Generations* (2005년), 1~13쪽; Bryce Christensen, *Divided We Fall* (2006년), 44~45쪽 참조.
2.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에서”, 1969년 4월, 8~9쪽; 혹은 “Structure of the Home Threatened by Irresponsibility and Divorce”, *Improvement Era*, 1969년 6월, 5쪽.
3. Richard E. Lucas, “Adaptation and the Set-Poi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Does Happiness Change after Major Life Even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7년 4월, www.psychologicalscience.org에서 볼 수 있음.
4. Jean Bethke Elshtain and David Popenoe, *Marriage in America*, Bruce C. Hafen, “Marriage and the State’s Legal Posture toward the Family,” *Vital Speeches of the Day*, 1995년 10월 15일, 18쪽에서 인용; 또한 *Marriage and the Public Good: Ten Principles* (2006), 24쪽 참조.
5. 제임스 이 파우스트,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2~6쪽.
6. Linda J. Waite 외 *Does Divorce Make People Happy?*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2002), 6쪽; 또한 *Marriage and the Law, A Statement of Principles*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2006), 21쪽에서 인용된 학술 연구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 194쪽.
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구주와 그분의 후기의 사업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강력한 렌즈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197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한 상태였고, 수많은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진 듯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든 비 힝클리 장로님께서서는 아시아에서 온 한 젊은 해군 장교를 만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미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교회에 대해 배웠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모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그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의 민족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독교인, 특히 물론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교의 어두워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족은 실망하겠죠. ... 저의 미래와 경력에 있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겠습니까?”

눈물에 젖은 어두운 눈빛을 한 그는 이런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예, 참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장교는 다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¹

여러 해를 지내오면서 저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적절한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있는 이 대업은 참됩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너무도 잘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신앙이 있고 선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참됩니다. 성전에서 맺은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갈”² 때에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사지”³가 되는 것이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스물한 살의 청년으로서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학업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으며,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일 자리도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특별한 젊은 숙녀가 저와 사귀어 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도 알아내야 했으며, 또한 저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많은 일 중에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습니까? 우리는 관점을 단순하게 만들고 순화시킵니다. 어떤 것은 악하며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며,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⁴

신앙은 느낌일 뿐만 아니라 결심입니다. 기도, 연구, 순종, 그리고 성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쌓고 견고히 합니다. 구주와 그분의 후기의 사업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강력한 렌즈가 됩니다. 옥스 장로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리할 때 인생에 따르는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확신에 의해 고무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지식 때문에 자신을 단련시킵니다.”⁵

우리는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확신으로 충분히 고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이러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 케이씨는 제 딸 내외가 집을 비운 동안 손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살배기 손자가 그의 남동생을 세게 밀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달랜 후에 아내는 네 살짜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밀었니?” 손자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의반 반지를 잃어버려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변명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확신을 전 세계 각 나라와 문화권에 속한 후기 성도들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왕국의 대업이 전진해 나가도록 해줍니다.

오래 전에 아내와 저는 프랑스에서 한 용기 있는 자매님을 만났는데, 당시 그녀의 남편은 3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네 명의 어린 자녀를 의롭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은 너무 벅찬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세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쳤고, 딸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브라질의 한 형제님은 16세 때 교회로 개종했으며 가족 중에 유일한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부모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으며, 그는 감독의 집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합니다. 그는 현재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고, 구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는 그가 형제들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한 형제를 아는데, 그는 침례 받은 후에 십일조를 정직하게 낼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은 하지 않는데도 세금을 온전히 납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정직함에 대해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희생이 소리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책임을 미루지 않는 귀환 선교사들, 자녀 갖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데 삶을 바치는 의로운 여성들, 영을 해치는 대중 매체와 인터넷의 영향을 신중하게 제한하는 가족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녀들 역시 이러한 신앙의 렌즈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서울에서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바쁜 학교 일 때문에 매일 밤 늦게 귀가하지만 새벽 여섯 시에 하는 세미나리에 일주일에 다섯 동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덟 살짜리 야구 선수는 팀의 가장 우수한 선수이지만, 결승전이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고 코치에게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많은 소리 없는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⁶

저는 이 복음이 참되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겠습니까?”, *성도의 빛*, 1993년 10월호, 4쪽; “The True Strength of the Church”, *Ensign*, 1973년 7월호, 48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45:9 참조.
3. 교리와 성약 65:2.
4. 요한복음 17:3.
5. *성도의 빛*, 1993년 10월호, 4쪽.
6. 마태복음 6:33.

몰몬경에서 얻은 교훈

비키 에프 마쭈모리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일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이 책에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몰몬경이 초등회 노래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영원한 교훈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힐라맨의 용사에 대한 노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어려서 배우리나”¹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나”²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났을지도 모르나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 못한 일세대의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받았던”(앨마서 56:47) 힐

라맨의 용사 같은 자들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로 성장한 그들의 부모 암몬 백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암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암몬, 아론 및 다른 이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레이맨인이었습니다.(앨마서 23:1~4 참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레이맨인들은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으로 불리었으며, 후에 암몬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앨마서 23:16~17, 27:23~26 참조) 이 암몬 백성의 아들들은 개종하지 않은 레이맨인들과의 전투를 도운 힐라맨의 용사들이었습니다.(앨마서 56:3~6 참조)

힐라맨의 용사들의 힘은 사실 암몬 백성이었던 그들의 부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통해 복음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에 관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처음 성약을 맺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일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일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경전

위대한 선교사였던 아론은 레이맨인 왕과 암몬 백성들에게 신앙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경전을 사용했습니다.(앨마서 22:12~14, 23:4~5 참조) 오늘날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유혹을 이기

는 데 도움을 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나 경전을 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 과제일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침대 때 몰몬경을 읽으려고 처음 시도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니파이전서 1:1) ... 흥미로웠습니다. 이사가 장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몇 달 뒤 다시 몰몬경을 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이사가 장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 마침내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³

그리고 물론 패커 회장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열쇠입니다. 매번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낯선 단어들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웅들과 용감하고 위대한 행동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기도는 신앙을 쌓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레이맨인 왕은 복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앨마서 22:16~17) 우리 역시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스탠리는 홍콩에 사는 19살의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매우 사랑하시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여쭙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먼저 한 선교사가, 그 다음에 그의 동반자가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 스탠리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겸손한 기도를 마치자 선교사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탠리 형제님, 어떤 느낌이 듬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속삭이듯이 대답했습니다. “침례요, 침례.”⁴

성약

마지막으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신앙을 증진시킵니다. 암몬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성약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요한복음 14:26)을 가르쳐 주는 분은 성신, 곧 보혜사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자매는 열여섯 살 때 선교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영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치 제 눈에서 봉대를 풀고 주님께서 제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기도는 다음 시편, 즉 제가 아버지와 맞서는 일을 극복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침례를 반대했을 때, 주님의 영은 이렇게 속삭이며 저를 강하게 해 주었어요. ‘계속해. 계속 나아가. 너로 인해 네 친척들 중 일부가 교회 회원이 될 거야.’”⁵

경전, 기도,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암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저를 포함해 전 세계에 있는 일세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났지만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제게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행동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비회원인 아버지가 교회 모임에서 할 제 첫 번째 말씀 원고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정적이었고 신앙 개조 제13조를 인용하는 대신에 정직한 에이브러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한 남자의 모범을 인용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의 교훈을 가르친 분들은 초등학교 교사들, 청년 지도자들, 신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일곱 살이었을 때, 유년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쳤고, 저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십일조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십일조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겨우 일곱 살이었기 때문에 금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침례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 회원이 되신 저의 훌륭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됨

암몬 백성들은 복음대로 살았고, “그들이 ...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습니다.

암몬 백성들이 복음에 충실하기 시작했듯이 우리부터 복음에 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을 얻은 일 세대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실에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합

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의 힘을 가르쳐야 하고, 성약을 맺고 지키므로써 오는 축복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어려서 배우리니
세상에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 될 테야*”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93쪽.
2. *어린이 노래책*, 92~93쪽.
3.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2월 10일,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3쪽.
4. 개인 서한.
5. 개인 서한.
6. *어린이 노래책*, 92~93쪽.

알고 계십니까?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칠십인

저는 여러분께 “제 말을 시험”해 보라고 권고드립니다.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대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엘 마 전 저는 16세의 한 훌륭한 청년과 기분 좋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참되다고 믿고, 다른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교회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알

고 계십니까?”

세계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은 열한 살이었던 저를 부모님께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에 데리고 가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했던 놀이는 공짜 물건 모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방면에 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공짜예요?”라고 묻고는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열한 살짜리 손을 뻗어서는 “고맙습니다. 저것도 공짜인가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건 5센트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아, 너무나 읽고 싶었던 팸플릿인데! 근데 돈이 없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을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1948년식 시보레 자동차 안에서 홀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견디기 힘든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자포자기한 저는 좌석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저의 공짜 수집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의 경험담 (Joseph Smith Tells His Own Story)*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고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다 읽은 후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의 증거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부모님, 누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닌 오로지 저와 성신의 영만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간증을 얻으려 할 때 교회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느낌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개종자들이 자신의 개종에 관해 간증하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 간증이 그들에게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처음 느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 청소년 간증 모임, 세미나리, 경전 읽기 및 기타 여러 경험을 통해 평생 그와 같은 느낌을 경험해왔습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들이 성신을 느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심도 깊고 영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토론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잠시 멈추고, 형제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님은 우리가 형제님이 읽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형제님은 평화와 성신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총명한 여성을 가르쳤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비논리적인 부분을 모두 매듭짓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낌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니고 있던 논리적 의문점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15년이 흐른 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템플스퀘어에 데리고 갔습니다. 구주의 동상으로 향하는 나선형 통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울음 섞인 목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또다시 저를 감싸네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 가슴은 여전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껴 본다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영의 증거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교사, 지도자로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규칙과 계명을 이해시키는 방면으로는 유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리와 교리에 대한 간증을 언도록 돕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자주 멈추어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게 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증가될 것입니다. 금세 여러분은 잘못 인도될 수 없는 영적인 육감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한 살의 나이에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보는 것, 혹은 그와 비슷한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했습니다. 저의 영적인 감각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오직 성신이 역사할 때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영의 증거하심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은 장미의 향기나 새의 노랫소리 혹은 아름다운 절경을 묘사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이러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교리와 성약 11:13~14)

종종 그 느낌은 기억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이 복음에 대해 처음 배웠습니다. 망각의 휘장을 거쳐 이 지상에 왔지만 우리 모두



의 영에 숨겨진 기억 속에는 전세에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신은 그 휘장을 젖히고 잠자고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새로이 발견했다고 간주하는 진리에 대해 “맞아, 기억나는걸!”이라고 반응합니다.

“... 보혜사 곧 ... 성령[이] ...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청남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 말을 시험(앨마서 32:27)해 보라고 권고드립니다.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대해 읽고 기도하십시오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았을 때 동반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을 열한 살 때 얻었으며, 이제 성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것이 진리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분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경의 기적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을 통해 밝혀 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참되고 충실한 자들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기적입니다! 4,000년에 이르는 종교적, 세속적 역사가 선지자와 사도, 영감 받은 성직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고 또 보존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힘찬 교리와 원리, 시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과 말씀이 중세 암흑기를 거쳐 수많은 세대에 걸친 분쟁 속에서도 보호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개종과 그리스도의 치유의 영을 그 페이지마다 담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구주를 찾도록 인도하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기에 성스럽고, 그 영으로 감동을 주기에 성스러우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에 성스럽습니다. 또한 그것은 페이지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성스럽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책은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선한 것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Speeches and Writings, 1859~1865* [1989], 628쪽)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어쩌다가,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보았던 성스러운 것과 그들이 듣고 말했던 영감에 찬 말씀을 모두 기록하도록 영에 의해 고무되었습니다. 다른 헌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록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용감한 윌리엄 틴데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와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출판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킹 제임스판 성경을 만들었던 제임스 왕의 학자들조차도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 영적인 속삭임을 들었다고 믿습니다.

암흑기는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

와 선지자들이 없었고,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을 비밀스럽게 감추었고 사람들이 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경전의 대중 보급을 요구했던 마틴 루터, 존 칼뱅, 얀 후스와 같은 용감한 많은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에게 우리는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의 권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고 논의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누구나 그 즉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04년, xv])

성경을 정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세에 관해 알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비록 이러한 초기 기독교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의견일치를 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리의 여러 핵심 사항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적 자유의 초기 옹호자였던 로저 윌리엄스는 지상에는 “정연하게 설립된 교회도 없고, 교회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지닌 사람도 없으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 되시는 분이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시기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도 아닐 것이다.”(*William Cullen Bryant 편, Picturesque America; 또는 the Land We Live In, 제2권* [1872~1874], 1:502 참조)라고 결론짓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성경에 담긴 진리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인도해 줄

것이 성경 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집집마다 성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한 집의 응접실에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가족화로 주위에서도 읽혀졌습니다.”(존 에이 윌소, Conference Report, 1939년 4월, 20쪽)

수백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족들 중 하나가 1800년대 초에 뉴욕 주 북부에 살았던 조셉 스미스 일세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조셉 스미스 이세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은 종파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직하신 교회와 같은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더 많은 영적인 빛과 지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경전에 약속된 지혜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조셉은 1820년의 이른 어느 봄날 무릎 꿇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나타내심을 보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는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것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교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신권에 대해 배우고 초기 시대에 그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하셨던 그 조직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것과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신권을 갖고 완전하게 지상에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초기 시대의 그분의 교회에 관해 알지 못했을 것이며, 현재 그분의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르침과 교훈과 영을 사랑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설득력 있고 심오한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사랑합



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여행과 기적, 그리고 바울의 서한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과 속죄에 대한 증인들의 기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내적인 안목과 평안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몰몬은 자신들만의 성경인 몰몬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한 우리 구원의 근원으로 믿으며, 성경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몰몬경을 포함하여 거룩한 경전을 추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경전이 지 결코 성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 이해하려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줍니다. 경전에는 역사, 교리, 이야기, 설교 및 간증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육체적, 영적 사명에 궁극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모든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 유익하다”(디모데후서 3:16)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다른 경전들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들 중 하나요,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구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그 가르침을 읽고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교리적 토대를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경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그 가치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하고 신성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경전을 더한 것보다 수백 페이지 이상을 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계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믿음도 비판하거나 알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큰 책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아들과 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몰몬경은 성경을 희석시키지 않

며, 그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몰몬경은 성경을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들어올려 줍니다. 몰몬경은 성경에 대해 증거하고, 두 경전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약은 성경의 구약전서이며 그것은 구주의 오심, 그분의 승고한 생애, 그리고 그분의 자유케 하는 속죄에 관해 예견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약은 성경의 신약전서로서, 이것은 그분의 탄생과 생애, 성역, 그분의 복음과 교회, 속죄, 그분의 부활 뿐 아니라 그의 사도들의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성약은 몰몬경으로서, 이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이끄는 속죄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확인해 주며, 그런 다음 주님께서 부활 하셔서 지구의 다른 한 쪽인 서반구를 방문하신 사건을 말해 줍니다. 모든 몰몬경 표지에 인쇄되어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해 주는 부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이들 세 경전 모두는 각각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위대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온전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에는 영생을 취하기에 합당하기 위해 말씀

을 흡족히 취하라는 권고를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1:20 참조) 어느 한 성약이 다른 성약들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참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대 정통 경전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와 그 이름의 의미, 그 메시지의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이 교회의 믿음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입장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로 인해 곤혹스럽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여기 이 건물에서 있었던 지난 연차 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의 200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께서 신약시대에 세웠던 그 교회와 같이 조직되고 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늘 연단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을 통해 밝혀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참되고 충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교훈을 따르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속죄이며, 경전이 그 메시지의 원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와서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모든 것을 나누자고 권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부여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사업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지난 49년 동안 연차 대회에서 200회가 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97세입니다. 바람이 불고, 저는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같이 느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온갖 소문과는 달리 제 건강은 양호합니다. 유능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제 건강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나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몇 가지는 압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성직자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325년에 당시의 저명한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을 니케아로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나 논쟁만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자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신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신조의 기본 요소들은 대부분의 충실한 기독교도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신조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인간이 만든 성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은 조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즉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그분들의 면전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각기 다른 개체였습니다. 그가 모친에게 모친의 교회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위대한 일반적인 교리들 중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한 분의 개체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던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엘마서 37:37)

제가 두 번째로 확신하는 것 역시 선지자 조셉의 시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1~3)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유의하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계명을 쓴 것은 그분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왕궁을 떠나 지상에 오셨으며 가장 초라한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짧은 성역 기간 동안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사셨던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위대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은 폭도들



에게 잡히셨으며,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 가운데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누가복음 23:34)라는 말과 함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삼 일 후,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에게 말했고,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50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압니다.(고린도전서 15:6 참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은 서반구의 풍요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동반구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신 것같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 물론

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가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간증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 없이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필멸의 삶은 미래에 있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경감됩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확실한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신권에는 두 가지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라고도 알려진 소신권은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더 높은 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될 때 부활한 침례 요한은 손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중들이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1)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그의 노년기에 교회의 청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제사이건 사도이건 상관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을 위한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칠십인으로서, 또는 장로로서 저는 제 생애에서 제사의 직분을 지니고 있던 때보다 주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아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Millennial Star*, 1891년 10월 5일, 629쪽)

멜기세덱 신권 곧 대신권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병자를 축복합니다. 신약전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

회복의 메시지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야
고보서 5:14)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대의 복
음의 회복과 더불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수를 늘리고 있는 이
성전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줍
니다. 이 거룩한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영원한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
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됩니다. 결혼은 “죽음이 [우리를 갈
라놓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은 부부가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생
활한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
장 훌륭한 것은 주님의 집에서 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곳에서는 살아 있는 동
안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을 대신하여 의식들이 집행됩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다호폴스에 있는 한 미망
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이상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20,000명을 위
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는 대리인으로 활동했
습니다. 그녀는 금요일에 그녀의 20,000번째
엔다우먼트를 마쳤고, 다섯 명의 엔다우먼트를
더 받기 위해 토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 여성이 한 일을 생각해 보
십시오. 그녀는 오늘 아침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 있는 수만명의 사람들을 위해 대리 엔다
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영의 세계에서
마땅히 받았을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드리는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후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
과 사랑이 가득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앙과 기도가 있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솔 트레이크 계곡에서 열린 한 스테
이크 대회에서 임무를 받은 저는
신권의 열쇠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 집사 정원회의 어린 회장을 참석하도
록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신권 정원회를
감리하는 열쇠가 포함된 매우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우
리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책임이며
정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
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발표를 마
치면서 저는 그에게 그의 정원회에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열네 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활동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열두 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명
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정원회에서 활
동화 되도록 제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3개월쯤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노력하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저는 그에게서 이제 그
의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활동적임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한 명은 현재 집사 정원회 모
임에 참석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감독님에
의해 교사에 성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 답장에 몹시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성취하라고 맡기
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권의 열쇠를 사용
하는 얼마나 훌륭한 예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여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관리하도록 제정하신 계획에 놀라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열네 살이 되지 않은 이 청년은 일생
동안 할 봉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값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6년 후에 이 형제가 양복에 명찰을 달고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2



대회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유타 템플스퀘어 선교부 자매 선교사들

년 동안 이와 같은 봉사를 계속하고 있을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경험 외에도, 이 청남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 즉 오늘날 온 세상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기꺼이 귀 기울이고 순종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시현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채 열다섯 살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소년이 종교에 관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의 답을 기도를 통해 얻고자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본 매우 특별한 시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시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이 시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기 별개의 개체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두 분은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셨으며, 따라서 수세기 동안의 하나님의 개념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일소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신앙개조 1조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1:1)라고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몬경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해 의혹, 불신, 그릇된 소문이 곧 뒤따를 것을 아신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을 출현시키셨습니다. 이 기록한 고대 경전은 성경의 성스러운 동반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또한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세상에 확신시키는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물몬경의 출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계명을 주셨고,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 높은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물몬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니,

“물몬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느니라.

“또 이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된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세상에 선포된 것이라-

“이는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니,”(교리와 성약 20:7~11)

물문경의 번역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며 게다가 그 책의 신성한 기원을 입증해 줍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기 위해 1829년 4월 5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도착했을 때, 겨우 몇 쪽만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셉과 올리버는 함께 앉아 밤 늦게까지 선지자의 경험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후인 4월 7일에 그들은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조셉은 놀라운 속도로 번역을 하여 대략 500쪽이나 되는 분량을 거의 60일만에 끝냈습니다.

올리버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 받지 않고 ‘물문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록을 ... 우림과 듄뎀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 적었다.”(Messenger and Advocate, 1834년 10월, 14쪽;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참조)

신권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을 계속하는 동안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교리에 놀라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구에 있는 주민들을 방문하시는 동안 가르치신 침례의 교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례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면 자신들도 침례 받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주님께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29년 5월 15일, 그들은 사스캐하나 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리버는 당시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돌연 마치 영원 가운데서



온 것같이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전해 주었다. 얼마나 기뻐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세상이 고통을 당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동안-수백만의 사람들이 앞 못 보는 자처럼 벽을 더듬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부वाद 같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보았고, 우리의 귀는 들었으니”(Messenger and Advocate, 1834년 10월, 15쪽;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참조)

그 천사는 자신이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으로 불리는 바로 그 요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

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하였다.-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69~71)

얼마 후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이 두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지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이 있게 되었고, 조셉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1830년 4월 6일에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먼저 침례를 받은 여섯 명이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 일컬음을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이를 쌓아 올릴지



니라.

“이 교회는 너희 주의 일천팔백삼십년 넷째 달 곧 사월이라 하는 그 달의 여섯째 날에 조직되고 설립되었느니라.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교리와 성약 21:1~5)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주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고대에 제정하신 계획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1~15)

힉클리 회장은 회복에 관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은 아버지와 이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3쪽)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수 있는 권능과 더불어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분께서 공표하신 구원의 의식들은 이제 그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봉의 권세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후기라고 말한 그날임을 온 세상에 선언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오시기 전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런 메시지와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는 메시지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어떤 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후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비극을 피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님”을 의미하는 “언젠가”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언젠가는 그를 용서할 거야.” “언젠가는 내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언젠가는 십일조를 낼 거야.” “언젠가는 성전에 다시 갈 거야.” “... 언젠가는.”

경전은 미루는 것이 위험함을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나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 보실 것입니다. 장차 언젠가 회개하고 그분을 섬기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과거에 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통곡할 것이며 그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생각은 현재에 주어지는 기회와 영원의 축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에는 엄중한 경고와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옵니다.”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느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¹

또한 앰울레크는 우리가 회개와 봉사를 미루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와 함께 이런 희망도 줍니다. “또 이를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의인들은 그의 나라에 앉아,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회개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신 연고니라.”²

경전에는 살아 있는 날을 소중히 여기고 정결해질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한 하나님의 현명한 종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³

그분을 섬기게 되면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신은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가 없으신 구주조차도 미루지 말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⁴

부활하신 구주이신 그분은 현재와 영원히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섬기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⁵

이것은 전 생애에서 그렇듯 매일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자 아침에 기도드리고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매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처럼 유순하게 간구하고 상고하며, 보잘것없는 봉사라도 즉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쉬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 전 영의 세계에서 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용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서 유혹에 맞설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쉽지 않아도 충실하게 순종하면 해낼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에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⁶

그 시험의 어려움 못지 않게 우리의 기쁨도 컸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세상에 오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한 속죄의 수혜자가 될 자격을 갖출 때 그분은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도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결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위안이 되는 요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요건, 즉 권세에 의한 침례를 받고, 권세를 가진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을 동반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겸손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뛰어난 지성과 재산,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오도록 할 것이며, 시험이 어렵고 미루려는 유혹이 클 때 우리를 도울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⁷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비극을 피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느낌 때문에 미루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느낌들은 상극을 이룹니다. 하나는 이미 행한 것에 대해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해야 한다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이 많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 미숙한 청소년들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짧은 시간에 비해서 이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청소년이 영적인 것들의 중심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며, 친구들의 영원한 장래가 여러분이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친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두신 하나님은 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리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성인도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오래 잘하면 할수록 사탄은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넌 실 때가 된 거야.” 여러분은 작은 지부에서 초등학교 회장을 두 번씩이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선교사로 오래 열심히 수고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 최초로 입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 텐데? 내 역할은 끝났어.” 여러분은 언젠가 다시 봉사하면 된다는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의 연로한 종들 중 한 분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충실한 수고와 질병으로 쇠약해졌고 기력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저는 제가 주님의 일로 여러 국가를 다니며 수많은 모임을 갖고 많은 개인적인 접견을 통해 개인과 가족들을 도운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에게 표했던 감사와 그가 여러 해를 봉사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곧 해야 할 다른 임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곧 있을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며 제 팔을 잡았을 때, 그분의 말씀이 끝없는 자기 만족을 원했던 저를 거기서 벗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속죄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격이 되었는지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위해 얼마 동안 더 봉사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의 날이 연장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는 시험의 상태가 되었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그들의 때가 길어졌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음이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잃은 바 되었음을 보여 주셨음이라.”⁸

주님이 주신 이 다짐의 말씀은 자신의 처지로 위축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에도 기도할 힘이 있는 한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도움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음을

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 침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굶주린 자를 도우러 가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곤과 하루의 고된 노동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돈이 더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 성령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면, 때가 될 때 여러분은 해야 할 일과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로 낙담하여 오늘 주님께 봉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어렵게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봉사하기로 한다면 다음날에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는 항상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짐을 나를 새 힘을 받고 새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래 전에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 여러분의 약점과 슬픔을 겪으셨으므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오늘 그분을 섬기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이며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성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 너희를 부를 음성과 또한 그가 너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 바라노라.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⁹

오늘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은 그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사랑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 받기를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은 자기 만족과 낙담을 털어버리고 다시 그분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음의 말씀이 기억날지도 모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¹⁰ 저는 오늘, 매일, 아니 평생 동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시며, 오늘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쪽을 택할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열마서 34: 33~34.
2. 열마서 34: 36.
3. 여호수아 24:15.
4. 요한복음 9:4~5.
5. 잠언 8:17.
6. 아브라함서 3:25.
7. 열마서 7:11~12.
8. 니파이후서 2:21.
9. 모사이야서 5:12~13.
10. 마태복음 25:21 및 23 참조.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
철십인

저는 회복된 교회로 개종한 이후, 참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게 된 지극히 운 좋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을 기립니다. 교리상으로 큰 다양성을 보이는 기독교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한 선교부 회장의 딸인 열네 살 소녀 코트니가 새로운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그녀는 반 친구들에게서 기독교 신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흔히 말하는 몰몬이라는 대답을 듣고 놀라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녀는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다른 기독교 종파의 독실한 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직후에 그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교회에 갔고, 오랫동안 저와 저의 형제들은 일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교회를 관할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추호의 의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구주에 중심을 둔 기독교 신앙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회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후기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배웠고 그것은 제 인생, 그리고 제가 복음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공부와 기도, 신앙을 행사한 끝에 저는 이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회복된 아름다운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회복된 진리는 신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신화가 별개의 세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참된 기독교 교리가 성경 시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관해 여러 차례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¹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²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 이후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³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께서 신화에 관해 주신 얼마나 생생한 간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그의 아들 및 성신과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지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죽은 후에 잊혀졌습니다. 신화에 관한 혼란과 그릇된 교리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은 별개의 세 개체 대신 신화는 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세 분이라는 삼위일체를 공포했습니다. 기독교의 개신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인간의 신조들에 대해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배웠던 삼위일체에 관한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첫 번째 시현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접했을 때, 그것



은 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이었으며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의 본질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⁴ 이런 하늘의 시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관해 놀랍지만 평이하고 소중한 지식을 지상에 다시 회복시켰으며, 제가 삼위일체에 관해 배웠던 가르침을 단번에 몰아냈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계시가 신화에 관해 인간이 만든 교리에 담긴 엄청난 오류를 대신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주이십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후기에 인류에게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그분 교회의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양을 보살피는 선한 목자로서 얼마나 큰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구도자로서 둘째로 배웠던 진리는 추가적인 경전과 계시가 실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시현으로 한 책을 보았으며 그 책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⁵의 일부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 그 책이라고 간증드립니다. 그 책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신성한 기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밝혀줍니다. 물론경은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구주의 탄생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꿰어졌던 교회의 다른 충실한 회원들에 관해 말해줍니다.⁶ 이 책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는, 부



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짊어지려 노력하고 또한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것보다 더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기독교 세계가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⁷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1세에 물론경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참된지를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성신의 확인하는 권능으로 그 참됨이 제게

나타났습니다.⁸ 저는 물론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⁹라고 선언하는 이 신성한 책의 선지자들에게 저의 간증을 더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에, 그리고 그분이 생수로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여러분이 그 선에서 주님의 편에 머문다면, 악마가 그곳으로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접하게 되었던 복음의 회복된 또 다른 진리는 신권 권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의 회복이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의 신권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장 이른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형제들은 교회를 세우는 열쇠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을 위한 그분의 영원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¹⁰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성한 의식을 통해 구원의 열쇠들을 행사하는 참된 신권 권세로 승인된 유일한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코트니는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회복된 교회로 개종한 이후, 참된 “그리스도의 교리”¹¹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게 된 지극히 온 좋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진리들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 줍니다.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같이 지금 저는 신화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전과 계시를 갖고 있고, 신권 권세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코트니,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에 관해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3:17.
2. 요한복음 17:3.
3. 사도행전 7:55~56.
4. 조셉 스미스-역사 1:17.
5. 이사야 29:14 참조; 또한 11~12, 18절 참조.
6. 엘마서 46:14~16 참조.
7.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8쪽.
8. 모로나이서 10:4~5 참조.
9. 니파이후서 25:26.
10. 교리와 성약 2:13; 110; 112:32 참조.
11. 니파이후서 31:2; 제 3니파이 11:31~36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상을 다니며 우리를 위한 영감과 인도를 주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히클리 회장은 모세와 아브라함,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있어온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이 주신 권고와 이 대회가 끝날 무렵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지도자들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청남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왕국에서 하게 될 봉사를 위해 그토록 놀라운 재능과 능력과 잠

재력을 지닌 훌륭한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히클리 회장은 이 세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청소년 세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 여러분은 정말로 택함 받은 세대입니다.”(*Way to Be!* [2002년], 3쪽)

시온의 청소년으로서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으며,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저의 말씀이 그러한 일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52년 2월 한나 라스트 코너비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이 영국의 야머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조용하고 경건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폭도에게 둘러싸인 집을 발견했으며, 그곳을 어렵사리 빠져 나와 우리의 길을 갔다. … 물가에 이르기 전에 무리 전체가 우리를 덮쳤다. 빗발치는 돌과 고향 속에서 남편이 내게 침례를 주었다. … 돌들이 마치 굵은 우박처럼 뿔뿔거리며 우리 주위로 날아왔지만, 어느 하나도 우리를 맞추지 못했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여 기적으로 우리를 구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를 드렸다.”(Hannah Cornaby, *Autobiography and Poems* [1881년, 24~25쪽])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녀는 다음의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과연 누가?
 지금은 그것을 보여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묻는다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과연 누가?

(“Who’s on the Lord’s Side?” 영어 찬송가, 260장)

이것은 우리가 그리 자주 부르지 않는 노래이지만, 진리와 의에 대한 결의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있는 각 청년과 청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접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니파이의 아버지 리하이를 통해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늦식판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셨을 때 니파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불평했을 때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니파이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 니이다”(니파이전서 3:7)

구약의 어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목자로서 그가 어떻게 최전선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다윗은 블레셋인이었던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사들이 전장에 나오도록 자극하면서 비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 거인과 맞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접니다!”가 아니라 “저요?”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물매와 돌을 갖고서 거인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

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사무엘상 17:45~46) 이때 다윗은 소심하게 걷지 않고 도리어 거인과 맞서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신앙으로 골리앗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던 저는 여러분 같은 고귀한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유혹의 형태로 된 현대의 골리앗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과 성약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불경한 것,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부도덕, 단정하지 못한 것, 외설물, 텔레비전과 인터넷,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과 술을 포함하여 대중매체에 있는 기타 부적절한 자료들에 둘러싸일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과연 누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어린이 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에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친절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다음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인 길잡이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돕고, 사랑하며, 가르칠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살아 계신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제일회장단을 통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표준들을 지키고 경전에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더욱 큰 지혜와 기량을 갖고 인생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큰 용기를 갖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 드립니다. 성신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2001년, 2~3쪽)

저는 이 작은 책자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를 기다릴 때나 잠이 날 때, 그것을 꺼내 읽고 그 책자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행복과 평안, 자기 가치와 용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뒤따를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친절하고 현명한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시는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항상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간 후 돌아오면 부모님께 다녀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통 노크한 후 방문을 열고는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러 갔습니다. 하루는 밤에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여느 때처럼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불빛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던 천사 같은 어머니를 비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저를 지지해 주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와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이 우리의 길에 보내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하여 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을 때, 특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대체할 음악이나 성구, 좋은 시를 암기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찬송가를 암기해 줌으로써 부적절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찬송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한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왔어. 두 블록쯤 걸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애창곡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콧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야. 수백 미터를 걸으며 생각을 되짚어보다가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넜을 때 부적절한 옷차림의 한 젊은 여성이 내 앞에서 길을 건넜다

는 사실을 깨달았지.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사와 음악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부적절한 생각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거야.” 그날 제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역과 악마의 영역 사이에는 잘 구분된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에서 주님의 편에 머문다면, 악마가 그곳으로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 만일 여러분이 그 선에서 악마의 편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그의 영역에 있는 것이며 … 그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그 선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만이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118쪽)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이러한 현명한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전해줍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그러면]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45~46)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을 경계선의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음성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즉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듣게 될 때, 온 힘을 다해 “*잡니다!*”라고 대답할 준비를 갖추도록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라?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철십인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고 진실한 십일조를 주님께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십일조의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¹

십일조는 참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

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 하셨습니다.²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³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주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십일조는 “여호와와의 성물”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지 아니하나 보라”⁵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주님을 시험하지만 일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열 개의 사과를 예로 들어 봅시다. 자, 이 열 개의 사과는 사실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10분의 1, 혹은 한 개의 사과만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한 입만을 바치고 90퍼센트는 따로 챙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고작 그 작은 부분만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혹은 한 입 베어먹은 부분을 가리고 감춘 후, 그 사과를 주님께 바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물이 완전하고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⁶

몇 년 전, 저는 아이다호 캐리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트윈 폴스에 착륙했고 아주 훌륭하게 봉사했던 로이 휴버트 회장이 저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회장님이나 스테이크 성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올해의 가뭄은 특히 심해서 많은 농부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농장을 잃게 된 충실한 회원들에 대해 몹시 마음이 쓰였습니다.

젊은 감독이었던 알 스펜스 엘즈워스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요 총회를 하는 동안 가뭄으로 일어난 결과가 제 마음을 몹시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 젊은 사람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정직한 십일조를 충실히 바치십시오.
2. 겸손한 마음으로 정기적인 개인 및 가족기도를 드리십시오.
3. 헌신적으로 매일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십시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5.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성전에 가서 감사를 드리고 성전 의식을 행하십시오.
6. 새로운 지도자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하고 따르십시오.
7.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중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스테이크 차원의 금식을 하십시오.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많은 회원들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작물을 심었습니다. 수요일에 엘즈워스 회장의 지시로 전체



스테이크가 금식을 했습니다. 같은 주에 많은 회원과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배우자들은 아이 다호 보이시 성전에 갔고,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일기 예보에서 다음 몇 주 동안 건조할 것이라고 했지만,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성전에 있는 동안 전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이 되자 다시 충분한 양의 비가 왔고, 그 비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일은 4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산악 지역에도 풍부한 눈이 내려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디트리히와 리치필드에 있는 저수지에는 물이 30퍼센트도 차 있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금식 이후, 거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캐리 시의 물 공급량은 약 44퍼센트에서 정상치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물의 성장기 내내 캐리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몇 차례 더 금식하고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고 성전에 더 자주 감으로써 신앙을 키우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해에는 서리가 늦게 내려 농부들은 곡식과 사탕무, 알팔파와 감자,

그리고 기타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그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고 “친절하신 자비로 인하여”⁷ 주님은 계속 그들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역대기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⁸

완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십일조가 헝클리 회장님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를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지난 주에 있었던 청년 총회에서 “십일조는 돈으로 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신앙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금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들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¹⁰

그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목숨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10분의 1만 돌려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십일조는 고마움과 순종, 감사의 표시이며 우리의 기꺼움과 헌신에 대한 표시입니다. 기꺼이 십일조를 내는 것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꾸어줍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를 위한 날이라.”¹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고 진실한 십일조를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리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대변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성전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말라기 3:8~10.
2. 제3니파이 24:8~10 참조.
3. 교리와 성약 119:4.
4. 레위기 27:30; 또한 32~33절 참조.
5. 제3니파이 24:10.
6. 교리와 성약 64:34.
7. 이더서 6:12.
8. 역대하 7:14.
9.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16쪽.
10. “거룩한 십일조의 법”, *성도의 벗*, 1991년 5월호, 6쪽.
11. 교리와 성약 64:23.

안전한 귀환 지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로 인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회개와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귀환 불능 지점이 있습니까?

“모든 거짓의 아버지”(니파이후서 2:18), “분쟁의 아버지”(제3니파이 11:29), “모든 죄의 근원”(힐라맨서 6:30), “하나님의 원수”(모로나이 7:12)가 되는 사탄은 악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고 믿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경전에서 사탄이 “참소하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2:10 참조)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귀환 불능 지점”을 지나쳤다고, 즉 진로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시련도 있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가 가족과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삶에 큰 슬픔과 비통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려 힘쓰며,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바로 우리가 희망을 잃고, 자신과 같이 비참함을 느끼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둔 경전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안전 귀환을 위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악마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좋은 소

식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다는 사랑과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죄는 신성한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범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의 결과를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희망을 주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분명하며, 다음과 같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7)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로를 택했다라도, 죄가 귀환 불능 지점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다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높이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계획을 받았습시다. 이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위대한 계획, 자비의 계획,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필멸의 삶, 즉 시험의 시간을 포함하여 육신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 영원한 행복과 영광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교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때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심지어 앞서 세상을 떠난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고 영원한 결과가 찾아 오게 됩니다. 계획에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용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와 용서가 죄처럼 실재한다고 단호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저는 항공기 기장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동안 항공기를 장거리에 걸쳐 운항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양 위를 지나고, 광대한 사막을 가로지르고, 여러 대륙을 지나가는 비행에서 예정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직행 비행 경로는 때로 9,000킬로미터에 이르며 열네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거리 비행에는 중요한 결정 지점이 있는데, 흔히 **안전 귀환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 전까지는 항로를 돌려 출발 공항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기에 충분한 연료가 항공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귀환 지점**을 지나치면 기장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가던 방향으로 계속 운항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점을 종종 **귀환 불능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속죄의 축복과 유익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죄의 결과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이 뜻깊고 중요하지만 ... 인류 가족의 구원에서 신성하며 영원히 적용되는 회개의 원리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Gospel Ideals*, 1954년, 13쪽)

“이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 [아무에게도] 구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야서 3:12)

하지만 회개 자체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을 변경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은 아니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5:23) 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참된 회개는 “가장 어두운 밤에서 찬란한 낮”을 만들어 줍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성품, 완전함, 속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이 포함됩니다.(*Lectures on Faith* [1985년], 38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이 많고, 자비롭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과 행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게 해줍니다.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또한 권한을 지닌 신권 역원에게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야기되었을 어떤 손해라도 바로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중지하고, 옳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인생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용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속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평안을 느끼며, 우리의 죄책감과 슬픔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풍성하게 영의 영향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더 잘 준비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의 핵심은 과거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웠던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 고뇌의 눈물, 자책감, ... 두려움, 죄책감을 닦아내 주실 것입니다.”(*용서가 낳는 기적*, 324~329쪽)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죄에서 행복으로 거듭났던 선지자 엘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앨마서 41:10) 그는 죄의 쓰디쓴 고통을 겪었으나, 또한 참된 회개와 용서에 따르는 행복에 관해 고조되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 나의 기쁨같이 것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앨마서 36:21) 엘마는 말을 마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

들에게 강력하고 현명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하여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내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앨마서 42:29)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하고, 결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면 그때에 양심의 평안이 [여러분께 올 수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Law of Chastity Vital, Girls Told”, Church News, 1972년 9월 2일, 7)

일단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의 짐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이 그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성신은 성결하게 하는 분입니다. 용서에 대해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교리와 성약 6:20)

또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사탄은 죄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를 믿게 하려 애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회개와 용서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 애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가 계속 참되고 충실하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성결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앨마는 예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기억할 수 있었으나, 자신이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앨마서 36:17~19 참조)

죄스런 지난 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들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계속 지닐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13:11, 14~15)

따라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고결해지고 용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용서를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신성한 말씀에 따라 관용과 자비로 손을 뻗어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결혼 생활, 와드와 스테이크,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를 통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 또한 자신의 삶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쓰라린 느낌과 생각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고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영은 성스러운 양심의 평안을 동반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2~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장거리 제트기의 기장은 안전 귀환 지점을 통과할 때 역풍이 너무 강하거나 순항 고도가 너무 낮으면, 계획했던 목표 지점이 아닌 다른 공항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집으로 되돌아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건,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언제나 안전 귀환 지점은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기장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지인 그분께로 안전하게 데려올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로 인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회개와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은사로 인해 죄라는 불행한 진로에서 안전하게 귀환할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회개와 개심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하는 영혼은 개심된 영혼이며 개심된 영혼은 회개한 영혼입니다.



데 이비드 에스 벅스터 장로와 저는 작년에 차를 타고 스테이크 대회로 가는 도중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차로 되돌아오려는데 한 여성이 우리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점잖게 말해 “극단적”인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없이 죄의 늪에 빠졌던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스물여덟 살인 그녀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간청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절망 속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매님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¹ 우리는 그녀에게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² 그녀는 낮아진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벅스터 장로와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론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에게 주었던 권고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³

이제 연차 대회의 이 마지막 모임에서 저도 회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회개는 이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⁵

회개의 교리는 복음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⁶에서 요한계시록⁷까지 성경은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성역 동안 전하신 가르침에는 이러한 경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⁸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⁹

물론경에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더 자주 나옵니다.¹⁰ 고대 미대륙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

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¹¹

복음의 회복과 함께 우리 구주께서는 다시 한번 이 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의 총 138편 중 47편에 걸쳐서 나옵니다!¹²

죄로부터의 회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본다면 회개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 후회하고 슬퍼한다”¹³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번에 하나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는 각각의 필수 단계를 밟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선행 조건으로서¹⁴ 먼저 죄의 인식과 후회,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¹⁵ 고백은 부당한 취급을 받은 당사자에게 해야 합니다. 고백은 진실되어야 하며, 정황이 밝혀진 후에 단순히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고백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합당성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 부르신 감독에게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¹⁶

다음 단계는 보상으로, 가능한 경우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의 뜻을 다해”¹⁷ 회개하기 위해 더 잘 행하겠다는 결심과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값이 치뤄진 덕분에¹⁸ 완전한 용서가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한 영혼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¹⁹

회개에 관한 주님의 절대적인 요구는 교리와 성약 19편에서 다음 구절을 읽을 때 분명해집니다. “내가 네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



의 막대기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 쳐서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²⁰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²¹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²² 그들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메시지에서 모든 사람은 작위의 죄뿐 아니라 태만의 죄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다음의 경고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온 ...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²³

회개라는 단어의 보다 넓은 의미

회개의 교리는 사전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 계명을 그리스어의 동사인 *metanoeo*²⁴로 기록했습니다. 이 강력한 단어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접두사 *meta*는 “변화”²⁵를 의미합니다. 그 접미사는 다음 네 가지의 중요한 그리스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nous*는 “마음”²⁶을 의미하고, *gnosis*는 “지식”²⁷을 의미하며, *pneuma*는 “영”²⁸을 의미하고, *phoe*는 “호흡”²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변화하라, 즉 마음과 지식과 영,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도 변화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선지자는 한 사람의 호흡에서 그런 변화는 각각의 호흡을 부여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혹 너희가 ...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날이 너희를 보전하사, ... 내가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것이니라.”³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의 길을 바꾸어라, 그분에게로 나아오라,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³¹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엘마는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³²

완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사업으로 완전히 개심한다는 것입니다. 엘마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가르쳤습니다.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³³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거듭나고” 개심하여 우리의 행로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납니다.³⁴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회개하여 개심한 이들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다스리고, 자신의 습관을 형성시키고, 자신의 인격을 연마시킴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좀 더 내구력이 있게 되어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³⁵ 더욱이 억제되지 않은 욕구³⁶, 외설물이나 해로운 약

물의 중독³⁷, 억제할 수 없는 걱정³⁸, 육욕³⁹, 그리고 그릇된 자만심⁴⁰은 주님께로의 완전한 개심과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는 결심으로 인해 줄어듭니다.⁴¹ 미덕이 그들의 생각을 장식하고, 자신감이 자라납니다.⁴² 십일조는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보호를 위한 축복으로 여겨집니다.⁴³ 진리는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더욱 마음에 끌리게 됩니다.⁴⁴

회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주님의 식이요법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⁴⁵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개심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개심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개심된 영혼이며 개심된 영혼은 회개한 영혼입니다.

사망한 이들을 위한 회개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은 필멸의 생을 떠날 때, 죽은 자의 영들의 큰 세계에서 ...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의] ...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⁴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밝혀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 ... [죽은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니와,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 필요한 것임이니라.”⁴⁷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까?”⁴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해의 왕국의 용접 고리들을 만들어 가족 분열이라는 화⁴⁹를 제거하고 결합시키는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구가 창조되었고 성전이 세워졌으므로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⁵⁰ 우리 중, 대부분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개심하여 우리 조상들을 위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회개는 그들의 회개를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한 친족들을 위해, 죄의 늪에 빠진 그 스물여덟 살의 여성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저는 회개라는 달콤한 축복이 가능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은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사업으로 완전히 개심할 때 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10:32
2. 엘마서 13:27, 34:33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미루는 것을 “개인의 책임들을 지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비자발성”으로 설명했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4쪽)
3. 엘마서 22:16. 우리는 또한 죄 많은 백성들과 그들을 격정하는 지도자, 물문을 기억함. 그는 이렇게 기록했음. “나는 희망을 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를 부름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싸웠음이라.” (물문서 5:2)
4. 특히 이 후일에; 교리와 성약 18:11~12, 14; 19:21; 34:5~6; 43:20; 133:16~17 참조.
5.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신앙개조 1:4) 또한 교리와 성약 39:6; 84:27; 138:19 참조.
6. 조성. 창세기 4:8 참조.
7. 요한계시록 2:16 참조.
8. 마가복음 1:15; 또한 마태복음 4:17 참조.
9. 누가 복음 13:3.
10. *repent*(회개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repent, repentance, repented, repenteth,* 등)로 흡정역 성경에 72번 그리고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68번이 나옴. 물문경에는 *repent*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360번 나옴.
11. 제3니파이 11:38.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음. “너희로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로 오게 하려고,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제3니파이 12:19)
12. 교리와 성약 1, 3, 5~6, 10~11, 13~16, 18~20, 29, 33~36, 39, 42~45, 49~50, 53~56, 58, 63~64, 66, 68, 75, 84, 90, 93, 98, 104, 107, 109, 117, 124, 133, 136, 138편 참조.
13.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7, “repent,” 999쪽.
14. 요한이서 1:9; 모사이야서 26:29; 교리와 성약 61:2; 64:7 참조.
15. 교리와 성약 58:43.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면, 고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야 함. 은밀히 들으시는 그분은 공공연히 보상하실 수 있음. (마태복음 6:4, 6, 18; 제3니파이 13:4, 6, 18 참조)
16. 교리와 성약 107:73~74 참조.
17. 니파이후서 31:13; 야곱서 6:5; 모사이야서 7:33; 제3니파이 10:6; 12:24; 18:32.
18. 모사이야서 4:2~3 참조.
19. 이사야서 1:18.
20. 교리와 성약 19:15~17.
21.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repent*(회개)라는 단어는 또한 “처벌”을 암시하는 *penalty*(형벌)나 *penalize*(형을 과하다)와 같은 용어를 떠올리게 함. 그들에게 처벌받을 만한 죄가 없다면,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임.
22.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각 연사들이 전한 말씀은 영감을 주는 지식을 나누려고 연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나 기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를 만드셨다는 느낌이 잠재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본질적으로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자신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회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아직 완전성에 이르지 못한 모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블, 37쪽) 또한 요한1서 1:8, 모사이야서 4:29~30 참조.
23. 교리와 성약 68:25.
 24. Metanoeo와 μετανοω는 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5 및 누가 복음 13:3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어로 사용되었음. 베드로는 이 똑같은 용어를 사도행전 2:38; 3:19 및 8:22에서 사용했음.
 25. 마태복음 17:2과 마가복음 9:2에서 변형은 “형태가 변함”을 의미하는 *metamorphoo*에서 번역되었음.
 26. 에베소서 4:23에서 심령(마음)은 그리스어 *nous*에서 번역되었음.
 27. 누가복음 1:77; 로마서 2:20 및 고린도후서 6:6에서, 지식은 *gnos* 또는 *gnosis*에서 번역되었음. *Gnos*는 부정 접두사 *a-*가 앞에 나올 때 *agnostic*이 되어 “지식의 부족”을 의미함. 사도행전 17:23에서 알지 못하는은 *agnostos*에서 번역되었고 [모르고는 *agnoeo*에서 번역되었음.
 28. 마태복음 12:18 및 로마서 8:5에서, 영은 그리스어 *pneuma*에서 번역되었음.
 29. 사도행전 17:25에서 호흡은 그리스어 *pnoe*에서 번역되었음.
 30. 모사이야서 2:21.
 31. 제3니파이 27:21, 27 참조.
 32. 엘마서 37:35~36.
 33. 엘마서 5:14.
 34. 요한복음 3:3, 7; 모사이야서 27:25; 엘마서 5:49; 7:14; 모세서 6:59 참조.
 35. 모로나이서 10:32 참조.
 36. 갈라디아서 6:7~8 참조.
 37. 사사기 13:7; 누가복음 1:15; 교리와 성약 89:5, 7~9 참조.
 38. 마태복음 5:27~28; 엘마서 38:12; 제3니파이 12:27~28; 교리와 성약 42:23 참조.
 39. 로마서 8:5~6 참조.
 40. 엘마서 38:11;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41. 요한복음 13:15; 디모데전서 4:12; 베드로전서 2:21; 니파이후서 31:16; 제3니파이 18:16; 몰몬서 7:10 참조.
 42.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43. 교리와 성약 85:3 참조.
 44. 빌립보서 4:8; 신앙개조 1:13 참조.
 45. 모사이야서 3:19.
 46. 교리와 성약 138:57~59; 또한 30~34절 참조.
 47. 교리와 성약 128:18.
 48. 어린이 노래책, 38쪽.
 49. 교리와 성약 27:9; 110:14~15; 128:18; 138:48 참조.
 50. 교리와 성약 2:2~3; 132:19; 138:47~48; 조셉 스미스-역사 1:39 참조.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끝에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을 재현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모임마다 이 컨퍼런스 센터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널리, 그리고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이 훌륭한 대회에서 받은 영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회 잡지 5월호를 가정의 밤 교재로 활용하여 이 대회에서 전해진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각 연사들이 전한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연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화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화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미래의 세대입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작별 인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딸들

수잔 더블류 테너

본부 청녀 회장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특별한 딸들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제 사위는 자신의 세살배기 딸 엘리자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의 공과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저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특별하니까요!”라고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자신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엘리자는 어머니에게서 이것을 배웠으며 개회 찬송으로 불렀던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는 제 딸이 엘리자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밤마다 불러 주었던 자장가입니다.

12세와 18세 사이의 전 세계 청녀들은 거의 모든 언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다.”(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5 쪽) 하지만 그들은 자라면서 종종 제 손녀 엘리자도 알고 있는,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정체성 도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념과 철학 및 속임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몰아세우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훌륭한 청녀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제 삶은 힘들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던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그녀에게 해 주었던 말들을 전 세계 청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기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간증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리아호나, 2004년 10월, 49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

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득 권으로 아름답고 성스럽고 신성한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딸로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들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고든 비 힝클리,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5월, 112쪽)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신앙을 강화하며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덕으로 장식한다면, 상호 향양 모임 주제 성구(고리와 성약 121:45)가 약속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과 지구 사이에는 “수면과 망각”(윌리엄 워즈워드, “불멸의 송가”, 어린 시절에 관한 회상, 5연 58행)의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리아호나, 2004년 10월, 49쪽)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로마서 8:16)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도록 해줍니다. 또 종종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혹은 사랑 받는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세는 강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후에, 사탄은 모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영광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에 대항할 능력과 올바른 판단을 내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며 성신이 그와 함께 거하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모세서 1장 참조)

똑같은 패턴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선과 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신성한 임무를 이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축복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주 구체적이며 신권의 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원한 속성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모님이나 지도자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감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끔 성령은 저에게 제 자녀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중 하나가 태어나기 전날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아기가 영원한 가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를 도우면서 그의 형제들 각자에게 멋진 친구이자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느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때 십대 자녀 중 한 아이가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어 몹시 낙담하고 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하며 그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인도는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하고도 고귀하며, 영원한 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통찰력을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명찰을 답니다. 이 명찰은 그들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며,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 즉, 선교사 명찰로 인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성약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지상으로 보내실 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라고 권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청년인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 딸아이 중 하나가 만기된 차량 등록 스티커가 부착된 차를 길가에 주차했다가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새 차량 등록증이 이미 우편으로 발송되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멈추게 하였고 제가 누구인지 즉, 단지 본부 청년 회장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초기에 제 남편은 저에게 “난 당신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야.”라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은 별로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네요.”라며 살짝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남편은 그 말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당신의 본래 모습과 영원의 관점에서의 모습을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교우 관계, 데이트와 결혼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외모나 경력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성품, 선한 가치관, 각자 물려받은 성스러운 본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칠레의 한 스테이크 청녀들은 야영을 하면서 서로의 유익한 면을 책에 기록함으로써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일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배운 고유한 장점들을 기록했습니다. 야영이 끝날 무렵에는 각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친절과 온정의 훌륭한 영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어떤 청녀들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대 소녀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서로를 포용하는 따뜻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경쟁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야영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개인 서한) 청녀들은 서로의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고 재확인했으며, 그 야영은 유익한 생각들을 나눔으로써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씨 에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장차 신과 여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재미없고 또 지루했던 사람이라도 만약 그 모습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당장이라도 엮으려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들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The Weight of Glory”, *Screwtape Proposes a Toast and Other Pieces*, (1974), 109~110쪽)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청녀들은 유덕하고 봉사하는 모범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저는 브라질의 한 후텁지근한 지역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한 청녀들에게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정함은 기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사고로 익사한 아이다호 출신의 다섯 명의 젊은 후기 성도 학생들이 보여준 선함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와 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의의 표준이자 덕과 건전함의 훌륭한 모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혼한 부모님을 둔 한 청녀의 모범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이 청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임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한 저는 빈곤과 정치적 탄압으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활동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야영에서 모여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킬 방법들에 대해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위생용품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회와 병원, 가정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들과 전 세계의 청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아주 귀중하고 성스러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저는 부적합하다는 느낌과 함께 두려웠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걱정과 회개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뒤, 저는 매우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인 제 조키들을 떠올리기 시작하였고 이웃과 와드, 고등학교에서 쪽 보아온 청년들, 그리고 50만이 넘는 전 세계의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후기 성도 청년들과 여러분 모두를 향한 크나큰 사랑을 느꼈으며, 제가 느꼈던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을 알게 되어 화평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큰 사랑을 증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특별한 딸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참조)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느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줄리 비 벅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행복과 평안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¹ 되어야 한다는 권유의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개하고, 변화되며, 그분을 기억하는 것에 관해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 중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세 여성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 함으로써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전 본부 청년 회장이었던 루스 메이 폭스 자매님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84세까지 그 부름에서 봉사했습니다. 자매님은 영국 태생으로 13세였을 때 한 개척자 그룹과 함께 거의 대부분을 걸어서 솔트레

이크 계곡까지 왔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그녀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는 십여 년 이상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친할머니가 그녀를 “못된 아이”라 부르며 돌봐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다루기 까다로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²

마침내 루스는 결혼을 했고 열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확고한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하였고 자녀들 곁에서 일할 때에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들이 자신에게 종종 심하게 야단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성미가 급한 데다 화가 났을 때 항상 “열까지 세”³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으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과 봉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폭스 자매님은 104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 동안 그녀는 큰 기쁨과 힘든 시련들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혹독한 교훈들을 가져다줍니다. 가장 튼튼한 식물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으며, 강인한 인품은 문제를 회피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⁴

지난 해 저는 폭스 자매님이 13세의 나이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오던 중 자신의 이름을 새겨 둔 와이오밍 주 인디펜던스 락 (Independence Rock)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140년간의 비바람으로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가까스로 “1867년 루스 메이”라는 글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 생애 동안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⁵라는 말을 모토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위대한 지도자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메리라고 부를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충실한 개척자 부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열 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십일조를 바쳤으며, 가족은 함께 마차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커피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커피 주전자들을 늘 난로 뒤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조금 마신다고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마신 그 커피 때문에 그녀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적합하지 못했으며 함께 커피를 마셨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녀는 장수하였고, 결국 성전에 다시 들어가고 봉사할 자격을 갖추었으나 10명의 자녀 중 단 한 사람만이 성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세대인 그녀의 무수한 자손들은 그녀가 믿었고 그녀의 선조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회복된 복음의 축복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크리스티나(가명)에 관한 것으로,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때 침례를 받고 가족에게 인봉되었으나 그 후 이 가족은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십대 후반이 되었으며,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해 왔고, 매우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개인 발전 기록부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자매님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매님이 바라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매님이 오늘부터 그 기록부를 시작하고 오늘 밤 청소년 노년의 모임에 그것을 가져와 자매님이 배운 것을 저와 나누었으면 해요.”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요일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리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자매와 어머니도 그녀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후에 그녀의 아버지도 그들과 합류했으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 이야기들에서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것에 관해 어떤 교훈들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⁶ 얼마 전 여덟 살 난 한 소녀가 침례를 받던 날,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쯤 그 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난 침례를 받은 후 하루 종일 한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완벽한 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우리 모두가 배우듯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모든 나쁜 상황이나 잘못된 선택들을 늘 피하지는 못하며,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할 때 항상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경륜의 시대의 선택 받은 고귀한 세대에 관해 듣지만 이 세대를 완벽한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십대들은 공격 받기 쉽습니다. 사탄의 힘은 실제적이며,

또 십대들은 그들의 첫 번째 중대한 선택을 혼자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경의 코리엔톤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코리엔톤은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봉사해야 했으나,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과 좋지 않은 사람들을 다룰 만큼 충분한 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잘못된 장소로 가서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스스로를 큰 곤경과 죄에 빠뜨렸습니다.⁷

저의 두 번째 교훈은 회개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⁸ 구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없다”⁹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조금 마시는 것, 하나의 나쁜 습관, 한번의 그릇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평생 우리를 탈선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에 관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회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싫증이 났다. 혹은 회개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도자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포기해 버리고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믿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된 복음에서 떠나버리기만 하면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방법으로 말미암아, 만일 내가 깨어 살피지 아니하면 너는 타락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¹⁰

행복과 평안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브라질에서 청년 총회 방송에 참석한 청년들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력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구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신앙을 보이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¹¹

우리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의 은혜를 통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¹²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¹³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자

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¹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¹⁵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받는 기쁨과 평안은 신성한 축복입니다. 그 평안은 주님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에 따라서만 올지라도, 분명히 평안은 옵니다.

저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우리의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¹⁶ 그것이 바로 회개가 복음의 두 번째 원리인 이유입니다.¹⁷

약점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우리는 매일 좋은 습관과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을 지니려면 혹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이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나 거듭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¹⁸ 저는 크리스티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아니며 우리의 회개를 도와 주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자질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변화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폭스 자매님은 복음이 “유혹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외투이며, 슬픔 중에 위안을 주고, 온 생애 동안 기쁨과 영광이 되며, 영생에 대한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¹⁹ 그녀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모토로 삼은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 즉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천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다.”²⁰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개를 통해 구주를 알게 되었으며, 제가 변화되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에 대한 저의 신앙과 신뢰가 자랍니다. 저는 그분의 실재하심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10:32.
2. 자넷 피터슨, 라넬 쿤트, *Keepers of the Flame: Presidents of the Young Women* (1993), 33~34쪽 참조.
3. *Keepers of the Flame*, 38쪽 참조.
4. *Keepers of the Flame*, 41쪽 참조.
5. *Keepers of the Flame*, 49쪽 참조.
6. “회개”, 경전 안내서, 300~301쪽 참조.
7. 앨마서 39:1~9 참조.
8. 교리와 성약 19:15 참조.
9. 제3니파이 11:38.
10. 교리와 성약 3:9~10 참조.
11. 교리와 성약 58:43 참조.
12. “은혜”, 경전 안내서, 231~232쪽 참조.
13. 이디서 12:27.
14. 교리와 성약 58:42~43.
15. 마태복음 11:28.
16. “회개”, 경전 안내서, 300~301쪽 참조.
17. 신앙개조 1:4 참조.
18. 스펜서 더블류 김블,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50쪽.
19. *Keepers of the Flame*, 49쪽.
20. 제3니파이 27:16.

이 길에 머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종종 우리는 벼랑 끝에 살면서도 자신의 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저희 집 근처 계곡에 있는 어떤 길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 걸어보면, 그 말이 얼마나 현명한 충고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덕과 굽이진 길,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어떤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도 하고 연중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따금씩 방울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표지판의 내용과 같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저는 청년들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와이오밍 주 테톤 산으로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힘든 산행이었고 둘째 날에는 산행하기 가장 위험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계곡을 따라 산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름은 거의 한결같이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붙여진 것이

었습니다. 산림 경비원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 중앙으로 걷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로 걷되 최대한 몸을 낮추고, 모든 것들을 배낭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신속히 움직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곳은 시간을 지체하거나 사진찍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각 청년들이 이곳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벼랑 끝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며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벼랑 끝에 살면서도 자신의 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자 계획이며, 우리가 만약 그곳으로 이끄는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끝은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134~35)

교리와 성약 25편에 나와 있는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는 그분의 모든 소중한 딸들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행동 규범과 “유덕한 길을 걸으라”(교리와 성약 25:2)는 권고를 받았습니. 덕이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근거를 둔 생각과 행동 방식입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118쪽) 그렇다면 우리를 유덕하게 하는 높은 도덕적인 표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덕이란 생각, 언어, 복장 및 품행에서의 정숙함을 포함합니다. 정숙함은 순결함의 초석입니다. 마치 방울뱀이 서식하고 있는 산 길을 맨발로 걷지 않듯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숙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숙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정숙할 때 “덕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숙함은 “멋쟁이”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충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순결함을 유지하고 성약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목 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숙함은 우리의 발걸음을 덕과 순결의 길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덕은 분명 승영의 필수 요건입니다. 물몬은 덕과 순결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모로나 이서 9:9)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대충 행동하거나, 벼랑 끝에 바짝 다가서는 일을 절대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딸들이 걷기에도 위험한 지대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25편을 통해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25:13) 저에게 있어서 충실함이란 주님과 함께 맺은 약속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키며,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일은 덕의 길에 오른 우리를 견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들을 지킴으로써 계속 그 길의 중앙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성약을 맺고, 또 그 성약을 지킴으로써 이 길에 머물렀습니다. ...”



우리가 성약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성신의 속삭임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은 대부분 오르막길이지만, 오르는 동안 우리가 받는 도움은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는 우리가 맺은 성약 때문에 우리를 도와 주시는 신화의 세 구성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약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합니다. 떡을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

오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들,”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11~12쪽)

그분의 영에 의해 인도 받을 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고 행복해질 것이며 덕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몬경은 모든 사회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정결하며 덕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제4니파이 1:16) 또한 성신에 의해 인도 받을 때, 여러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저희 집안의 여성들—제 딸의 어머니와 저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분들의 헌신적이고 신앙 깊은 삶은 제가 더 높고, 더 멀리 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는 이 사진에 포함시켜야 할 한 명의 딸과 다섯 명의 며느리, 다섯 명의 어린 증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유덕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첫 번째 주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태톤 산에 다시 올랐으며, 이번에는 남편과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할 때에는 산을 오르는 것이 수월하고 스티일이 있었지만,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는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처럼 체력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장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않은

데다 짐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저는 배낭의 무게로 지치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높은 고도, 가파른 지형, 무거운 배낭으로 인해 힘들어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저의 남편은 서둘러 앞장서 갔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제 남편이 계곡의 반대편 길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다다른 남편은 저의 배낭을 메고 눈물을 닦아 준 다음, 우리의 목적지인 키 큰 소나무들로 둘러 쌓인 수정처럼 맑은 호수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돌아서서 왔던 길로 내려가 다른 등반자들을 위해 네 번이나 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준비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많은 잡동사니들을 챙김으로써, 남편이 들어준 제 배낭의 무게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가진 체력과 비이기심, 준비성, 사랑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산을 오르면서 덕이라는 그 길에 머무십시오. 부모와 가족, 감독, 고문, 다양한 연령의 의로운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쇠약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면, 방향을

바꾸고 덕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회개를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을 강화하시며,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길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님은 유덕함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지에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 먼 자들을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영원의 진리와 전세의 실재성,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앞으로 올 삶에서 그분의 딸로서 우리가 지닌 잠재력을 가르치셨습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참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길을 보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를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참조)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자 인도자이십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정숙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성약에 충실하고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되십시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8:18) 진실로 저는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과 위대한 속죄의 무한한 덕”에 놀랍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 2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면, 미래는 기회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훌륭한 홀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 컨퍼런스 센터 이외의 장소에도 다른 수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 이상의 언어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그들의 모국어로 통역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매우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훌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분들이 본 모임의 주제에 대해 훌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그것을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
(교리와 성약 121:45~46)

주님으로부터 온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지자 조셉에게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덕으로 생각을 장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줍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은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을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세상이 아직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만큼 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신의 창조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면, 미래는 기회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줄 아주 간단한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도, (2) 공부, (3) 십일조를 바침, (4) 모임에 참석하는 것.

첫 번째 항목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그분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매일 밤,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마음속의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교회는 조셉 스미스가 부친의 농장 근처에 있는 숲에서 드린 겸손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첫번째 시현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성장한 이 교회는 현재 160여 개 국가에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천이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다니엘의 시현이 실현된 것입니다.(다니엘 2장 45~46절 참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족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 기도를 하자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가서게 하는 방편입니다. 기도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노력이면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기도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제 목록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은 공부입니다. 이 간단한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 경전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전서의 일부만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위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전



서는 금광과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 그 외 다른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하나만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그것을 다 읽은 다음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2년 전에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 해 안으로 몰몬경을 읽으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한 모든 분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에 몰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들의 영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

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다 읽기에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공부 외에도 교육을 받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육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결혼을 소망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 해도 교육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면서 인생의 발전도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노력할 때 축복하실 것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운 전망과 지식을 향해 열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질 것입니다.

다음 항목은 십일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은 현대 계시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아니 [할]”(교리와 성약 64:23 참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약속은 말라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

라.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8, 10)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해서 매우 흥미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라기 3:11~ 12)

십일조는 돈으로 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신앙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면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은 결코 그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매년 12월이 되면 저의 부친은 저와 제 형제들을 데리고 십일조 결산을 위해 단칸 감독님 댁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감독님은 와드 건물에 감독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감독 일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그분은 한 사람씩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십일조는 기껏해야 25센트나 50센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십일조였습니다. 그분은 영수증을 써주고 그 금액을 와드 기록에 적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기록하는 비용이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습관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이 귀했던 공황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일조를 바쳤으며, 어찌된 일인지 굶거나 필요한 것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



니다. 인류의 구주이신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빵과 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숙하고, 거룩하며, 훌륭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거룩하신 구속주의 구속의 희생만큼 의미심장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속죄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하며, 목적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속죄와 더불어 우리는 비로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더 영광스러운 존재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찬을 취하는 것 안에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모임의 다른 모든 것들은 주

님의 희생 상징을 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이 지속될 것이며,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들은 모든 면에서 놀랍고도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짓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개인 공부, 가정의 밤 및 그의 공과를 위해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들을 열거한 것이다. (숫자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연사	일화	교리 및 원리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가 꿈에서 선지자를 만남, 60쪽 어린 고든이 십일조 결산에 참여함, 115쪽	깨끗함, 순종 십일조,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근육 위축증을 가진 네 명의 아이들, 22쪽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소녀가 침례받기로 결심함, 41쪽 해군으로 복무하며 아픈 친구를 축복함, 57쪽 가족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축복함, 57쪽	사랑, 영생 신앙, 침례 감사, 신권의 권세 십일조, 신권의 권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어린 제사가 교사를 성임함, 54쪽 사랑하는 이들을 살해했던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가족이 평안을 얻음, 67쪽	간증, 신권의 권능 용서, 겸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초등회 합창을 들으며 확신을 얻음, 26쪽	영감, 음악
엘 톰 페리 장로	집사 정원희 회장이 친구들이 활동화 되도록 도움, 85쪽	활동 촉진, 봉사,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넬슨 장로	죄에 빠진 여인이 용서를 구함, 102쪽	회개, 희망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80쪽	경전, 희생
조셉 비 워스린 장로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법을 배움, 45쪽 부정직함에 대항함, 45쪽	순종, 근면 정직, 용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비상 탈출 절차를 배우지 않은 비행사, 48쪽 야간에 방향감각을 잃고 추락한 조종사, 48쪽	순종, 준비 순종, 신앙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피클의 비유와 영적인 변화, 19쪽	영적인 거듭남, 정화
제이 이 켄슨 장로	선교사들의 노래가 개종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줌, 11쪽	선교 사업, 음악
존 비 딕슨 장로	청남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함, 14쪽	지혜의 말씀, 순종
보니 디 파킨	가족의 축복 바꾸니, 34쪽 상호부조회 자매로부터 받은 감사, 34쪽	감사, 시련 감사, 사랑
키스 비 맥멀린 감독	학업과 미식축구에서의 실패, 51쪽	준비, 근면
비키 에프 마쭈모리	구도자가 침례에 관해 기도함, 76쪽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도록 도움, 76쪽	기도, 신앙 가족, 정직
글렌 엘 페이스 장로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회원이었던 청년, 78쪽 소년으로서 그는 간증을 얻음, 78쪽	시련, 용기 간증, 신앙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	대학생으로서의 개종, 92쪽	게시, 침례
찰스 더블유 달퀴스트 이세	반대를 무릅쓴 개척자의 침례, 94쪽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견함, 94쪽	시련, 희생 기도, 부모애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성도들이 십일조를 바치자 주님께서 가뭄을 멈추심, 97쪽	십일조, 신앙, 순종
수잔 더블류 태너	캠ป์에서 청년들이 서로의 유익한 면들을 인식함, 106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각각 알고 계심, 106쪽	모범, 화합 신성한 품성, 사랑
줄리 비 벅	루스 메이 폭스의 신앙, 109쪽 청녀가 개인적 진보를 위해 노력함, 109쪽	희생, 모범 신앙, 활동 촉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훌륭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의 제목을 “Learning from Conference”로 하고 400자를 넘지 않게 작성하여 liahona@ldschurch.org 또는
Liahona, Room 2420,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택 신권 및 상호 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전한 한 가지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의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한 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

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임무는 교회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 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 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서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교재 2와 청년 교재 2에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공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참고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한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특정한 성탄절 공과가 들어 있지는 않다. 성탄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주에게 중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및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참고 지도서를 찾으려면 www.lds.org로 가서 “Languages”를 클릭하여 언어를 선택한다. “Liahona”를 클릭한 후, 2007년 5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단에서 참고 지도서의 링크를 찾아볼 수 있다.

청년 교재 2

제26과: 성찬식

엘 톨 페리,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9쪽.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냈던 페리 장로의 이야기로 인희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4번.

제27과: 순종을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여러분은 순종이 간증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아이어링 장로의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제28과: 선택의지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태너 회장의 이야기를 여섯 가지 기본적인 선택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목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볼프강 에이치 폴, “선택의지의 은사”,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4쪽. 선택의지가 중요한 이유에 관한 폴 장로의 의견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스미스 회장의 인용문을 보충한다.

제29과: 승영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8쪽. 지금 우리가 확고히 서는 것이 우리 각자가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파우스트 회장의 권고를 활용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8쪽. 의식을 받고 또 성약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침례와 관련된 의식과 성약”을 활용한다.

제30과: 봉사를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토마스 에스 몬슨, “굳도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2쪽. “진정한 봉사는 기쁨을 가져옴”에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청년반에 관한 몬슨 회장의 이야기로 대체하여 들려준다.

개인 발전, “신행 가치관 경험”, 1, 2, 5, 6번

제31과: 국가의 법률

러셀 엠 넬슨,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9쪽. 애국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편을 활용한다.

제32과: 생명의 중요성

러셀 엠 넬슨, “창조”,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2쪽. 이 말씀을 활용하여 창조의 경이로움을 설명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33과: 성스러운 출산의 능력

리처드 지 스코트, “여성의 존엄성”,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3쪽. 트리에 탄 젊은 여성들과 우연히 마주쳤던 스코트 장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행동과 옷차림을 교회 표준과 대비시켜 본다.

“출산의 신성한 힘”,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38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활용하여 공과에 있는 원리들을 강화한다.

제34과: 도덕적인 합당성에 관한 주님의 표준을 굳게 지킴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러분의 빛-열국을 위한 기”,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11쪽. 공과의 끝부분에서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높은 표준을 유지하라는 파우스트 회장의 격려로 끝맺는다.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7년 5월 ~ 2007년 10월	<i>리아호나</i> 2007년 5월호에 실린 말씀*
2007년 11월 ~ 2008년 4월	<i>리아호나</i> 2007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의 두 청년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1번.

제35과: 현명한 선택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키리사 마을의 이야기로 소개 부분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크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자는 헤일즈 장로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제36과: 정직

리차드 시 에즐리, “수건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2쪽. 공과를 끝맺기 위해 세 장의 수건에 관한 에즐리 감독의 이야기를 나눈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2번

제37과: 올바른 생활을 통해 순결을 지킴

제프리 알 홀런드, “청녀들에게”,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순결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편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다.

본부 청년, 청년 회장단, “진정한 자신감”,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8쪽. 쉬지 말고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에 관한 제언을 활용하여 케롤린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활동”, 다섯째 항목

제38과: 신체의 건강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쪽. 우리 육신을 돌보는 축복에 관해 토론하면서 패커 회장의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이앤 엘 스펡글러, “육신, 성스러운 선물”,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16쪽. 신체의 외모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세상의 견해 사이의 차이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공과를 시작한다.

제39과: 질병을 예방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2쪽. 좋은 건강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때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어린 시절 경험을 나눈다.

제40과: 자기 절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독수리 날개 위에”,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14쪽. “정전과 교회 지도자들은 자제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사의 활용을 고려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9쪽. “자제는 행복과 자부심을 갖게 함”에 대해 토론할 때 “마음 상해하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편을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2 및 5번.

제41과: 낙천적인 태도

조셉 비 워스린, “풍성한 삶”,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99쪽. 즐겁고 낙관적이 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이야기와 사례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앤소니 디 퍼킨스, “크고도 놀라운 사랑”,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6쪽. 공과 내내 이 기사를 활용하여 좌절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제42과: 감사하는 마음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공과의 시작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읽는다.

델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쪽. 여러분이 감사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제언들을 참고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3번

제43과: 여가 선용

토마스 에스 몬슨, “완전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7월호, 111쪽. 몬슨 회장의 네 번째 제언을 활용하여 일의 필요성과 미쁨으로써 생기는 해악을 설명한다.

조셉 비 워스린, “나를 따르라”,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5쪽. 공과 소개를 할 때 이 말씀에 있는 요점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2번

제44과: 재능을 발전시킴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9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선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발전시키고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과 적용” 편을 보충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달란트의 비유”,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34쪽. 기사를 활용하여 마태복음 25장 14~30절을 가르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경험”, 2번.

제45과: 예술 활동 참여

델린 에이치 옥스,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리아호나*, 2004년 9월호, 8쪽.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에 관한 토론의 일부로 “계시의 목적” 아래 있는 옥스 장로의 넷째 항목을 활용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6번

제46과: 재정적 책임

조셉 비 워스린,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0쪽. 재정적인 자유에 대한 워스린 장로의 다섯 단계를 자립에 관한 토론에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7번.

제47과: 환경을 향상시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독수리 날개 위에”,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14쪽.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 관한 토론의 일부로 라이트 형제가

그들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한다.

제레미 로버트슨, “벽에 걸려 있는 금인”,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8쪽. 여러분의 소개의 일부로 이 이야기를 나눈다.

제48과: 지도자의 의사 전달 기술

엘 톰 페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6쪽. 기사에 있는 요점들을 활용하여 공과의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음” 편을 보충한다.

엠 러셀 벨라드, “오 지혜로우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7쪽. “지도력은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임”의 일부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잘 봉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제49과: 장애인을 존중하고 격려함

게일 엘 클레그, “자녀들에게 다른 점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침”, *리아호나*, 2004년 6월호, 16쪽. 공과에 언급된 비디오가 없는 경우, 이 기사의 처음에 있는 두 이야기를 나눈다.

아론 신권 교재 2

제26과: 합당한 생각

델린 에이치 옥스, “의식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7쪽. 옥스 장로의 경고를 토론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27과: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

토마스 에스 몬슨, “신앙에 충실함”,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8쪽. 공과의 끝에 있는 이야기를 마카베케의 비유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2번.

제28과: 안식일

엘 톰 페리, “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0쪽. 적절한 안식일 활동에 관한 페리 장로의 권고를 공과의 처음 편에서 활용한다.

얼 시 텅기, “영원한 패턴을 굳게 세움”,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20쪽. 말씀의 “안식일”편에 있는 텅기 장로의 조언으로 쿵 장로의 이야기를 대체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2번.

제29과: 인생의 목적

리차드 지 스코트, “회복된 진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78쪽.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스코트 장로의

권고를 전하고 공과를 끝맺는다.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기사에 있는 제언을 활용하여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선택의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인다.

제30과: 사랑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쪽. 공과의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들 대신에 버튼 감독의 사례 몇 가지를 나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3번.

제31과: 용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쪽. 공과의 첫째 편에서 속죄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8쪽. 기사에 있는 존 브린의 이야기로 캐리 텐 봄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32과: 성령의 은사를 발전시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9쪽. 주님에게서 나오는 부드러운 자비로서 영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한다.

제33과: 너희는 학문을 구할지이다

존 케이 카막,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2쪽. 교육을 받는 것에 관해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와 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번과 2번

제34과: 모범의 힘

고든 비 힝클리,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8쪽. "한 신권 소유자의 모범은 교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침"에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 대신에 리차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청사진", *리아호나*, 2006년 1월호, 2쪽. "믿는 자들의 본"이라는 제목 편에 대해 토론에 포함시킨다.

제35과: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5번.

제36과: 범사에 감사함

델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쪽.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옥스 장로의 다섯 가지 이유로 소개 부분을 대체한다. 반원들이 그들의 삶에서 각 범주에 맞는 사례를 발표하게 한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쪽. 경매인의 이야기를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10번.

제37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함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2쪽. 기사를 활용하여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과 다르기는 하지만 동등하게 어떻게 중요한 지에 대해 토론한다.

줄리 비 벡, "모성",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5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의 결론을 강조한다.

제38과: 불의한 세상에서 의복계 생활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악마의 목구멍",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1쪽. 이 기사에 있는 폭포의 비유를 활용하여 공과를 시작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스코트 장로의 선교사 경험을 나눔으로써 소개 부분을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가족 활동", 2번

제39과: 도덕적인 용기

고든 비 힝클리, "확고한 진로를 추구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2쪽. 기사의 셋째 편을 활용하여 도덕적인 용기를 발전시켜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하는 것에 관한 토론을 강화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2번.

제40과: 유혹을 피하고 극복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2쪽. 렉터 장로의 권고를 표준에 관한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권고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41과: 성찬: 주님을 기억함

엘 톰 페리,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9쪽. 여러분이 성찬을 취할 때 맺는



성약에 관해 가르치면서 기사에 있는 원리들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7번:(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42과: 형제를 따름

엘 톰 페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5쪽. 여러분이 공과의 첫째 편을 가르치면서, 계시가 어떻게 교회로 오는지를 살펴본다.

제프리 알 홀런드,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04쪽.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 있는 원리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지침을 주심" 편을 보충한다.

제43과: 선교 사업을 위한 영적 준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됩",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이 말씀을 활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선교 사업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리아호나 2007년 3월호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제44과: 성전 결혼을 위해 지금 준비함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이 말씀을 활용하여 성전 추천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준비에 관한 가르침을 보충한다.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쪽. 벨라드 장로의 세 가지 제언을 활용하여 공과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제45과: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6쪽. "가정 복음 교육은 신권의 의무임" 편에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한 몬슨 회장의 권고를 적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정원회

활동", 1번

제46과: 언론 매체의 나쁜 영향을 피함

엠 러셀 벨라드,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6쪽. 대중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관한 벨라드 장로의 제언을 결론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9번.

제47과: 깨끗하고 고운 말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높이 일어서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5쪽.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 토론할 때 버튼 감독의 둘째 예를 활용한다.

제48과: 의로운 표준을 유지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룩한 곳에 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2쪽. 기사에 있는 원리들을 활용하여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2번

제49과: 정직과 고결성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대장부가 됩시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6쪽. 여러분이 공과를 끝맺으면서 기사에 나오는 제언들을 활용한다.

리차드 시 에즐리, "수견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2쪽. 공과의 끝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여름에 가졌던 일자리와 신문에 관한 에즐리 감독의 이야기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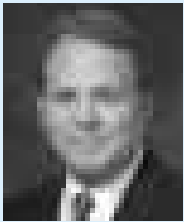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50과: 장애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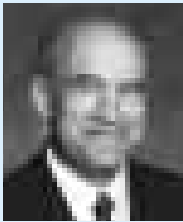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신체적인 발전", 11번.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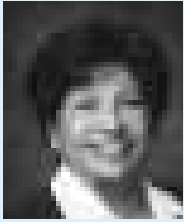


에이 로저 메릴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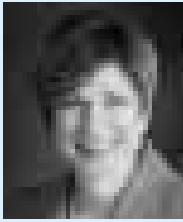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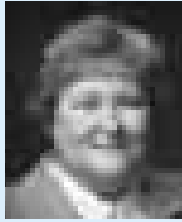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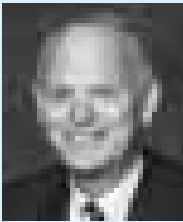


바바라 톰스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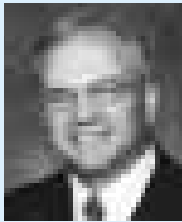
청남



던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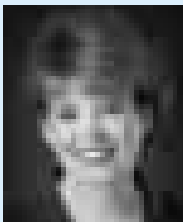


마이클 에이 나이더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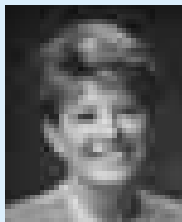
청녀



일레인 에스 토티튼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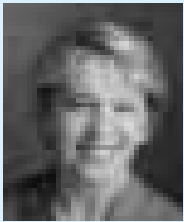


수잔 더블류 태너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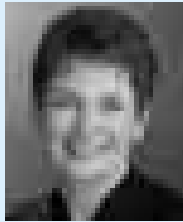


메리 엔 쿡
제2보좌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쉐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미즈모리
제2보좌

교회 소식



막 내린 연차 대회, 여러 매체 통해 이용 가능

교회의 제177차 연차 대회 모임은 90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고, 위성을 통해서 85개국에 있는 교회 소유의 6,000여 집회소에 중개되었으며,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들이 모국어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청취했다.

토요일 오전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 96세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재치있는 말을 전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온갖 소문과는 달리 제 건강은 양호합니다. 유능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제 건강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 동안 힝클리 회장은 템플 스퀘어의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을 재헌납했으며, 2000년 4월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던 연차 대회 모임이 처음으로 태버나클에서 한 차례 진행되었다. 태버나클은 지진을 대비한 설비와 복구 작업(관련 기사 참조)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사용이 중지되었다.

토요일에는 새로운 지도자들 즉, 미국 외 여러 지역 출신의 총관리 역원 5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본부 청년회 보좌들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신임 교회 역원-4쪽 참조, 신임 역원 소개-124쪽 참조)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교회 회원들이 교회 소유의 집회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 기타 위성 방송 및 케이블 TV를 통해 가정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연차 대회를 시청했다. ■

대규모 수리 후 재개장한 태버네클

18 67년에 처음으로 연차 대회가 열렸던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은 개척자들의 신앙과 독창성의 상징이었다. 거의 140년이 흐른 지금 태버네클은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

3월 31일 토요일 오후 모임 중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년간의 수리 기간을 거친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을 재현납했다.

방문객들이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크 목재로 새로 만든 긴 의자 여러 개가 띄엄띄엄 배치되었다. 외부 발코니로 향하던 기존 계단을 실내로 재배치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내부에 새 계단을 두 군데 증설했다. 오르간 파이프의 보이는 부분에는 도금칠을 했다. 천장은 수리하고, 칠을 다시 했다. 합창단을 위한 새 탈

의실과 음악 도서관이 마련되었다. 수리된 연단은 이동이 가능해져 보조 좌석을 배치하거나 공연을 위한 무대로도 쓰일 수 있다. 모든 수도관, 기계, 전기 시설들이 교체되었고, 건물 규제법에 맞게 수리되었다.

태버네클에 눈에 띄는 보수 작업들도 많았지만, 사실 태버네클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났다.

바로 태버네클의 기초와 벽이 개량되어 지진에 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조된 것이다.

태버네클의 독특한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44개의 모든 기둥들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강철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각 기둥의 기초 역시 콘크리트로 강화되었다. 강철 박스를 사용해 지붕틀을 기둥에 연결하였고, 긴

천장 지붕틀 역시 기둥에 부착하여 강철 구조와 밀착시켰다.

현재의 태버네클은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몇 해 전보다 더 견고하게 서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수리된 태버네클을 헌납하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때는 대부분의 후기 성도들이 이 계곡과 인근 지역에 설립된 정착촌에서 살았사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업이 번영하고 온 세상에 퍼져 회원들이 이 나라 안보다 이 나라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태버네클의 탄생과 건립

브리검 영 회장은 헨리 그로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태버네클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했다. 개종자이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토박이인 그로우 형제는 이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교각 건설자였다.

설계도가 만들어졌고, 1863년에 착공되었다.

흔히 쓰이던 여러 건축 자재를 구할 수 없었던 일꾼들은 태버네클을 짓기 위해 재활용 자재와 그 지역의 중고 물자를 사용했다. 지역 협곡에서 재목들을 구했고 솔트레이크 성전 건설 부지에서 여분의 석재를 가져왔으



오르간 파이프의 보이는 부분에 새로 도금칠이 되었다.

며 쓰다 남은 군수기자재와 나무로 만든 소발굽이 못과 고리쇠로 탈바꿈하였고 동물 가죽을 꿰어서 풀을 만들고 그 지역 석회암으로 만든 회반죽은 동물의 털로 강화되었다.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자재를 생각해 볼 때 태버네클은 진정 신앙과 독창성으로 지어졌다.

착공에 들어간 지 4년이 지난 후에 태버네클에서 연차 대회가 열렸다. 태버네클은 발코니가 추가되고 나서 187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헌납되었다.

주목할 점들

-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 회장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선지자들이 태버네클에서 열린 경건한 모임을 통해 지지 받았다.
- 공간상의 이유로 제거된 태버네클 내의 침례탕은 최근에 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솔트레



천장, 새로운 좌석, 교체가 가능한 연단 및 무대 구역에 대한 보수가 태버네클 내부 개보수 공사에 포함되었다.



지진에 대비한 기초 강화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 회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 설립 당시 좌석들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오크 목재로 보이도록 칠해졌다.
- 오르간 덮개는 폰테로사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마호가니로 보이도록 칠해졌다.
-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은 “구 태버네클”로 불리는 태버네클이 성도를 위한 집회 장소로서 성전의 남서쪽 구획에 세워졌었다.
- 지금까지 열두 명의 미국 대통령이 태버네클을 방문했다.
- 태버네클의 음향 상태는 다른 어떤 건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태버네클의 맨 앞 연단에서 편을 떨어뜨리면 맨 뒷줄에서도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

출판을 앞둔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월에 있었던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의 전문이 *리아호나와 연사인* 2007년 6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주제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이 훈련 자료를 모든 회원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잡지를 통해 훈련 모임의 전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이다. 가족을 주제로 한 지난 해의 훈련 모임이 2006년 6월호에 실렸었다.

이 훈련 모임에서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연사로 말씀했다.

2월에 있었던 위성 방송은 웹사이트 www.lds.org/broadcast를 통해서 10개의 언어로 청취가 가능하며 24개의 언어로 전문을 볼 수 있다. ■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엔리케 리엔지 팔라벨라 아렐라노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팔라벨라 장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기꺼이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간증을 얻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웠다.

1950년 5월 9일에 우딘과 레오노르 팔라벨라 사이에서 태어난 팔라벨라 장로는 12살이였을 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과테말라시티의 집에서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4명의 자녀들 중의 맏이였으며 그 몇 해 전에 어머니를 잃은 팔라벨라 장로는 선교사들에게서 어떤 다른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그들의 강력한 가르침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 소망과 선교사들이 권유하는 대로 하려는 의지가 그를 개

종으로 이끌었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구주의 말씀이 훌륭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만약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신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그는 1975년 6월 21일,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아내 블랑카 리디아 산체스와 함께 인봉되었다. 팔라벨라 장로는 과테말라의 산카를로스 대학에서 농경학 학위를 받았고 후에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했다. 교회의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기에 앞서 그는 화학 및 제약 회사에서 일했다.

아내와 함께 다섯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팔라벨라 장로는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감독, 지역 대표, 스테이크 회장 및 지역 칠십인을 역임했으며, 2년간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았을 당시에 그는 과테말라시티 선교사 훈련원의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에릭 더블류 코피스케

칠십인 정원회



에릭 빌리 코피스케 장로가 얻은 간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점이다.

그는 조국 독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다소 실망했던 것을 회상한다. “저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곧 자국민을 가르치는 일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선교본부에서 서기로 봉사했던 9개월 동안 그는 영어를 배우야만 했다.

선교 사업으로 인해 준비가 된 코피스케 장로는 그 선교 사업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코피스케 장로는 1956년 10월 20일에 독일 엘름쇼른에서 태어났으며 충실한 후기 성도 부모

인 헬가 하우트 코피스케와 쿠르트 코피스케 밑에서 자라났다.

코피스케 장로는 경영학 학위를 받았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 직업 훈련을 더 받기에 앞서 군복무를 했다. 그 시기에 장차 아내가 될 크리스찬 글뤽 자매를 만났다. 당시 그녀는 간호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두 사람은 1978년 12월 19일,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일곱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996년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기 전까지 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다. 2000년에 그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유럽 중앙 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2003년 그는 베를린 선교부의 회장으로 부름 받아 아내와 함께 기쁘게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에 코피스케 장로는 감독의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지방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역 칠십인, 그리고 유럽 중앙 지역의 제2보좌로 봉사했다. ■

마이클 제이 테 장로

칠십인



마이클 존 테 장로에게는 여정이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은 더 각별하다. 테 장로는 1986년에 받았던 전임 선교사의 부름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인생 여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저의 선교 사업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죠.”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위안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테 장로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도와줄 간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간증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께 진리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혼자 힘으로 진리를 알고 자신 있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테 장로는 1965년 6월 25일에 필리핀 다바오시티 다바오델수르에서 마틴과 노르마 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열두 살 때 그의 가족은 마닐라로 이사했지만,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로 부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테 장로는 마닐라에 소재한 텔라살레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의 사무장으로 일했다. 그는 바로 이 성전에서 1989년 12월 16일에 그레이스 메이 워든 자매와 결혼했으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테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분을 나눌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고등 평의원, 선교부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지역 칠십인과 필리핀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칠십인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도밍구에스 장로는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경우가 그랬으며, 또한 성전 의식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위치에서 봉사해 왔다. “성전 가까이에 계십시오.”라고 그는 촉구한다.

1942년 10월 31일, 멕시코 베라크루즈 티라판에서 옥타비아노 테노리오와 플로라 도밍구에스 데 테노리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이 북 멕시코의 리오브라보로 이사한 후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회계학 및 경영학을 수료한 후에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로사 엘바 발렌주엘라 곤잘레스를 만났으며 현재도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두 사람은 1974년 1월 4일에 에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으며,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사회 생활 초기에 테노리오 장로는 멕시코에 소재한 교회 계보 서비스 센터의 관리자 직책을 제

의 받았다. 출판계에서 자신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던 그는 새로운 직책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영감어린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뒤에 그는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일이 제 인생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삶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으로 점철되었다.

그 직책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던 그는 이후에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의 초대 사무장 및 인봉자로 부름 받았다. 그는 성전을 떠나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선교 부를 감리했다. 나중에는 지역의 회원 통계, 자재 관리, 복지 서비스 부를 관리했으며, 그러는 가운데 지역 대표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테노리오 장로는 전임자가 은퇴한 뒤에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사무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성전은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테노리오 장로는 주님께 매우 감사하며 이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부름을 받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긴다. ■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칠십인



클라우디오 다니엘 지빅 장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빅 장로는 1948년 12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후기 성도 부모였던 세르히오 호르헤 지빅과 엘레오노라 살레위스키 지빅 사이에서 태어났다. 열다섯 살 때 경주 선수로 전국 대회에 출전했던 그는 연령별 800 미터 경주에서 2등을 차지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었고, 올림픽 10종 경기 선수로 활약했던 그의 코치는 일요일에 경주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바꾼다면 그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지빅 장로는 말한다. “결국 저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경주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지빅 장로는 직업을 선택할 시

기가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다. 중학교 4년을 연속으로 다니는 동안 학년말 추가 시험으로 회계학 과목 시험을 봐야 했는데, 그 해에 그 과목 성적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회계학이 정말 싫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회계학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주님을 신뢰했던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위를 받았으며, 공인 회계사로서 즐겁게 일했다.

지빅 장로는 자신의 인생 내내 주님의 인도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지빅 장로는 말한다. “모든 일들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지빅 장로와 아내인 디나 노에미 알바레스는 1979년 1월 9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지빅 장로 부부는 5명의 자녀가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지빅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종교 교육원 교사,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성전 의식 봉사자, 지역 대표, 스페인 빌마오 선교부 회장, 남미 남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줄리 벅거터 벅 자매는 자신의 침례식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의 일부로 “주님이 저를 그분의 왕국에서 쓰실 수 있다고 주님께 약속 드렸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분이 자신을 어디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 본부 청년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했던 그녀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부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봉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침입인 제일 정원회의 전 회원인 윌리엄 그랜트 벅거터와 제랄딘 햄블린 벅거터 사이에서 1954년 9월 29일에 태어난 그녀는 디스 단과 대학과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녔으며 가족학으로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녀는 1973년 12월 28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레이먼 피 벅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세 자녀와 여덟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벅 자매는 교회 본부에서 봉사 하라는 부름을 받기 전에 와드 청년회장과 초등학교 회장, 그리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다.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그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하면 좋은 일”로 세 종류의 우선순위를 세웠다. 개인 기도, 경전 공부, 성전 참석, 가족은 “반드시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다.

“여성에게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죄책감을 없애 줍니다. ‘하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은 그녀가 전화로 손자 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 등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할머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축복해 주셨다.

“저는 상호부조회에 대해 늘 큰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의 부모님이 교회 일로 멀리 계셨을 때,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저는 교회의 여성들에 대해 진정한 사랑과 찬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의 힘을 상호부조회 봉사에 집중하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최근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을 받은 실비아 헨리케즈 얼리드는 열여섯 살이었을 때 상호부조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침례를 받은 직후에 엘살도르에 있는 우리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얼리드 자매는 설명한다. “어머니는 아주 놀라셨지만 [역시 갓 개종했던] 제 언니와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주님께서 엄마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상호부조회 서기로 봉사하면서 얼리드 자매는 상호부조회가 제공하는 지도력, 교육, 가사 기술, 봉사의 기회에 감명을 받았다. 얼리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여성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얼리드 자매는 1944년 10월 11일에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카를로스 플로렌티노 헨리케

즈와 힐다 알바레가 사이의 여덟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녀는 애리조나 대학교,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녔으며, 엘살바도르에 소재한 제너럴 프란시스코 모라잔 대학에서 수학과 언어를 공부했다.

그녀는 1966년 9월 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제프리 에이 얼리드와 결혼하여 여덟 자녀를 두고 있다.

얼리드 자매는 중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및 초등학교 회장으로, 본부 청년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또한 남편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선교부를 감리할 때와 얼마 전에 남편이 도미니카 공화국 소재의 선교사 훈련원을 감리할 때 함께 봉사했다. 얼리드 부부는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보 선교사로 봉사했다.

얼리드 자매는 첫 상호부조회 부름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의지가 되어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바바라 톰슨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전 와드 활동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편한 청바지를 입고 위생 키트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회장단 제2보좌라는 새로운 부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의 선교사, 복음 교리반 교사, 청년 야영 책임자, 월계반 및 꿀벌반 고문, 와드 청년 회장, 와드 상호부조회 보좌,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 위원으로 봉사했던 톰슨 자매는 “자매들이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지닐 때,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고 믿는다.

1952년 6월 13일에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어비스포에서 더블류 피터 톰슨과 편 라이머 톰슨 사이에서 태어난 톰슨 자매는 나중에 가족과 함께 유타 주 그랜저로 이사를 했다. 그녀는 운동과 야영을 항상 좋아했지만 가장 좋았던 활동은 친구들과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유타 대학교에서 사회 사업으

로 석사 학위를 받은 톰슨 자매는 30년 동안 인도주의 서비스 유타 지부에서 일해왔다. 은퇴한 후에 그녀는 학대 받고 홀대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국제적인 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봉사해왔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았던 적은 없었지만, 톰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과 친구들과 계속 함께해 왔고, 또 교회의 자매들에게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백 자매를 뒷받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백 자매님이 잘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톰슨 자매는 봉사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주는 그녀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여성들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복음과 상호부조회에 있는 자매에 의지하면 우리의 짐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

메리 앤 쿡

본부 청년회 회장단 제2보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잠언 3:5)는 말씀은 본부 청년회 회장단 제2보좌인 메리 닐슨 쿡 자매를 인도하는 진리이다.

1951년 6월 8일에 유타 주 미드베일에서 태어난 쿡 자매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부모인 케네스 앤 닐슨과 편 에스 닐슨의 모범으로부터 배웠다. 그녀의 부친은 쿡 자매가 아기였을 때 광산 사고로 인해 건강 문제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동안 모친이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했다. 그때는 시련의 시기였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결혼과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꾸어 왔으나 오랜 세월 동안 독신으로 있었다. “때때로 저는 제 꿈이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쿡 자매는 말한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제가 받았던 축복들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언어 병리학 및 청력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와 교

육 전문가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특수 교육 교사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1988년 7월 16일에 그녀는 리처드 이 쿡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남편은 훗날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다. 쿡 장로의 첫 아내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혼 당시에 자신은 “홀륭한 네 자녀를 상속받고 또 여덟 손자녀의 할머니가 되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현재 17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쿡 장로와 자매가 몽고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새로 생긴 몽고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중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홍콩으로 갔으며, 남편은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또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그리고 본부 청년 임원회에서 봉사했다.

쿡 자매는 자신의 여러 경험들에 감사하며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간증한다. ■